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1

(2021.12.31. 현재)

분석 보고서

2022. 4. 22.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1

분석 보고서

편 찬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주 소 · 04918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74

전 화 · 02-460-7549

팩 스 · 02-460-7633

<http://cbck.or.kr/Pastor>

e-mail: pastor@cbck.kr

©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2022.

비매품

목 차

기초 분석 보고서

I. 신자 현황.....	7
1) 인구 대비 신자 현황.....	7
(1) 총인구 대비 신자 수	7
(2) 교구별 관할 지역 인구 대비 신자 수	8
(3) 연령별 인구 대비 신자 비율.....	10
2) 신자 구성	13
(1) 연령별/성별 신자 구성	13
(2) 교구별 신자 규모	17
II. 본당과 공소 현황	20
III. 성직자와 신학생 현황	23
1) 성직자 수와 신학생 수	23
2) 교구 소속 신부	26
IV. 수도회와 수도자 현황	31
1) 수도회와 수도자 수	31
(1) 남자 수도회	32
(2) 여자 수도회	34
2) 사도직 활동 현황.....	36

V. 성사 활동.....	38
1) 세례성사.....	38
(1) 총 영세자 수.....	38
(2) 연령별 영세자 수.....	40
(3) 교구별 영세자 수.....	43
2) 주일 미사, 판공성사.....	46
3) 혼인성사.....	50
4) 견진, 병자, 영성체, 고해 성사.....	51
VI. 주일학교.....	54
VII. 해외 선교.....	57
VIII. 신앙 교육.....	60
IX. 사회 사업.....	62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1」을 통해 본 사목적 시사점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1」을 통해 본 사목적 시사점	67
---------------------------------------	----

부록

최근 20년간 교구별 신자 수, 주일 미사 참여자 수, 영세자 수 추이(2001-2021년)	81
--	----

기초 분석 보고서

I. 신자 현황

1) 인구 대비 신자 현황

(1) 총인구 대비 신자 수

- ▶ 한국 천주교회 신자 수는 5,938,045명으로 전년 대비 0.2%(14,745명) 증가
- ▶ 총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11.3%로 전년 대비 0.1%p 증가

- 2021년 12월 31일 현재 한국 천주교회 신자 수는 5,938,045명으로 전년 대비 0.2%(14,745명) 증가하였다. 이는 총인구 52,732,700¹⁾명의 11.3%에 해당한다.
- 총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11.3%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였다. 그러나 신자 비율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살펴보면 11.26%으로 2020년(11.18%)과 0.08%p의 차이를 나타낸다.
- 총인구 52,732,700명은 전년보다 0.46%(241,86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2021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는 51,638,809명으로 전년보다 190,214명이 감소하여 지난해에 이어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를 보였다. 또한 법무부 제공 등록외국인인구는 1,093,891명으로 전년보다 51,649명이 감소하였다.
- 신자 증가율은 2011년부터 매년 1-2%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8년부터 1% 아래로 떨어졌다. 2020년에는 0.1%로 증가율이 급격히 낮아졌는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영세자 수가 급감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2021년에는 전년보다 0.1%p 늘어난 0.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이전 2019년도 증가율(0.8%)의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11-2021년 총인구 대비 신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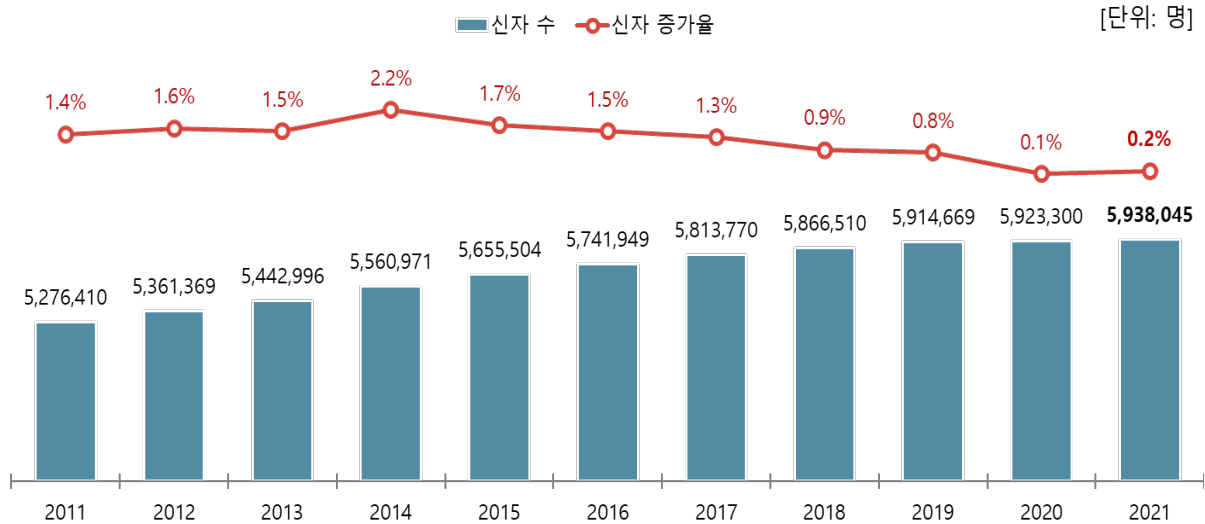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인구(명)	51,716,745	51,881,255	52,127,386	52,419,447	52,672,425	52,857,893
신자 수(명)	5,276,410	5,361,369	5,442,996	5,560,971	5,655,504	5,741,949

¹⁾ 총인구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 51,638,809명과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등록외국인인구 1,093,891명을 합산한 것이다.

총인구 대비 신자 비율(%)	10.2(10.20)	10.3(10.33)	10.4(10.44)	10.6(10.61)	10.7(10.74)	10.9(10.86)
신자 증가율(%)	1.4	1.6	1.5	2.2	1.7	1.5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인구(명)	52,950,306	53,072,685	53,121,668	52,974,563	52,732,700
신자 수(명)	5,813,770	5,866,510	5,914,669	5,923,300	5,938,045
총인구 대비 신자 비율(%)	11.0(10.98)	11.1(11.05)	11.1(11.13)	11.2(11.18)	11.3(11.26)
신자 증가율(%)	1.3	0.9	0.8	0.1	0.2

<그림 1> 2011-2021년 신자 수 추이



(2) 교구별 관할 지역 인구 대비 신자 수

- ▶ 관할 지역 인구가 증가한 교구는 원주, 의정부, 수원, 인천, 대전 교구이며, 이외 다른 교구 인구는 모두 감소함
- ▶ 원주교구 지역 내 인구가 전년 대비 10%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 제주, 의정부 교구 신자 수는 전년 대비 각각 1.1%, 0.9% 증가함
- ▶ 관할 지역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서울, 제주, 인천 순으로 높음

- 2021년도 관할 지역 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8.8%), 마산(-4.4%), 광주(-2.5%)는 전년 대비 다른 교구에 비해 감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원주, 의정부, 수원, 인천, 대전 다섯 개 교구는 관할 지역 인구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원주의 증감률(10.0%)이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 교구들의 관할 지역 인구를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전년 대비 2배 이상 감소하였으며(-81,520명 → -187,140명), 그 외 지역(의정부, 수원, 인천)은 총 108,701명이 증가하였다.
- 제주교구와 의정부교구가 전년 대비 각각 1.1%, 0.9% 증가하는 등 많은 교구에서 미미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부산교구와 마산교구는 2020년에는 신자 수가 감소했으나 2021년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코로나19로 군대 내 종교 활동이 여의치 않아 신자 수 급감을 겪은 군종교구의 경우 감소율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5.6% → -4.1%).
- 한편, 지난해 교적 정리가 두드러졌던 서울대교구에서 올해는 교적 재작성으로 인한 증가가 4,300명, 교적 정리로 인한 감소가 3,199명으로 나타나, 교적 조정으로 1,101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해에는 타교구 전입이 전출보다 많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올해는 타교구 전출이 전입보다 높아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3,564명 감소). 전체 신자 수는 전년보다 0.2%p 감소한 0.1%(868명)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표 2> 전년 대비 교구 관할 인구 및 신자 증감률(2020년, 2021년)

구분	관할 인구				신자			
	2020년 증감수(명) 증감률(%)		2021년 증감수(명) 증감률(%)		2020년 증감수(명) 증감률(%)		2021년 증감수(명) 증감률(%)	
서울	-81,520	-0.8	-187,140	-1.9	5,143	0.3	868	0.1
춘천	-4,954	-0.4	-4,158	-0.4	432	0.5	467	0.5
대전	1,750	0.0	2,712	0.1	820	0.2	2,008	0.6
인천	24,738	0.6	9,973	0.2	630	0.1	1,498	0.3
수원	61,537	0.7	59,588	0.7	3,345	0.4	5,847	0.6
원주	6,735	0.8	89,093	10.0	266	0.3	478	0.6
의정부	51,286	1.6	39,140	1.2	2,430	0.8	2,977	0.9
대구	-42,648	-1.0	-38,048	-0.9	144	0.0	956	0.2
부산	-40,638	-0.7	-62,838	-1.1	-363	-0.1	317	0.1
청주	39,442	2.7	-3,279	-0.2	363	0.2	523	0.3
마산	-11,676	-0.5	-111,043	-4.4	-251	-0.1	188	0.1
안동	-10,722	-1.5	-9,458	-1.4	-8	0.0	15	0.0
광주	-26,889	-0.8	-82,264	-2.5	-121	0.0	695	0.2
전주	-14,813	-0.8	-17,249	-1.0	44	0.0	361	0.2
제주	4,224	0.6	-59,042	-8.8	672	0.8	935	1.1
군종	-	-	-	-	-4,915	-5.6	-3,388	-4.1
합계	-147,105	-0.3	-241,863	-0.5	8,631	0.1	14,745	0.2

- 2021년 교구별 관할 지역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서울 15.7%, 제주 13.5%, 인천 11.9%, 대구·청주 11.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대부분의 교구가 전년과 동일하거나 인구 감소로 인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8만여 명의 인구가 감소한 서울에서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이 0.3%p 증가하였으며, 관할 인구 감소율이 높게 나타난 제주와 마산 교구도 각각 1.3%p, 0.4%p씩 증가하였다. 반면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원주는 신자 비율이 0.8%p 감소하였다.

<표 3> 2011-2021년 교구별 관할 지역 인구 대비 신자 비율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서울	13.6	13.8	14.5	14.8	15.0	15.3	15.0	15.6	15.2	15.4	15.7
춘천	7.5	7.4	7.4	8.4	7.8	7.8	7.9	8.0	8.2	8.3	8.4
대전	7.7	7.7	7.8	8.1	8.2	8.3	8.4	8.4	8.5	8.5	8.6
인천	10.2	10.3	10.7	11.4	11.4	11.6	11.6	11.7	11.9	11.9	11.9
수원	10.4	10.6	10.7	10.9	11.0	10.9	10.7	10.7	10.9	10.9	10.9
원주	8.7	8.8	8.9	8.9	9.0	8.8	9.0	8.7	9.0	9.0	8.2
의정부	9.1	9.2	9.4	9.7	9.7	9.6	9.7	10.1	9.8	9.7	9.7
대구	10.4	10.4	10.5	10.7	10.9	11.0	11.1	11.3	11.4	11.5	11.7
부산	7.6	7.6	7.8	7.9	7.9	8.0	8.1	8.2	8.3	8.3	8.4
청주	11.0	11.1	11.2	11.3	11.6	11.7	11.8	11.9	12.0	11.7	11.7
마산	6.6	6.6	6.6	6.8	6.8	6.9	7.3	7.2	7.2	7.2	7.6
안동	6.5	6.3	6.6	6.8	6.9	7.0	7.2	7.3	7.4	7.5	7.6
광주	9.9	10.0	10.1	10.3	10.4	10.5	11.0	10.7	10.8	10.9	11.2
전주	10.0	10.1	10.2	10.3	10.4	10.6	10.7	10.9	11.1	11.2	11.3
제주	11.9	11.9	11.9	11.9	11.8	11.7	11.6	11.6	12.1	12.2	13.5

(3) 연령별 인구 대비 신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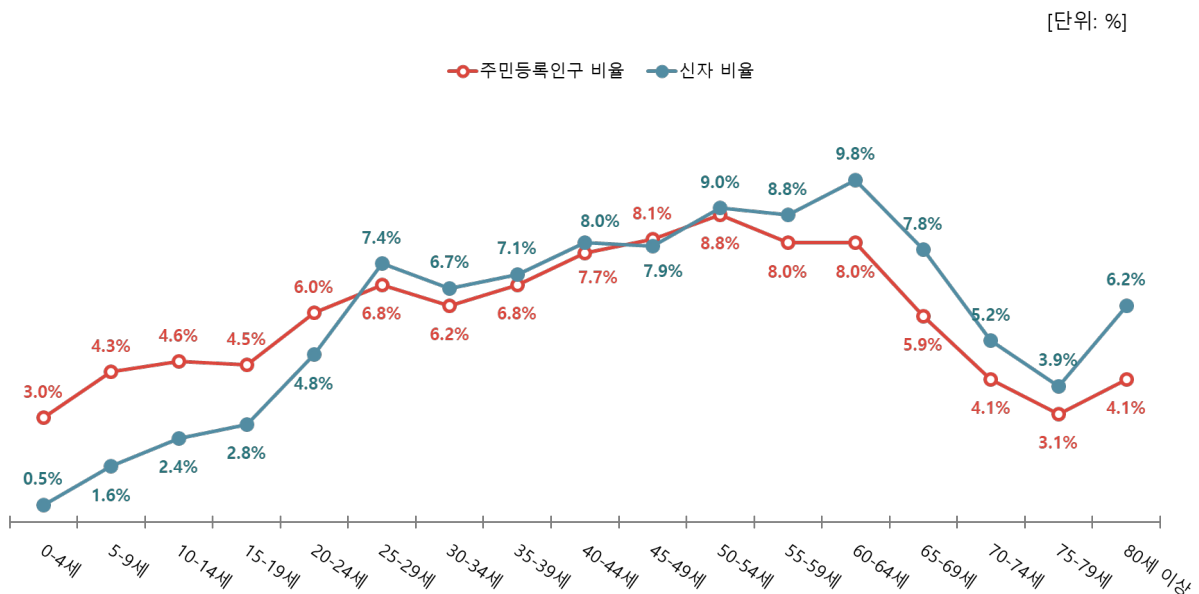
- ▶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고령 신자일수록 높게 나타나며, 60-64세의 신자 비율이 가장 높음
- ▶ 54세 이하 전 구간의 신자 비율이 10년 전보다 낮음. 15-19세 신자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

- 2021년 주민등록인구의 연령별 구성 비율과 신자의 연령별 구성 비율을 비교해 보면, 24세 이하까지 1%p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주민등록인구의 점유율이 앞서고 있다. 그

러나 25세부터 그 차이가 줄어 1%p 미만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 55세 이후부터 신자 비율이 더 앞서게 된다. 신자 비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60-6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통계와 비교해 보면 15-19세 신자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54세 이하 전 구간에서 신자 비율이 10년 전보다 낮다. 55세부터는 2021년의 신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장 높은 비율의 차를 보이고 있는 연령대는 60대, 80세 이상의 순이다.
- 60세 이상에서 주민등록인구 비율과 신자 비율 모두 10년 전보다 증가하였으나 주민등록인구 비율의 차보다 신자 비율의 차가 더 크게 나타나 10년 전보다 고령 신자 비율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2021년 주민등록인구와 신자 연령별 구성비



<표 4> 주민등록인구와 신자 연령별 구성비의 차

구분	2011년			2021년		
	A 주민등록 인구 비율(%)	B 신자 비율(%)	A-B(%p)	A 주민등록 인구 비율(%)	B 신자 비율(%)	A-B(%p)
0-4세	4.6	1.3	3.3	3.0	0.5	2.5
5-9세	4.6	2.3	2.4	4.3	1.6	2.7
10-14세	6.2	4.1	2.1	4.6	2.4	2.2
15-19세	7.0	5.6	1.4	4.5	2.8	1.7
20-24세	6.3	6.4	-0.1	6.0	4.8	1.2
25-29세	6.9	7.5	-0.5	6.8	7.4	-0.5

30-34세	7.9	7.9	0.0	6.2	6.7	-0.5
35-39세	8.3	7.9	0.4	6.8	7.1	-0.3
40-44세	9.1	9.2	-0.1	7.7	8.0	-0.2
45-49세	8.3	9.2	-0.8	8.1	7.9	0.2
50-54세	8.5	10.3	-1.8	8.8	9.0	-0.2
55-59세	6.3	8.4	-2.0	8.0	8.8	-0.9
60-64세	4.6	5.6	-1.1	8.0	9.8	-1.8
65-69세	3.7	4.4	-0.7	5.9	7.8	-1.9
70-74세	3.2	3.6	-0.4	4.1	5.2	-1.1
75-79세	2.2	2.7	-0.4	3.1	3.9	-0.8
80세 이상	2.0	3.6	-1.6	4.1	6.2	-2.1
연령 미상	-	0.1	-	-	0.1	-
합계	100	100		100	100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24세 이하에서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연령 구간별로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20-24세의 신자 비율은 전년 대비 0.6%p 더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19로 군종교구 영세자 수가 감소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한 0-14세 전체 구간에서 전년 대비 0.2%씩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연령별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띤다. 2021년 65세 이상의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14.8%로 전년 대비 0.5%p 감소하여 2012년 이래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처음으로 감소율을 나타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 연령 구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 65세 이상을 더 세부적으로 연령 구간을 나눠 살펴보면 80세 이상에서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이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 연령에 따른 주민등록인구 대비 신자 비율(신자 수/주민등록인구*100) 추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0-4세	2.9	2.9	2.9	2.9	2.9	2.8	2.8	2.7	2.2	2.0
5-9세	5.0	5.0	5.1	5.1	5.0	5.0	4.9	4.8	4.5	4.3
10-14세	6.8	6.7	6.7	6.7	6.7	6.6	6.6	6.5	6.3	6.1
15-19세	8.2	8.1	8.0	7.8	7.8	7.6	7.5	7.4	7.2	7.2
20-24세	10.8	10.6	11.5	11.7	11.7	11.3	10.9	10.5	9.8	9.2
25-29세	10.6	10.8	11.0	11.3	11.7	12.2	12.5	12.6	12.6	12.4
30-34세	10.7	10.9	11.1	11.3	11.5	11.7	11.8	11.9	11.9	12.3
35-39세	10.0	10.3	10.7	11.0	11.3	11.5	11.8	11.9	12.0	12.1
40-44세	10.5	10.5	10.5	10.5	10.7	10.8	11.0	11.3	11.5	11.8

45-49세	11.5	11.3	11.2	11.2	11.2	11.2	11.1	11.1	11.1	11.2
50-54세	12.6	12.5	12.4	12.3	12.2	12.1	11.9	11.7	11.7	11.8
55-59세	13.9	14.0	13.9	13.7	13.5	13.3	13.2	13.0	12.8	12.8
60-64세	13.2	13.7	14.1	14.4	14.5	14.6	14.6	14.4	14.2	14.1
65세 이상	13.6	13.8	14.0	14.2	14.3	14.5	14.8	15.1	15.3	14.8
65-69세	12.9	13.2	13.5	13.7	13.6	14.0	14.3	14.6	14.8	15.2
70-74세	11.7	12.0	12.4	12.8	13.2	13.8	14.0	14.3	14.4	14.6
75-79세	12.5	12.6	12.7	12.9	12.9	12.9	13.1	13.5	13.8	14.5
80세 이상	18.8	19.0	18.2	18.1	17.7	17.8	17.9	18.1	18.1	17.4
합계	10.5	10.6	10.8	11.0	11.1	11.2	11.3	11.4	11.4	11.5

- 합계는 연령 미상의 신자 수를 포함하였다.

- 2012년부터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수를 조사하였다.

2) 신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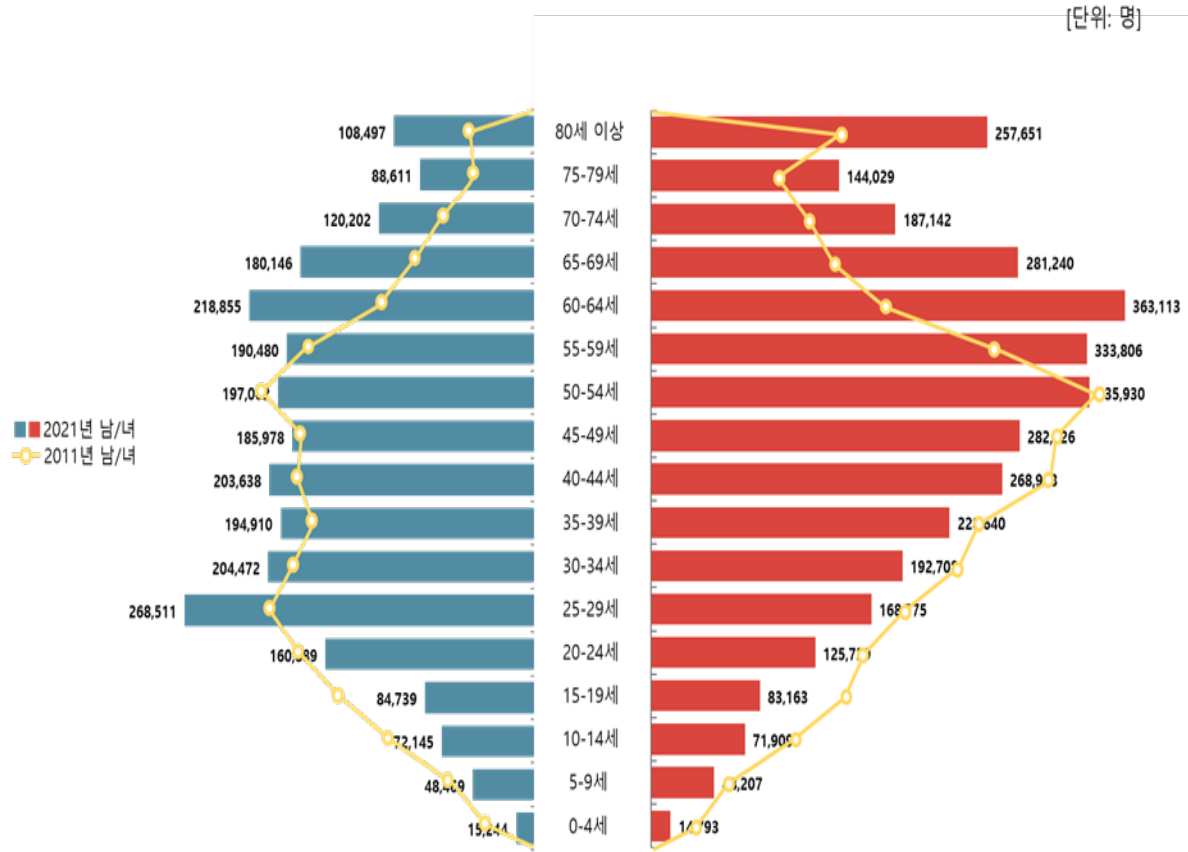
(1) 연령별/성별 신자 구성

- ▶ 전체 신자 가운데 60-64세의 신자가 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 남성과 여성 신자의 비는 42.9% 대 57.1%
- ▶ 전 교구의 65세 이상 신자의 비율이 20%가 넘어 모든 교구가 초고령 교구로 진입

- ❑ 2021년 신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64세(9.8%)이며, 이어서 50-54세(9.0%), 55-59세(8.8%)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 남성과 여성 신자의 비는 42.9%(2,545,194명) 대 57.1%(3,392,851명)로 전년 대비 여성 신자 비율이 0.1%p 높게 나타났다. 10대 이하에서는 남성이 약간 높은 비율로 거의 대등하게 이어지다가, 25-29세에서 22.8%p 20-24세에서 12.2%p 남성 신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5세 이상부터 여성 신자가 더 많이 나타나며, 80세 이상에서 40.8%p, 55-59세에서 27.4%p 차이로 여성 신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 남성과 여성의 신자 비율 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80세 이상에서는 남성 29.6% 대 여성 70.4%로 여성이 남성의 2배가 넘는 비율을 차지한다.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구간은 25-29세로 6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2011년 대비 연령별 남녀 신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0-24세와 50-54세에서 신자 수가 감소하고, 55세 이상에서는 모두 증가하였다. 반면, 25-44세에서 여성은 2011년 대비 감소를 나타냈으나, 남성은 증가를 나타냈으며, 특히 25-29세 남성 신자

수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림 3> 2011년, 2021년 연령별 남녀 신자 수



<표 6> 2011년, 2021년 연령별 남녀 신자 수

구분	2011					
	남성		여성		합계	연령별 신자 비율(%)
	신자 수(명)	비율(%)	신자 수(명)	비율(%)		
0-4세	34,986	51.1	33,528	48.9	68,514	1.3
5-9세	60,613	50.8	58,669	49.2	119,282	2.3
10-14세	109,091	50.5	107,091	49.5	216,182	4.1
15-19세	148,752	50.2	147,488	49.8	296,240	5.6
20-24세	178,019	52.3	162,586	47.7	340,605	6.4
25-29세	200,655	50.8	194,071	49.2	394,726	7.5
30-34세	182,461	43.6	235,644	56.4	418,105	7.9
35-39세	167,639	40.1	250,000	59.9	417,639	7.9
40-44세	179,517	37.0	305,579	63.0	485,096	9.2
45-49세	175,970	36.2	309,971	63.8	485,941	9.2
50-54세	206,268	37.7	341,361	62.3	547,629	10.3

55-59세	174,484	39.4	268,712	60.6	443,196	8.4
60-64세	119,220	40.0	179,036	60.0	298,256	5.6
65-69세	92,066	39.6	140,316	60.4	232,382	4.4
70-74세	70,959	37.1	120,557	62.9	191,516	3.6
75-79세	44,662	31.6	96,525	68.4	141,187	2.7
80세 이상	48,102	25.0	144,198	75.0	192,300	3.6
연령 미상	1,294	33.9	2,526	66.1	3,820	0.1
합계	2,194,758	41.5	3,097,858	58.5	5,292,616	100

구분	2021					
	남성		여성		합계	연령별 신자 비율(%)
	신자 수(명)	비율(%)	신자 수(명)	비율(%)		
0-4세	15,244	50.8	14,793	49.2	30,037	0.5
5-9세	48,469	50.1	48,207	49.9	96,676	1.6
10-14세	72,145	50.1	71,909	49.9	144,054	2.4
15-19세	84,739	50.5	83,163	49.5	167,902	2.8
20-24세	160,889	56.1	125,729	43.9	286,618	4.8
25-29세	268,511	61.4	168,775	38.6	437,286	7.4
30-34세	204,472	51.5	192,708	48.5	397,180	6.7
35-39세	194,910	46.0	228,640	54.0	423,550	7.1
40-44세	203,638	43.1	268,943	56.9	472,581	8.0
45-49세	185,978	39.7	282,426	60.3	468,404	7.9
50-54세	197,002	37.0	335,930	63.0	532,932	9.0
55-59세	190,480	36.3	333,806	63.7	524,286	8.8
60-64세	218,855	37.6	363,113	62.4	581,968	9.8
65-69세	180,146	39.0	281,240	61.0	461,386	7.8
70-74세	120,202	39.1	187,142	60.9	307,344	5.2
75-79세	88,611	38.1	144,029	61.9	232,640	3.9
80세 이상	108,497	29.6	257,651	70.4	366,148	6.2
연령 미상	2,406	34.1	4,647	65.9	7,053	0.1
합계	2,545,194	42.9	3,392,851	57.1	5,938,045	100

- 교구별로 65세 이상의 신자가 교구 전체 신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였다.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보는 유엔의 기준에 따라 이를 교구에 대입시켜 각 교구의 고령화 정도를 확인해 보았다(군종교구 제외).
- 2021년 한국 교회 65세 이상 신자 비율은 23.0%로 전년 대비 1.0%p 증가하였다. 한국 교회는 2019년 65세 이상 신자 비율이 20.5%로 처음 초고령으로 진입하였다. 교구

별 차이를 보이던 데서 2020년에 65세 이상 신자 비율이 20%를 넘지 않았던 수원교구가 2021년 20.3%로 나타나면서 전 교구가 초고령 교구로 진입하게 되었다.

- 65세 이상 신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교구는 안동교구(29.9%)이며, 이어 춘천(28.4%), 원주(26.0%) 교구 순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신자 비율이 가장 낮은 교구는 수원(20.3%), 제주(21.3%), 의정부(21.6%) 교구 순이다.
- 2011년 대비 65세 이상 신자 비율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교구는 부산 11.8%p(13.6% → 25.4%), 안동 11.2%p(18.7% → 29.9%), 마산 10.5%p(12.9% → 2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교구별 65세 이상 신자 비율(교구별 65세 이상 신자/전체 신자*100)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서울	15.4	16.3	17.2	17.5	18.3	18.5	19.6	20.6	22.0	23.7	23.9
춘천	18.4	19.7	20.4	20.9	21.4	21.7	23.0	24.0	25.4	26.9	28.4
대전	14.5	15.0	15.6	16.1	16.7	17.0	18.0	18.7	19.7	21.0	22.2
인천	13.4	14.1	14.7	15.3	15.9	16.4	17.4	18.3	19.5	20.9	22.3
수원	12.7	13.2	13.8	14.2	14.7	15.1	16.0	16.8	17.8	19.1	20.3
원주	17.5	18.2	18.9	18.9	19.4	19.7	21.0	22.0	23.1	24.6	26.0
의정부	14.0	14.7	15.2	15.7	16.2	16.5	17.3	18.1	19.1	20.4	21.6
대구	14.7	15.5	16.4	17.1	17.8	18.4	19.5	20.6	21.7	23.3	24.7
부산	13.6	14.4	15.3	16.1	17.0	17.8	19.1	20.4	21.8	23.6	25.4
청주	15.6	16.1	16.4	16.9	17.3	17.8	18.7	19.6	20.7	22.0	23.2
마산	12.9	13.6	14.4	14.9	15.6	16.3	17.5	18.6	20.0	21.8	23.4
안동	18.7	19.6	20.7	21.6	22.6	23.1	24.3	25.5	26.9	28.4	29.9
광주	15.5	16.3	17.1	17.8	18.5	19.0	20.1	21.0	22.1	23.5	24.9
전주	16.3	16.9	17.8	18.4	19.2	19.8	20.7	21.6	22.7	24.1	25.3
제주	12.5	13.2	14.0	14.5	15.2	15.9	16.8	17.6	18.6	20.0	21.3
군중	0.5	1.0	1.2	1.1	1.0	0.9	0.9	1.0	1.1	1.3	1.6
합계	14.3	15.1	15.9	16.4	17.0	17.4	18.4	19.3	20.5	22.0	23.0

- 연령 미상 제외

(2) 교구별 신자 규모

- ▶ 교구별 신자 비율은 거의 변동이 없으며, 서울, 수원, 인천, 대구 교구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수도권 교구 신자가 전체의 55.8%임
- ▶ 수도권 교구에서 신자 전입과 전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21년 교구별 신자 비율은 서울대교구 신자 수가 한국 천주교회 전체 신자의 25.8%(전년 대비 -0.1%p)를 차지하고, 수원 15.8%(전년 대비 +0.1%p), 인천 8.8%, 대구 8.6%, 부산 7.7%(전년 대비 -0.1%p), 광주 6.2%, 대전 5.7%, 의정부 5.4% 등으로 매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교구(서울, 인천, 의정부, 수원)에 소속되어 있는 신자는 총 3,317,574명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하였으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전체 신자의 55.8%를 차지하였다.

<표 8> 전년 대비 교구별 신자 수

구분	신자 수(명)			교구별 신자 비율(%)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서울	1,528,876	1,534,019	1,534,887	25.8	25.9	25.8
춘천	91,281	91,713	92,180	1.5	1.5	1.6
대전	335,152	335,972	337,980	5.7	5.7	5.7
인천	521,690	522,320	523,818	8.8	8.8	8.8
수원	928,650	931,995	937,842	15.7	15.7	15.8
원주	79,402	79,668	80,146	1.3	1.3	1.3
의정부	315,620	318,050	321,027	5.3	5.4	5.4
대구	511,757	511,901	512,857	8.7	8.6	8.6
부산	460,003	459,640	459,957	7.8	7.8	7.7
청주	171,875	172,238	172,761	2.9	2.9	2.9
마산	182,194	181,943	182,131	3.1	3.1	3.1
안동	52,326	52,318	52,333	0.9	0.9	0.9
광주	365,649	365,528	366,223	6.2	6.2	6.2
전주	201,690	201,734	202,095	3.4	3.4	3.4
제주	81,411	82,083	83,018	1.4	1.4	1.4
군종	87,093	82,178	78,790	1.5	1.4	1.3
합계	5,914,669	5,923,300	5,938,045	100	100	100

- 2021년 한국 교회 전체 신자의 0.9%가 타교구로 전입·전출하였다(전입 52,467명, 전출 50,340명).
- 타교구에서 가장 많은 신자가 전입해 온 교구는 서울대교구로 전체 전입 신자의 23.4%이다. 다음으로는 수원교구 23.3%, 의정부교구 11.7%, 인천교구 9.9% 순으로 수도권 지역의 교구로 전입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타교구로의 전출이 가장 많은 교구 역시 서울대교구가 31.4%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수원교구 14.5%, 인천교구 8.8%, 의정부교구 6.5% 순으로 나타나 타교구로의 전출 역시 수도권 교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수도권을 제외한 전입·전출이 가장 많은 교구는 대전으로 전입 비율 6.9%, 전출 비율 5.1%를 나타내고 있다.
- 군종교구에서 타교구로의 전출 비율이 전년 대비 5.7% 감소한 11.8%로 나타났다. 군종교구는 2016년부터 양업 시스템에 가상 본당을 만들어 사병 영세자들의 교적을 생성, 관리하고 전역 후 각자의 주소지 본당으로 전송하고 있다.
- 교구 신자 대비 타교구에서 전입한 신자의 비율은 의정부교구가 1.9%로 가장 높으며 춘천 1.5%, 수원·원주 각 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타교구로 전출한 신자의 비율은 서울·춘천·의정부 각 1.0%, 대전·인천·수원·원주 각 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2021년 교구별 전입과 전출

구분	타교구에서의 전입			타교구로의 전출		
	전입 신자 수(명)	교구별 전입 비율(%)	교구 신자 대비 전입률(%)	전출 신자 수(명)	교구별 전출 비율(%)	교구 신자 대비 전출률(%)
서울	12,260	23.4	0.8	15,824	31.4	1.0
춘천	1,369	2.6	1.5	918	1.8	1.0
대전	3,602	6.9	1.1	2,592	5.1	0.8
인천	5,173	9.9	1.0	4,445	8.8	0.8
수원	12,229	23.3	1.3	7,290	14.5	0.8
원주	1,011	1.9	1.3	606	1.2	0.8
의정부	6,142	11.7	1.9	3,254	6.5	1.0
대구	1,945	3.7	0.4	1,995	4.0	0.4
부산	1,645	3.1	0.4	2,212	4.4	0.5
청주	1,467	2.8	0.8	1,078	2.1	0.6
마산	1,196	2.3	0.7	955	1.9	0.5
안동	475	0.9	0.9	380	0.8	0.7
광주	1,586	3.0	0.4	1,458	2.9	0.4

전주	974	1.9	0.5	911	1.8	0.5
제주	922	1.8	1.1	497	1.0	0.6
군중	471	0.9	0.6	5,925	11.8	7.5
합계	52,467	100	0.9	50,340	100	0.8

II. 본당과 공소 현황

- ▶ 전국의 본당 수는 1,779 개로 전년 대비 12 개 증가
- ▶ 공소 수는 710 개로 감소 추세에서 처음으로 증가(6 개)를 나타냄
- ▶ 교구별 본당 평균 신자 수는 서울, 수원, 인천, 의정부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국의 본당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1,779개로 전년 대비 12 개 증가하였다. 교구별로는 청주·제주 교구에서 각 3개, 대전교구 2개, 인천·수원·원주·의정부·마산 교구에서 각 1개 본당이 신설되었으며, 춘천교구에서 1개의 본당이 감소하였다.
- 공소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21년 6개의 공소가 증가해서 전체 공소 수는 710개이다. 광주대교구에서 7개, 대전교구 4개, 의정부교구 2개가 증가하였으며, 청주교구에서 3개, 제주교구에서 2개가 감소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표 10> 2017-2021년 교구별 본당/공소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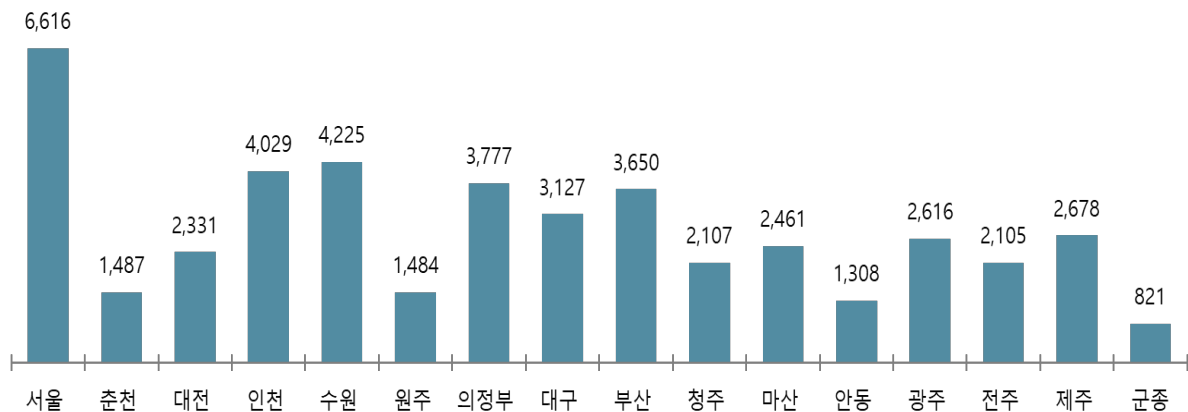
구분	본당 수(개)						공소 수(개)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수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수
서울	232	232	232	232	232	-	-	-	-	-	-	-
춘천	61	62	62	63	62	-1	41	39	39	36	37	1
대전	142	142	142	143	145	2	54	54	66	68	72	4
인천	124	127	128	129	130	1	35	35	33	33	32	-1
수원	213	215	218	221	222	1	17	17	16	17	18	1
원주	52	53	53	53	54	1	38	37	37	37	36	-1
의정부	78	81	81	84	85	1	5	5	4	3	5	2
대구	162	162	164	164	164	-	79	79	79	77	77	0
부산	124	125	126	126	126	-	14	14	14	14	13	-1
청주	77	78	79	79	82	3	51	51	49	49	46	-3
마산	72	72	73	73	74	1	51	52	52	52	51	-1
안동	40	40	40	40	40	-	64	63	63	63	63	0
광주	137	138	139	140	140	-	76	76	72	73	80	7
전주	96	96	96	96	96	-	74	75	60	59	58	-1
제주	27	28	28	28	31	3	8	9	9	9	7	-2
군종	97	96	95	96	96	-	130	123	116	114	115	1

합계	1,734	1,747	1,756	1,767	1,779	12	737	729	709	704	710	6
증감 수	15	13	9	11	12		-3	-8	-20	-5	6	

- 2021년 본당 평균 신자 수는 3,338명으로, 2019년까지 증가하다 2020년부터 감소세를 나타냈다.
- 교구별 본당 평균 신자 수는 서울대교구가 6,61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수원(4,225명), 인천(4,029명), 의정부(3,777명), 부산(3,650명) 교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4개의 교구에서 본당 평균 신자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 본당 평균 신자 수가 가장 적은 교구는 안동교구로 1,308명이며, 2019년부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당 평균 신자 수가 가장 많은 서울대교구는 6,616명으로 안동교구의 5배가량 되는 수치이다.

<그림 4> 2021년 교구별 본당 평균 신자 수

[단위: 명]



<표 11> 2011-2021년 교구별 본당 평균 신자 수(교구별 신자 수/본당 수)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서울	6,349	6,346	6,432	6,517	6,576	6,643	6,586	6,594	6,590	6,612	6,616
춘천	1,414	1,449	1,443	1,396	1,420	1,445	1,466	1,458	1,472	1,456	1,487
대전	2,196	2,259	2,313	2,332	2,276	2,305	2,289	2,326	2,360	2,349	2,331
인천	3,923	3,945	3,990	3,993	4,069	4,132	4,120	4,072	4,076	4,049	4,029
수원	3,975	4,037	4,088	4,158	4,208	4,195	4,229	4,261	4,260	4,217	4,225
원주	1,562	1,551	1,565	1,542	1,570	1,528	1,489	1,480	1,498	1,503	1,484
의정부	3,645	3,700	3,873	3,810	3,811	3,864	3,898	3,822	3,897	3,786	3,777
대구	2,942	2,966	3,001	3,052	3,075	3,075	3,108	3,135	3,120	3,121	3,127
부산	3,546	3,568	3,552	3,597	3,609	3,641	3,668	3,661	3,651	3,648	3,650

청주	2,012	2,045	2,075	2,120	2,154	2,159	2,189	2,186	2,176	2,180	2,107
마산	2,239	2,261	2,290	2,369	2,401	2,428	2,492	2,513	2,496	2,492	2,461
안동	1,259	1,257	1,243	1,302	1,287	1,271	1,284	1,298	1,308	1,308	1,308
광주	2,665	2,614	2,640	2,685	2,598	2,627	2,649	2,635	2,631	2,611	2,616
전주	2,049	2,048	2,048	2,079	2,054	2,076	2,069	2,087	2,101	2,101	2,105
제주	2,778	2,613	2,661	2,730	2,799	2,868	2,923	2,868	2,908	2,932	2,678
군종	587	534	489	555	672	758	825	851	917	856	821
합계	3,204	3,222	3,263	3,306	3,315	3,340	3,353	3,358	3,368	3,352	3,338

Ⅲ. 성직자와 신학생 현황

1) 성직자 수와 신학생 수

- ▶ 성직자 수는 총 5,626명[주교 41명(추기경 1명 포함), 신부 5,585명]으로 전년 대비 48명 증가
- ▶ 신학생 수는 교구 신학생 883명, 수도회 신학생 254명이며 교구 신학생 수는 2011년보다 33.6% 감소
- ▶ 입학 신학생 수는 138명(교구 111명, 수도회 27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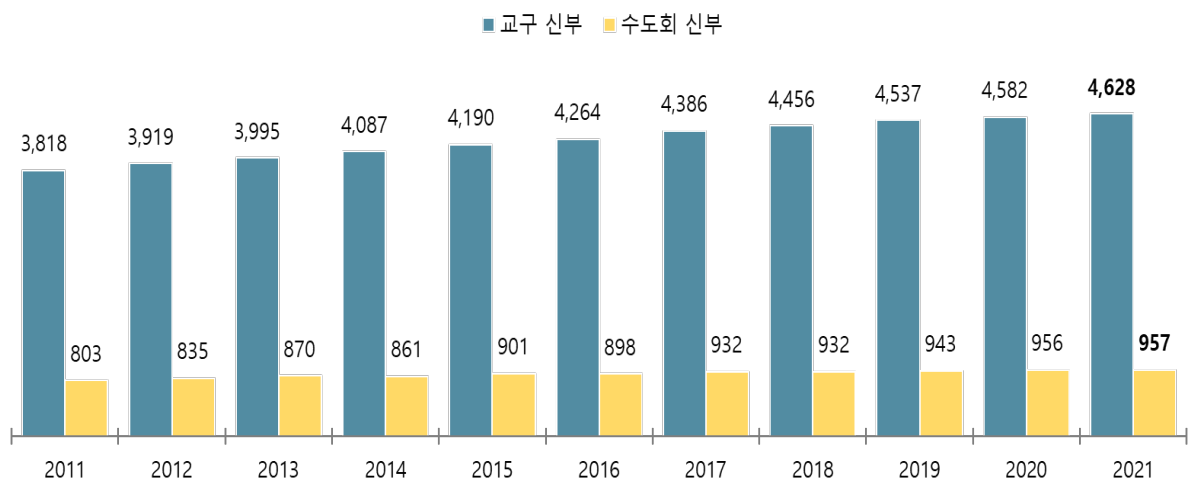
- 2021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의 성직자(부제 제외)는 추기경 1명을 포함하여 주교 41명, 신부 5,585명으로 총 5,626명이다. 주교의 수는 2020년보다 1명 증가, 신부는 47명이 증가하였다.

<표 12> 2011-2021년 성직자 수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성직자 수(명)	4,655	4,788	4,901	4,984	5,129	5,201	5,360	5,430	5,522	5,578	5,626
주교	34	34	36	36	38	39	42	42	42	40	41
신부	4,621	4,754	4,865	4,948	5,091	5,162	5,318	5,388	5,480	5,538	5,585

<그림 5> 2011-2021년 성직자 수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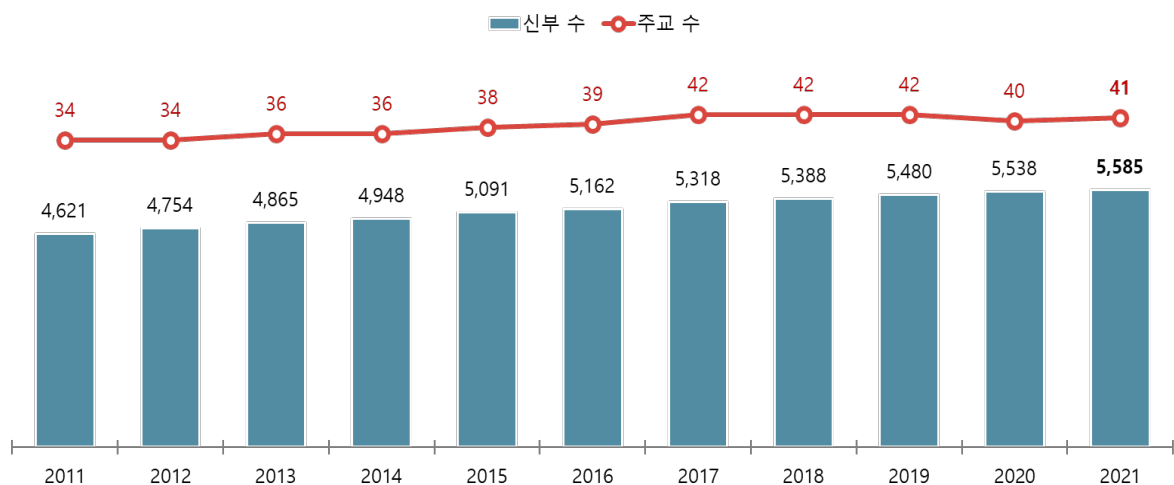
- 5,585명의 신부 중 교구 신부는 4,628명이며, 축성생활회 신부는 810명, 사도생활단 신부는 147명으로 나타났다. 교구 신부는 전년보다 46명이 늘어 1.0%의 증가율을 보였고 축성생활회 신부는 1명 증가하였다.
- 2021년 교구 새 수품 신부는 93명으로, 작년보다 4명이 감소하였다. 이는 전체 교구 신부 4,628명의 2%에 해당한다. 교구 새 수품 신부 수는 10년간 매년 증가와 감소를 번갈아 보였으나 2020년 97명으로 처음 100명 이하가 되었으며, 2021년 가장 적은 숫자를 나타냈다.

<표 13> 2011-2021년 교구와 수도회 신부 수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교구	신부(명)	3,818	3,919	3,995	4,087	4,190	4,264	4,386	4,456	4,537	4,582	4,628
	증감률(%)	3.2	2.6	1.9	2.3	2.5	1.8	2.9	1.6	1.8	1.0	1.0
	새 수품 신부(명)	131	131	111	107	121	109	146	100	125	97	93
	증감률(%)	22.4	-	-15.3	-3.6	13.1	-9.9	33.9	-31.5	25.0	-22.4	-4.1
수도회	축성생활회 신부(명)	647	676	697	708	731	748	781	786	797	809	810
	증감률(%)	2.4	4.5	3.1	1.6	3.2	2.3	4.4	0.6	1.4	1.5	0.1
	사도생활단 신부(명)	156	159	173	153	170	150	151	146	146	147	147
	증감률(%)	-1.9	1.9	8.8	-11.6	11.1	-11.8	0.7	-3.3	-	0.7	-

<그림 6> 2011-2021년 주교, 신부 수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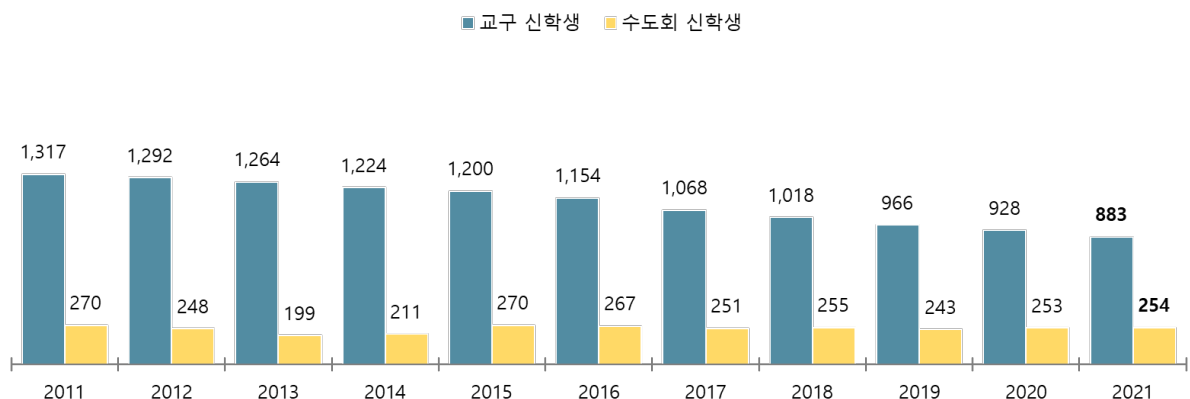
- 2021년 신학생 수는 교구 883명, 수도회 254명이다. 교구의 신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0년 전인 2011년 1,317명보다 28.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회 신학생은 2013년 199명으로 최저 인원을 나타낸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 2021년 현재까지 250명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 수도회 신학생 수는 전년 대비 1명 증가하였으며, 10년 전보다 5.9%가 감소하였다.
- 2021년 입학 신학생 수는 전년 대비 1명 감소한 138명으로, 2011년 대비 38.1%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교구 입학 신학생은 2021년 111명으로 전년 대비 5명 감소, 2011년 대비 38% 감소하였으며, 수도회 입학 신학생은 27명으로 전년 대비 4명 증가, 2011년 대비 38.6%가 감소하였다.
- 2016년과 2017년에 입학한 신학생 수는 각각 132명, 136명으로 지난 10년 가운데 입학학생이 적은 2개년이었고, 이때 교구 신학생 입학 수 역시 적었던 해로 나타났다. 2018년 164명으로 높게 나타났다가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4> 2011-2021년 신학생 수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신학생(명)	1,587	1,540	1,463	1,435	1,470	1,421	1,319	1,273	1,209	1,181	1,137
교구(명)	1,317	1,292	1,264	1,224	1,200	1,154	1,068	1,018	966	928	883
증감률(%)	-4.1	-1.9	-2.2	-3.2	-2.0	-3.8	-7.5	-4.7	-5.1	-3.9	-4.8
수도회(명)	270	248	199	211	270	267	251	255	243	253	254
증감률(%)	-10	-8.1	-19.8	6.0	28.0	-1.1	-6	1.6	-4.7	4.1	0.4
입학 신학생(명)	223	203	170	160	158	132	136	164	145	139	138
교구(명)	179	166	143	127	124	110	108	130	123	116	111
비율(%)	80.3	81.8	84.1	79.4	78.5	83.3	79.4	79.3	84.8	83.5	80.4
수도회(명)	44	37	27	33	34	22	28	34	22	23	27
비율(%)	19.7	18.2	15.9	20.6	21.5	16.7	20.6	20.7	15.2	16.5	19.6

<그림 7> 2011-2021년 신학생 수 추이

[단위: 명]



2) 교구 소속 신부

- ▶ 교구 소속 새 수품 신부는 93 명으로 전년 대비 4 명 감소
- ▶ 본당 사목을 소임으로 하는 신부는 전체 신부의 49.4%(특수 사목 23.3%)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
- ▶ 본당 사목 신부 1 인당 평균 신자 수는 2,561 명임
- ▶ 65 세 이상의 신부가 15.9%, 원로 사목자가 10.1%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 ▶ 40 대 신부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

- 2021년 교구 소속 새 수품 신부 수는 총 93명으로 전년 대비 4명 감소하였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29% 감소한 것이다.
- 서울대교구의 새 수품 신부 수는 전년보다 7명이 감소하였으며, 수원교구는 6명이 감소하였다. 지난해 새 수품 신부 수가 가장 크게 감소했던 대구대교구는 7명이 증가하여 총 12명, 부산교구는 6명이 사제품을 받았다. 제주, 안동, 원주 교구에서는 새 수품 신부가 없었다.
- 2021년 전체 신부 대비 높은 비율의 새 수품자가 탄생한 교구는 대전 3.3%, 의정부 3.0%, 수원 2.6%, 광주 2.4%, 대구 2.3% 순이다.

<표 15> 2011-2021년 교구별 새 수품 신부 수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 수
서울	32	37	21	36	25	20	27	32	26	26	19	-7
춘천	3	2	1	3	3	-	3	1	2	1	2	1
대전	19	18	10	12	10	5	22	-	7	9	13	4
인천	-	11	11	7	7	12	18	11	9	8	7	-1
수원	17	14	20	13	19	17	22	13	25	20	14	-6
원주	1	2	3	3	2	6	2	4	3	1	-	-1
의정부	6	4	5	6	7	4	8	7	4	8	7	-1
대구	16	12	14	-	17	13	15	7	31	5	12	7
부산	9	14	5	9	3	6	7	7	4	-	6	6
청주	5	2	2	3	6	3	7	4	3	2	2	-

마산	2	4	4	-	5	7	3	3	-	4	2	-2
안동	5	-	1	-	3	4	1	-	1	1	-	-1
광주	9	5	8	10	6	6	7	7	5	7	7	-
전주	6	4	5	4	5	4	4	3	3	2	2	-
제주	1	2	1	1	3	2	-	1	2	3	-	-3
합계	131	131	111	107	121	109	146	100	125	97	93	-4

- 2021년 현재 교구 신부 가운데 본당 사목을 소임으로 하는 신부 수는 2,288명으로 전체 신부의 49.4%에 해당한다. 이어서 특수 사목 23.3%, 원로 사목자는 10.1%, 국내외 연학 4.6%, 교포 사목 3.3%, 해외 선교 2.5%, 안식년 2.2% 등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 교구 신부 가운데 원로 사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져서 2021년 전체 사제의 10.1%가 원로 사목자가 되었으며, 전년 대비 0.4%p 증가하였다.
- 본당 사목의 비율은 2011년부터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전년 대비 0.5%p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수 사목, 휴양의 비율도 소폭 증가하였다. 이외의 항목들은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16> 2011-2021년 교구 신부 소임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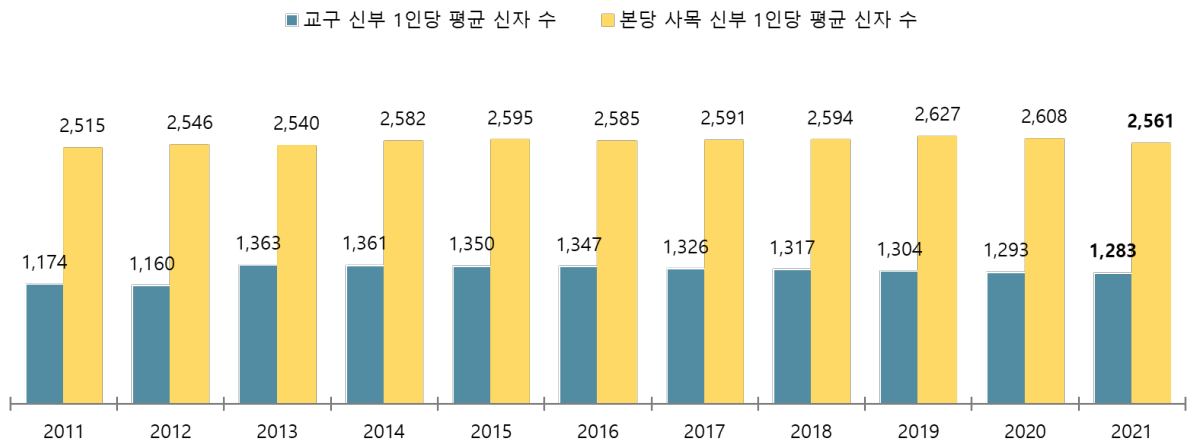
구분		본당 사목	특수 사목	군종	국내외 연학	교포 사목	해외 선교	안식년	휴양	대기	휴직	원로 사목
2011	인원수(명)	2,070	844	95	194	165	79	65	44	11	23	227
	비율(%)	54.2	22.1	2.5	5.1	4.3	2.1	1.7	1.2	0.3	0.6	5.9
2012	인원수(명)	2,087	892	94	192	171	94	55	41	15	28	249
	비율(%)	53.3	22.8	2.4	4.9	4.4	2.4	1.4	1.0	0.4	0.7	6.4
2013	인원수(명)	2,125	910	92	187	173	82	67	51	17	22	269
	비율(%)	53.2	22.8	2.3	4.7	4.3	2.1	1.7	1.3	0.4	0.6	6.7
2014	인원수(명)	2,134	999	98	144	168	90	69	45	21	27	292
	비율(%)	52.2	24.4	2.4	3.5	4.1	2.2	1.7	1.1	0.5	0.7	7.1
2015	인원수(명)	2,156	991	98	204	171	99	63	48	36	26	298
	비율(%)	51.5	23.7	2.3	4.9	4.1	2.4	1.5	1.1	0.9	0.6	7.1
2016	인원수(명)	2,194	1,020	99	171	169	107	69	50	39	25	321
	비율(%)	51.5	23.9	2.3	4.0	4.0	2.5	1.6	1.2	0.9	0.6	7.5
2017	인원수(명)	2,214	1,058	100	171	165	111	68	51	39	38	371
	비율(%)	50.5	24.1	2.3	3.9	3.8	2.5	1.6	1.2	0.9	0.9	8.5
2018	인원수(명)	2,231	1,043	99	199	174	113	63	64	43	36	391
	비율(%)	50.1	23.4	2.2	4.5	3.9	2.5	1.4	1.4	1.0	0.8	8.8

2019	인원수(명)	2,219	1,060	102	207	165	123	93	55	12	73	428
	비율(%)	48.9	23.4	2.2	4.6	3.6	2.7	2.0	1.2	0.3	1.6	9.4
2020	인원수(명)	2,240	1,046	100	233	168	121	103	67	16	43	445
	비율(%)	48.9	22.8	2.2	5.1	3.7	2.6	2.2	1.5	0.3	0.9	9.7
2021	인원수(명)	2,288	1,079	99	215	152	115	101	78	8	24	469
	비율(%)	49.4	23.3	2.1	4.6	3.3	2.5	2.2	1.7	0.2	0.5	10.1

- 교구 신부 1인당 평균 신자 수는 1,283명(수도회 사제를 포함하면 1,063명)으로 2020년 1,293명보다 10명이 감소하였다. 2013년 1,300명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1,200명대로 나타났다.
- 교구 신부 중 본당 사목 신부 1인당 평균 신자 수는 2,561명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교구(3,537명), 인천교구(3,274명), 수원교구(3,245명), 제주교구(2,678명) 등의 순으로 1인당 평균 신자 수가 높게 나타났다. 본당 사목 신부의 1인당 평균 신자 수는 매년 증감이 번갈아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2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8> 2011-2021년 교구 신부(본당 사목 신부) 1인당 평균 신자 수 추이

[단위: 명]



<표 17> 2011-2021년 교구 신부(본당 사목 신부) 1인당 평균 신자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서울	1,393	1,348	1,910	1,859	1,828	1,813	1,764	1,717	1,703	1,680	1,665
	(3,670)	(3,755)	(3,610)	(3,553)	(3,594)	(3,588)	(3,578)	(3,533)	(3,572)	(3,551)	(3,537)
춘천	689	688	813	803	795	801	799	800	794	812	809
	(1,281)	(1,271)	(1,268)	(1,374)	(1,375)	(1,377)	(1,466)	(1,506)	(1,449)	(1,456)	(1,418)
대전	840	841	885	887	893	914	883	898	906	886	867
	(1,690)	(1,739)	(1,748)	(1,773)	(1,823)	(1,849)	(1,816)	(1,845)	(1,894)	(1,887)	(1,857)

인천	1,427 (3,138)	1,369 (3,062)	1,637 (3,208)	1,646 (3,314)	1,655 (3,423)	1,631 (3,273)	1,572 (3,173)	1,548 (3,315)	1,534 (3,344)	1,514 (3,392)	1,518 (3,274)
수원	1,643 (3,266)	1,655 (3,350)	1,916 (3,290)	1,937 (3,379)	1,914 (3,427)	1,904 (3,418)	1,857 (3,425)	1,870 (3,418)	1,828 (3,328)	1,779 (3,270)	1,763 (3,245)
원주	704 (1,306)	708 (1,350)	707 (1,337)	698 (1,299)	698 (1,322)	670 (1,213)	667 (1,191)	654 (1,207)	646 (1,302)	642 (1,285)	652 (1,272)
의정부	1,360 (2,598)	1,371 (2,548)	1,483 (2,582)	1,500 (2,454)	1,490 (2,466)	1,495 (2,479)	1,469 (2,599)	1,453 (2,457)	1,475 (2,447)	1,446 (2,356)	1,420 (2,140)
대구	963 (2,246)	938 (2,278)	1,053 (2,230)	1,076 (2,391)	1,027 (2,342)	1,015 (2,339)	1,005 (2,299)	1,004 (2,395)	969 (2,369)	1,010 (2,337)	1,000 (2,259)
부산	1,176 (2,345)	1,163 (2,327)	1,294 (2,421)	1,309 (2,499)	1,301 (2,446)	1,309 (2,441)	1,307 (2,446)	1,300 (2,434)	1,289 (2,514)	1,280 (2,498)	1,271 (2,541)
청주	864 (1,576)	873 (1,570)	933 (1,561)	948 (1,678)	941 (1,723)	939 (1,768)	921 (1,702)	917 (1,740)	914 (1,828)	911 (1,813)	924 (1,781)
마산	969 (1,883)	961 (1,859)	1,100 (1,904)	1,095 (1,922)	1,110 (1,948)	1,108 (1,948)	1,101 (2,111)	1,117 (2,080)	1,125 (2,169)	1,096 (2,192)	1,084 (2,194)
안동	556 (1,087)	582 (1,137)	638 (1,154)	634 (1,237)	652 (1,224)	628 (1,130)	626 (1,141)	604 (1,104)	595 (1,189)	588 (1,189)	595 (1,246)
광주	1,114 (2,142)	1,119 (2,181)	1,383 (2,148)	1,358 (2,132)	1,353 (2,106)	1,348 (2,155)	1,349 (2,186)	1,332 (2,115)	1,315 (2,176)	1,283 (2,150)	1,267 (2,093)
전주	932 (1,743)	933 (1,745)	938 (1,764)	939 (1,758)	933 (1,758)	939 (1,793)	937 (1,789)	941 (1,838)	942 (1,850)	943 (1,851)	940 (1,854)
제주	1,477 (2,671)	1,501 (2,433)	1,671 (2,661)	1,675 (2,730)	1,608 (2,606)	1,580 (2,420)	1,644 (2,722)	1,639 (2,676)	1,596 (3,015)	1,520 (3,040)	1,537 (2,678)
군종	764 -	545 -	494 -	521 -	652 -	735 -	800 -	825 -	854 -	822 -	796 -
전체	1,174 (2,515)	1,160 (2,546)	1,363 (2,540)	1,361 (2,582)	1,350 (2,595)	1,347 (2,585)	1,326 (2,591)	1,317 (2,594)	1,304 (2,627)	1,293 (2,608)	1,283 (2,561)

- 교구별 신부 1인당 평균 신자 수는 각 교구에서 군종교구에 파견된 신부 수를 제외하고 계산하였다(단, 전체 신자 수에는 군종교구도 포함).

- 본당 사목 신부 1인당 평균 신자 수는 괄호 안에 표기하였고, 군종교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교구 신부 연령별 분포는 2021년 40-44세 신부가 15.2%로 가장 많으며 45-49세 14.5%, 50-54세 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0대 신부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012년(그 이전은 조사 연령 구간이 달라 비교가 어려움) 연령별 분포와 비교해 보면 30-34세가 15.3%, 65세 이상이 9.4%였던 반면, 2021년에는 30-34세가 9.4%, 65세 이상이

15.9%로 비율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30대는 32.3%였으나 2021년 현재 19.5%로 30대의 젊은 신부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표 18> 2012-2021년 교구 신부 연령별 비율 추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5- 29 세	2.0	1.8	1.4	1.5	1.7	2.4	2.3	1.5	1.5	1.5
30- 34 세	15.3	13.6	11.7	11.1	9.5	9.0	9.3	10.0	9.1	9.4
35- 39 세	17.0	15.8	16.4	16.4	16.3	15.6	14.8	12.9	12.0	10.1
40- 44 세	16.9	17.6	17.1	16.9	16.0	15.5	14.9	14.7	15.0	15.2
45- 49 세	14.7	14.8	14.8	14.1	15.2	14.6	15.1	15.4	14.9	14.5
50- 54 세	11.4	12.3	12.6	13.7	13.1	12.8	12.6	12.8	12.8	13.5
55- 59 세	8.0	8.6	8.9	8.4	9.3	10.6	10.8	10.9	11.5	11.8
60- 64 세	5.1	5.4	6.1	6.8	7.1	7.1	7.5	7.8	8.0	8.2
65 세 이상	9.4	10.1	10.9	11.0	11.6	12.5	12.7	14.0	15.1	15.9
65- 69 세	3.6	3.8	4.2	4.1	4.2	4.7	4.6	5.0	5.9	6.4
70- 74 세	3.3	3.1	3.0	3.1	3.1	3.2	3.2	3.7	3.7	3.7
75- 79 세	1.4	2.1	2.3	2.2	2.5	2.8	2.7	2.4	2.6	2.6
80 세 이상	1.1	1.1	1.4	1.6	1.8	1.8	2.2	2.9	2.9	3.2

IV. 수도회와 수도자 현황

1) 수도회와 수도자 현황

- ▶ 총 171개 수도회에서 11,790명(남자 1,625명, 여자 10,165명)의 수도자가 수도생활을 하고 있음(수련자는 291명)
- ▶ 외국인 유기 서원자 및 수련자의 비중이 높아짐

- 2021년 한국 교회의 수도회 현황은 총 171개 수도회(전년 대비 2개 증가)에 수도자 11,790명이 수도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수도자는 지난해보다 1명 감소한 1,625명, 여자 수도자는 13명 증가한 10,165명으로 집계되었다.
- 2021년 수련자는 총 291명으로 남자 47명, 여자는 244명이다. 남자 수련자 수는 전년 대비 29.9%(-20명) 감소하였으며, 감소 추세에서 전년 증가를 보였던 여자 수련자는 다시 감소하여 전년 대비 9.0%(-24명) 감소하였다. 남녀 모두 2011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특히 최근 2년간 남자 수련자의 감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9> 2011-2021년 수도회 및 수도자 수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수도회 수(개)		155	157	166	168	169	169
수도자	남자(명)	1,521	1,569	1,564	1,574	1,585	1,564
	증감률(%)	-2.4	3.2	-0.3	0.6	0.7	-1.3
	여자(명)	10,146	10,167	10,173	10,160	10,155	10,170
	증감률(%)	3.1	0.2	0.1	-0.1	-	0.1
	합계	11,667	11,736	11,737	11,734	11,740	11,734
수련자	남자(명)	87	98	98	82	59	91
	증감률(%)	-22.3	12.6	-	-16.3	-28.0	54.2
	여자(명)	356	388	359	361	335	300
	증감률(%)	-16.8	9.0	-7.5	0.6	-7.2	-10.4
	합계	443	486	457	443	394	391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수도회 수(개)		167	167	169	169	171
수도자	남자(명)	1,593	1,592	1,594	1,626	1,625
	증감률(%)	1.9	-0.1	0.1	2.0	-0.1

	여자(명)	10,143	10,145	10,159	10,152	10,165
	증감률(%)	-0.3	-	0.1	-0.1	0.1
	합계	11,736	11,737	11,753	11,778	11,790
수련자	남자(명)	91	90	97	67	47
	증감률(%)	-	-1.1	7.8	-30.9	-29.9
	여자(명)	303	287	255	268	244
	증감률(%)	1.0	-5.3	-11.1	5.1	-9.0
	합계	394	377	352	335	291

(1) 남자 수도회

▶ 교황청 설립 수도회

- 2021년 종신 서원자 수는 한국인 3명, 외국인 2명이 증가해 총 990명으로 나타났다. 종신 서원자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10년 전에 비해 9.6% 증가하였다.
- 반면, 유기 서원자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유기 서원자 수는 한국인, 외국인 각 2명씩 총 4명이 감소하여 83명으로 나타났다.
- 수련자는 한국인 수련자가 크게 줄어 2020년 수련자 수의 절반이 감소해 총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교구 설립 수도회

- 2021년 종신 서원자의 수는 전년 대비 외국인 종신 서원자의 수가 크게 줄어 소폭 감소한 모습이지만 10년 전부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인 종신 서원자가 전체의 88.7%를 차지하고 있다.
- 유기 서원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외국인 유기 서원자 수가 2017년에 한국인 수를 역전하여 현재 총 유기 서원자 수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 수련자 수는 매년 증가와 감소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기 서원자와 마찬가지로 2017년부터 외국인 수련자가 더 많아졌다.

▶ 사도생활단

- 종신 서원자의 경우에 2011년에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이 비슷했으나 점점 외국인 수가 적어지고 한국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전체(152명)의 66.4%(101명)가 한국인으로 나타났다.
- 유기 서원자의 총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9년부터 변화가 없다.

- 수련자 수는 매년 증가와 감소가 번갈아 나타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9명이 감소하여 총 5명이 되었고, 외국인 수련자는 없다.

<표 20> 2011-2021년 남자 수도자 수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교황청 설립	종신서원자(명)	903	910	933	948	958	970	988	989	985	985	990
	한국인	805	817	843	863	865	872	887	894	897	895	898
	외국인	98	93	90	85	93	98	101	95	88	90	92
	유기서원자(명)	128	120	103	104	96	83	83	72	74	87	83
	한국인	126	116	100	96	95	78	80	68	69	82	80
	외국인	2	4	3	8	1	5	3	4	5	5	3
	수련자(명)	51	52	47	36	29	31	32	34	39	26	13
	한국인	51	49	45	35	27	30	30	30	35	25	11
	외국인	0	3	2	1	2	1	2	4	4	1	2
교구 설립	종신서원자(명)	256	275	280	287	281	290	290	294	295	304	302
	한국인	254	251	254	264	259	265	262	263	265	259	268
	외국인	2	24	26	23	22	25	28	31	30	45	34
	유기서원자(명)	47	71	61	51	52	46	61	72	75	84	86
	한국인	47	43	40	37	32	24	30	29	26	28	20
	외국인	0	28	21	14	20	22	31	43	49	56	66
	수련자(명)	18	22	35	34	16	43	44	37	44	27	29
	한국인	17	11	27	23	9	22	18	14	21	10	13
	외국인	1	11	8	11	7	21	26	23	23	17	16
사도 생활단	종신서원자(명)	161	164	163	163	177	162	158	152	153	154	152
	한국인	79	80	85	91	91	95	97	93	98	100	101
	외국인	82	84	78	72	86	67	61	59	55	54	51
	유기서원자(명)	26	29	24	21	21	13	13	13	12	12	12
	한국인	24	27	21	19	19	11	10	10	9	11	8
	외국인	2	2	3	2	2	2	3	3	3	1	4
	수련자(수)	18	24	16	12	14	17	15	19	14	14	5
	한국인	15	19	14	10	12	13	12	14	12	12	5
	외국인	3	5	2	2	2	4	3	5	2	2	-

(2) 여자 수도회

▶ 교황청 설립 수도회

- 종신 서원자 수는 10년 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도 전년 대비 42명이 늘어나 총 5,87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보다 9.2%가 증가한 수이며, 한국인 종신 서원자 수는 9.0%, 외국인 종신 서원자는 17%가 증가하였다.
- 유기 서원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에도 전년 대비 8.7% 감소한 26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64.6%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한국인 유기 서원자는 2011년 대비 71.3% 감소한 반면, 외국인 유기 서원자는 64.9% 증가하였다.
- 수련자 역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1년 수련자 수는 전년 대비 총 27명이 감소하여 83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외국인 수련자 수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교구 설립 수도회

- 종신 서원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종신 서원자 수는 3,634명으로 2020년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외국인 종신 서원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10년 전의 3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 유기 서원자는 2018년까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9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외국인 유기 서원자 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한국인 유기 서원자의 비율은 85.2%였으나 매년 낮아져 2020년에는 47.7%(외국인 52.3%)로 외국인 유기 서원자의 비율이 처음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2021년에는 외국인 유기 서원자의 비율이 더 높아져 60.1% 차지하고 있다.
- 수련자 역시 2016년까지는 한국인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2017년부터 외국인 수련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 수련자는 10년 전보다 69.7%가 감소한 반면 외국인 수련자는 112.5%가 증가하였다.

▶ 재속회

- 종신 서원자는 2021년 48명으로 전년대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2011년보다 65.5%가 증가하였다. 유기 서원자는 7명으로 전년대와 동일하며 수련자는 6명으로 전년대보다 1명 증가하였다.

▶ 사도생활단

- 2021년 종신 서원자의 수는 45명으로 전년대보다 3명이 더 증가하였다. 2021년 외국인 종신 서원자 수는 전년 대비 5명이 증가해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 유기 서원자는 한국인 유기 서원자의 감소로 2014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

다 2015년부터 외국인 유기 서원자의 증가에 영향을 받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21년 유기 서원자의 수는 전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 수련자 수는 2021년은 12명으로 한국인, 외국인 수련자 모두 소폭 감소하여 전년 대비 4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자 사도생활단에서도 외국인 유기 서원자 및 수련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표 21> 2011-2021년 여자 수도자 수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교황청 설립	종신서원자(명)	5,380	5,417	5,626	5,683	5,674	5,746	5,795	5,805	5,826	5,832	5,874
	한국인	5,257	5,304	5,495	5,546	5,540	5,608	5,660	5,659	5,679	5,685	5,730
	외국인	123	113	131	137	134	138	135	146	147	147	144
	유기서원자(명)	746	717	536	488	458	400	356	349	316	289	264
	한국인	709	676	488	441	416	350	300	295	267	234	203
	외국인	37	41	48	47	42	50	56	54	49	55	61
	수련자(명)	205	229	214	227	211	176	161	141	113	110	83
	한국인	184	194	189	204	180	150	142	115	83	76	63
	외국인	21	35	25	23	31	26	19	26	30	34	20
교구 설립	종신서원자(명)	3,519	3,566	3,599	3,586	3,663	3,680	3,647	3,661	3,654	3,651	3,634
	한국인	3,499	3,539	3,563	3,544	3,612	3,617	3,594	3,587	3,575	3,563	3,543
	외국인	20	27	36	42	51	63	53	74	79	88	91
	유기서원자(명)	413	365	310	305	258	243	241	226	251	266	276
	한국인	352	313	278	253	207	188	177	159	147	127	110
	외국인	61	52	32	52	51	55	64	67	104	139	166
	수련자(명)	138	137	133	124	116	116	126	128	128	137	143
	한국인	114	115	100	79	82	81	55	40	25	27	34
	외국인	24	22	33	45	34	35	71	88	103	110	109
재속회	종신서원자(명)	29	45	45	42	43	41	40	41	47	48	48
	유기서원자(명)	10	10	9	9	10	8	8	7	8	7	7
	수련자(명)	5	14	7	6	2	0	2	0	1	5	6
사도 생활단	종신서원자(명)	37	35	37	38	36	38	39	40	43	42	45
	한국인	34	31	33	34	32	32	33	34	36	36	34
	외국인	3	4	4	4	4	6	6	6	7	6	11
	유기서원자(명)	12	12	11	9	13	14	17	16	14	17	17
	한국인	6	6	5	4	4	3	3	3	2	2	3
	외국인	6	6	6	5	9	11	14	13	12	15	14
	수련자(명)	8	8	5	4	6	8	14	18	13	16	12

	한국인	3	4	2	1	2	5	5	5	3	3	1
	외국인	5	4	3	3	4	3	9	13	10	13	11

2) 사도직 활동 현황

- 2021년 남자 수도자들의 사도직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남자 수도자 1,625명 가운데 43.1%인 700명이 사도직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기타 30.6%(214명) 사회복지기관 20.9%(146명), 전교활동 11.9%(83명), 교회기관 11.7%(82명), 교육기관 9.3%(65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특수 사도직, 기타의 비율은 증가하였고, 이를 제외한 분야는 감소하였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가 3.0%p 감소, 기타 분야가 7.5%p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변화하였다. 2016년부터 기타 사도직 분야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아졌는데, 여기에는 청소년수련원, 대학기숙사, 상담(영성·심리), 수녀원 상주 신부, 수도원 내부 소임, 통번역 등에 종사하는 회원 수를 포함한다.
- 여자 수도자들의 사도직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여자 수도자 10,165명의 수도자 가운데 62.5%인 6,357명이 사도직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전교활동 27.3%(1,738명), 사회복지기관 20.4%(1,294명), 기타 20.3%(1,289명), 교육기관 9.1%(581명), 의료기관 8.3%(52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비중은 2020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으나 사회복지기관, 출판홍보기관, 기타의 비중이 증가했으며, 이를 제외한 분야의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다. 전교활동이 여자 수도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년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남자 수도자와 마찬가지로 기타 사도직 분야에서의 활동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표 22> 수도자 사도직 활동 현황 비율 추이

구분		전교 활동	교육 기관	의료 기관	사회복지 기관	특수 사도직	출판홍보 기관	교회 기관	기타
남 자 수 도 자 (%)	2013	15.0	18.7	6.9	28.9	10.6	4.7	6.7	8.6
	2014	16.0	11.9	5.7	23.1	7.1	7.9	14.1	14.1
	2015	12.5	10.7	5.2	28.3	4.7	7.0	13.1	18.3
	2016	10.7	11.0	4.8	24.2	6.0	6.6	11.1	25.5
	2017	10.9	10.9	4.4	25.2	6.5	5.0	16.1	21.1
	2018	12.2	11.4	4.7	24.4	5.1	7.6	14.8	19.8
	2019	13.1	10.1	4.7	22.0	7.1	6.5	12.2	24.5
	2020	12.2	10.1	4.3	23.9	6.3	5.8	14.4	23.1
	2021	11.9	9.3	4.4	20.9	6.7	4.6	11.7	30.6
	인원 수(명)	(83)	(65)	(31)	(146)	(47)	(32)	(82)	(214)

여 자 수 도 자 (%)	2013	34.7	13.0	9.8	24.7	4.6	3.0	6.6	3.6
	2014	32.4	10.7	9.4	24.1	3.5	3.0	7.5	9.5
	2015	31.1	9.4	9.2	24.0	3.3	2.6	7.6	12.7
	2016	30.8	9.8	9.0	21.9	3.8	2.7	6.7	15.3
	2017	30.5	9.8	8.9	22.5	3.6	3.3	7.2	14.2
	2018	28.9	9.7	8.7	20.7	4.2	3.3	7.4	17.1
	2019	29.2	9.6	8.8	20.9	5.5	2.9	7.0	16.1
	2020	27.6	9.4	9.0	19.8	5.3	2.9	7.7	18.3
	2021	27.3	9.1	8.3	20.4	4.5	3.0	7.2	20.3
	인원 수(명)	(1,738)	(581)	(527)	(1,294)	(283)	(190)	(455)	(1,289)

V. 성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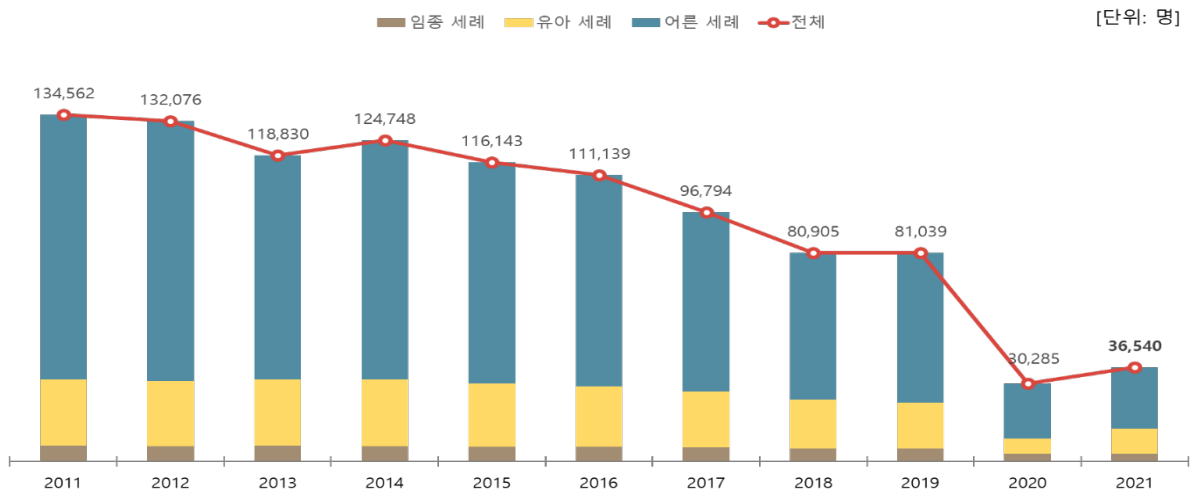
1) 세례성사

(1) 총 영세자 수

- ▶ 2021년 영세자 수는 36,540명으로 전년 대비 20.7% 증가
- ▶ 코로나 19 발생 전인 2019년 영세자 수의 45.1% 수준
- ▶ 유아 세례가 전년 대비 65.6% 증가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021년 한국 교회의 영세자 수는 36,540명으로 전년 대비 20.7%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영세자 대비 45.1%의 회복률을 나타낸다. 세례 유형별로는 유아 세례 26.6%(9,710명), 어른 세례 65.2%(23,822명), 임종 세례 8.2%(3,008명)로 나타났다.
- 2020년 가장 감소폭이 컸던 유아 세례는 전년 대비 65.6%의 증가율을 보여 9,710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세례자 가운데 26.6%를 차지하여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2019년 유아 세례자의 54.5%에 해당하며, 어른 세례(40.9%)보다 더 높은 회복률을 보였다.
- 어른 세례는 23,822명으로 전년 대비 11.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9년의 40.9%에 해당한다. 유아 세례보다 더딘 회복세를 보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비신자 교리를 다시 실시하는 본당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그림 9> 2011-2021년 영세자 수 추이



<표 23> 2011-2021년 영세자 수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유아 세례(명)	25,717	25,141	25,589	26,009	24,675	23,528
비율(%)	19.1	19.0	21.5	20.8	21.2	21.2
어른 세례(명)	102,673	100,918	87,088	92,790	85,846	81,998
비율(%)	76.3	76.4	73.3	74.4	73.9	73.8
임종 세례(명)	6,172	6,017	6,153	5,949	5,622	5,613
비율(%)	4.6	4.6	5.2	4.8	4.8	5.1
전체(명)	134,562	132,076	118,830	124,748	116,143	111,139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유아 세례(명)	21,530	18,942	17,806	5,862	9,710
비율(%)	22.2	23.4	22.0	19.4	26.6
어른 세례(명)	69,745	56,856	58,198	21,453	23,822
비율(%)	72.1	70.3	71.8	70.8	65.2
임종 세례(명)	5,510	5,107	5,035	2,970	3,008
비율(%)	5.7	6.3	6.2	9.8	8.2
전체(명)	96,794	80,905	81,039	30,285	36,540

<표 24> 2011-2021년 전년 대비 영세자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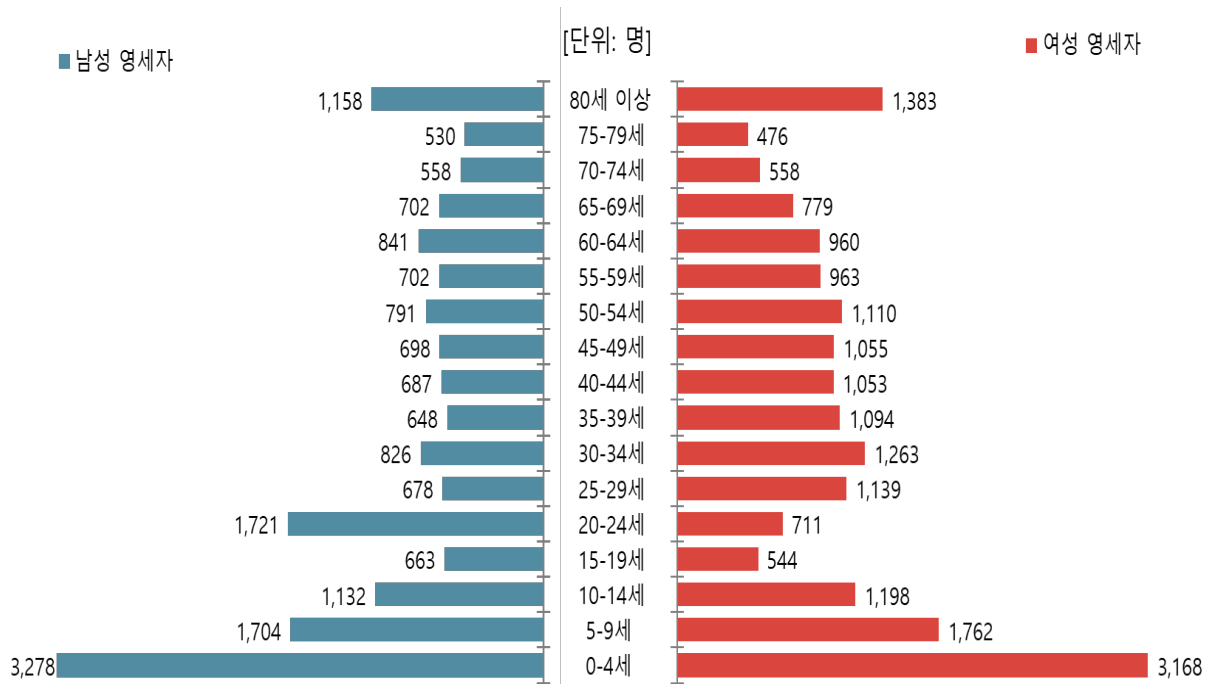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유아 세례(%)	0.1	-2.2	1.8	1.6	-5.1	-4.6	-8.5	-12.0	-6.0	-67.1	65.6
어른 세례(%)	-5.6	-1.7	-13.7	6.5	-7.5	-4.5	-14.9	-18.5	2.4	-63.1	11.0
임종 세례(%)	-0.9	-2.5	2.3	-3.3	-5.5	-0.2	-1.8	-7.3	-1.4	-41.0	1.3
전체(%)	-4.3	-1.8	-10.0	5.0	-6.9	-4.3	-12.9	-16.4	0.2	-62.6	20.7

(2) 연령별 영세자 수

- ▶ 2021년 영세자는 남성 47.4% 대 여성 52.6%로 나타남
- ▶ 매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던 20-24세가 올해도 감소
- ▶ 지난해에 이어 0-4세의 영세 비율이 1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전년 대비 70대와 20대 초반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증가를 보임

- 2021년 영세자 수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17,320명(47.4%), 여성이 19,220명(52.6%)으로 지난해보다 남성 비율이 2.5% 감소하였다.
- 14세 이하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영세자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15-19세에서는 남성 영세자가 9.8% 차이로 더 많게 나타났다. 또한 군종 교구 세례자를 포함하는 20-24세 남성 영세자의 비율은 70.8%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2020년 85%(남성) 대 15%(여성)를 나타냈던 것보다 격차가 줄어들었다. 25세 이후부터 50대까지는 여성 영세자의 비율(평균 60.4%)이 더 높게 나타나며, 60대와 70대에서는 남녀 비율 차이가 크지 않고, 8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10> 연령별 남녀 영세자 수



<표 25> 2021년 연령별 영세자 수 비교

구분	전체 영세자(명)	남성		여성	
		영세자 수(명)	비율(%)	영세자 수(명)	비율(%)
0-4 세	6,446	3,278	50.9	3,168	49.1
5-9 세	3,466	1,704	49.2	1,762	50.8
10-14 세	2,330	1,132	48.6	1,198	51.4
15-19 세	1,207	663	54.9	544	45.1
20-24 세	2,432	1,721	70.8	711	29.2
25-29 세	1,817	678	37.3	1,139	62.7
30-34 세	2,089	826	39.5	1,263	60.5
35-39 세	1,742	648	37.2	1,094	62.8
40-44 세	1,740	687	39.5	1,053	60.5
45-49 세	1,753	698	39.8	1,055	60.2
50-54 세	1,901	791	41.6	1,110	58.4
55-59 세	1,665	702	42.2	963	57.8
60-64 세	1,801	841	46.7	960	53.3
65-69 세	1,481	702	47.4	779	52.6
70-74 세	1,116	558	50.0	558	50.0
75-79 세	1,006	530	52.7	476	47.3
80 세 이상	2,541	1,158	45.6	1,383	54.4
연령 미상	7	3	42.9	4	57.1
합계	36,540	17,320	47.4	19,220	52.6

- 2021년 영세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0-4세 영세자 비율이 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9세가 9.5%, 80세 이상이 7.0%순으로 나타났다. 군종교구 세례의 영향으로 매년 높은 비율을 차지하던 20-24세가 2020년 10.2%에서 3.5%p 감소하여 올해는 6.7%로 낮게 나타났다.
-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도까지는 군종교구의 영향으로 20-24세 영세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20년부터는 0-4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6> 2011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령별 영세자 비율 비교

구분	총 영세자 구성비(%)				남성 영세자 구성비(%)				여성 영세자 구성비(%)			
	2011	2019	2020	2021	2011	2019	2020	2021	2011	2019	2020	2021
0-4 세	12.6	14.5	11.9	17.6	12.8	13.6	12.1	18.9	12.5	15.4	11.8	16.5
5-9 세	5.8	8.7	8.8	9.5	5.7	7.9	8.7	9.8	5.9	9.5	9.0	9.2
10-14 세	4.8	4.4	4.7	6.4	4.8	4.2	4.7	6.5	4.9	4.6	4.6	6.2

15-19 세	3.8	4.5	3.3	3.3	4.0	6.3	4.0	3.8	3.6	2.4	2.6	2.8
20-24 세	20.9	15.2	10.2	6.7	38.0	26.0	17.3	9.9	3.9	3.0	3.0	3.7
25-29 세	4.6	4.9	5.0	5.0	2.8	4.5	4.3	3.9	6.3	5.4	5.7	5.9
30-34 세	5.3	4.6	4.9	5.7	3.7	3.5	3.9	4.8	6.9	5.9	5.9	6.6
35-39 세	5.0	4.6	4.9	4.8	3.5	3.1	3.6	3.7	6.5	6.4	6.1	5.7
40-44 세	5.0	4.6	5.0	4.8	3.8	3.2	3.7	4.0	6.1	6.1	6.3	5.5
45-49 세	4.0	4.7	5.2	4.8	3.4	3.5	4.3	4.0	4.6	6.1	6.2	5.5
50-54 세	4.1	4.6	5.4	5.2	3.6	3.5	4.3	4.6	4.5	5.8	6.5	5.8
55-59 세	3.4	4.5	5.3	4.6	3.2	3.5	4.7	4.1	3.7	5.7	5.9	5.0
60-64 세	2.7	4.7	5.5	4.9	2.3	3.9	4.8	4.9	3.0	5.6	6.2	5.0
65-69 세	2.5	3.5	4.4	4.1	2.2	3.0	3.9	4.1	2.9	4.1	4.9	4.1
70-74 세	2.4	3.3	4.2	3.1	2.2	2.8	4.3	3.2	2.7	3.8	4.0	2.9
75-79 세	1.9	3.0	3.5	2.8	1.7	2.8	3.8	3.1	2.1	3.3	3.2	2.5
80 세 이상	2.9	5.7	7.7	7.0	2.3	4.7	7.4	6.7	3.6	6.9	8.0	7.2
합계	100				100				100			

- 전년 대비 영세자 증감률을 살펴보면 70대와 20대 초반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4세 78.2%, 10-14세 65.0%, 30-34세 40.5%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 전년 대비 남녀 증감률은 남성 14.7%, 여성 26.6%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영세자 증감률에서 남녀 비율이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나는 연령대는 20대 초반으로 나타났다. 20-24세에서 여성은 전년 대비 53.9% 증가, 남성은 34.2%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대비 증감률에서는 10-14세에서 -34.7%로 가장 적은 감소율을 나타냈으며, 20-24세에서 -80.3%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표 27> 2019년, 2020년 대비 2021년 영세자 증감률

구분	총 영세자 구성비(%)		남성 영세자 구성비(%)		여성 영세자 구성비(%)	
	2019년 대비 증감률	2020년 대비 증감률	2019년 대비 증감률	2020년 대비 증감률	2019년 대비 증감률	2020년 대비 증감률
0-4 세	-45.0	78.2	-44.3	79.4	-45.8	76.9
5-9 세	-50.6	29.3	-49.9	29.1	-51.2	29.6
10-14 세	-34.7	65.0	-37.9	58.1	-31.4	72.1
15-19 세	-66.9	21.2	-75.7	9.2	-41.1	39.8
20-24 세	-80.3	-21.0	-84.7	-34.2	-36.5	53.9
25-29 세	-54.1	19.3	-64.8	4.1	-43.9	30.6
30-34 세	-43.8	40.5	-44.8	40.7	-43.1	40.3
35-39 세	-53.6	18.4	-51.4	19.1	-54.9	18.0

40-44 세	-53.1	15.1	-50.4	23.3	-54.7	10.3
45-49 세	-54.1	10.8	-54.1	8.6	-54.1	12.4
50-54 세	-48.9	15.9	-47.9	20.9	-49.6	12.6
55-59 세	-54.8	3.2	-54.2	-1.8	-55.3	7.1
60-64 세	-52.4	7.7	-50.0	15.0	-54.3	1.9
65-69 세	-47.8	10.9	-45.1	18.8	-50.0	4.6
70-74 세	-58.1	-11.4	-54.6	-13.6	-61.1	-9.0
75-79 세	-58.9	-5.2	-55.6	-8.1	-62.0	-1.7
80 세 이상	-44.9	8.5	-42.5	3.3	-46.8	13.3
합계	-54.9	20.7	-59.9	14.7	-49.2	26.6

(3) 교구별 영세자 수

- ▶ 교구별 영세자 수는 군종교구를 제외하고 모든 교구에서 전년 대비 증가를 나타냄. 마산교구가 전년 대비 59.3% 증가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안동 57.6%, 제주 47.4% 증가 등의 순임(전체 20.7% 증가)
- ▶ 2019년(코로나19 발생 전) 대비 군종교구가 -86.0%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으며, 청주 -53.7%, 의정부 -52.9%의 감소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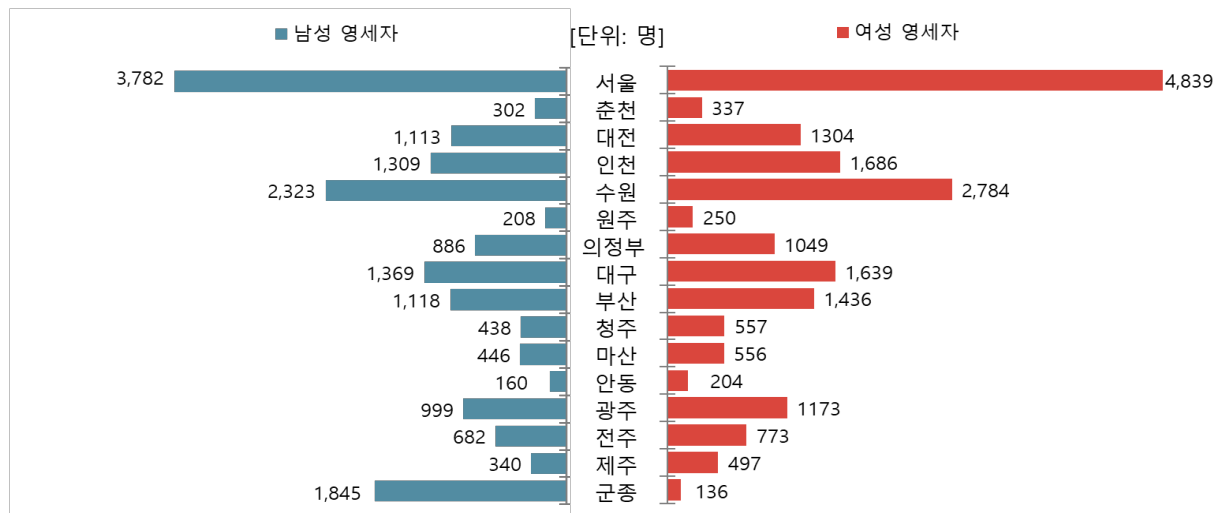
- 전년 대비 교구별 영세자 수를 비교하면, 2020년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던 마산교구에서 59.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안동 57.6%, 제주 47.4%의 증가율을 보였다. 유일하게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한 군종교구는 -34.4%로 감소율을 나타냈으며, 청주 2.8%, 춘천 7.8% 증가로 다른 교구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 코로나19 발생 전(2019년)과 비교하면, 군종교구가 -86.0%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이어 청주 -53.7%, 의정부 -52.9%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제주교구가 -25.5%로 나타나 코로나 발생 전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회복률(74.5%)을 나타냈다. 이어 안동 58.6%, 전주 56.9%, 광주 56.6%의 회복률을 나타냈다.
- 10년 전인 2011년 대비 영세자 수는 전체 -72.8% 감소율을 보였으며, 교구별로는 군종 -93.2%, 청주 -72.2%, 수원 -70.2%순으로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고, 제주 -38.0%, 안동 -55.3%로 낮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표 28> 2011년, 2019년, 2020년 대비 2021년 교구별 영세자 증감률

구분	총 영세자 수(명)				2021년 영세자 수 증감률(%)		
	2011	2019	2020	2021	2011년 대비	2019년 대비	2020년 대비
서울	28,099	16,925	6,742	8,621	-69.3	-49.1	27.9
춘천	1,916	1,273	593	639	-66.6	-49.8	7.8
대전	6,664	4,602	1,908	2,417	-63.7	-47.5	26.7
인천	9,484	5,742	2,371	2,995	-68.4	-47.8	26.3
수원	17,123	10,296	3,708	5,107	-70.2	-50.4	37.7
원주	1,385	889	404	458	-66.9	-48.5	13.4
의정부	6,084	4,107	1,645	1,935	-68.2	-52.9	17.6
대구	9,187	5,892	2,293	3,008	-67.3	-48.9	31.2
부산	7,021	4,933	2,284	2,554	-63.6	-48.2	11.8
청주	3,580	2,150	968	995	-72.2	-53.7	2.8
마산	2,794	1,943	629	1,002	-64.1	-48.4	59.3
안동	815	621	231	364	-55.3	-41.4	57.6
광주	6,144	3,836	1,775	2,172	-64.6	-43.4	22.4
전주	3,845	2,558	1,148	1,455	-62.2	-43.1	26.7
제주	1,351	1,123	568	837	-38.0	-25.5	47.4
군종	29,070	14,149	3,018	1,981	-93.2	-86.0	-34.4
합계	134,562	81,039	30,285	36,540	-72.8	-54.9	20.7

- 2021년 영세자는 군종교구를 제외한 모든 교구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춘천교구와 전주교구에서 상대적으로 남성 영세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제주 교구에서 상대적으로 여성 영세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11> 교구별 남녀 영세자 수



<표 29> 2021년 교구별 영세자 수 비교

구분	전체 영세자(명)	남		여	
		영세자 수(명)	비율(%)	영세자 수(명)	비율(%)
서울	8,621	3,782	43.9	4,839	56.1
춘천	639	302	47.3	337	52.7
대전	2,417	1,113	46.0	1,304	54.0
인천	2,995	1,309	43.7	1,686	56.3
수원	5,107	2,323	45.5	2,784	54.5
원주	458	208	45.4	250	54.6
의정부	1,935	886	45.8	1,049	54.2
대구	3,008	1,369	45.5	1,639	54.5
부산	2,554	1,118	43.8	1,436	56.2
청주	995	438	44.0	557	56.0
마산	1,002	446	44.5	556	55.5
안동	364	160	44.0	204	56.0
광주	2,172	999	46.0	1,173	54.0
전주	1,455	682	46.9	773	53.1
제주	837	340	40.6	497	59.4
군중	1,981	1,845	93.1	136	6.9
합계	36,540	17,320	47.4	19,220	52.6

- 2021년 예비신자 중 어른 세례를 받은 사람은 84.1%로 나타났다. 지난해 78.0%로 낮아졌으나 2021년 다시 예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군중(99.3%), 안동(92.7%), 의정부(91.8%), 마산(90.8%) 교구가 당해 예비신자 중 90% 이상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청주 73.8%, 광주 72.1%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0> 2011-2021년 연중 예비신자 총수 대비 어른 영세자 비율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서울	67.8	82.9	80.7	84.8	84.3	83.4	84.5	83.7	85.5	82.1	88.2
춘천	65.0	73.3	75.9	78.4	73.7	75.2	84.2	84.3	86.0	72.2	79.7
대전	60.8	80.4	77.7	77.9	77.7	74.0	92.0	90.7	92.1	78.4	81.7
인천	63.5	81.2	79.4	77.7	82.7	80.4	84.6	82.1	86.3	73.6	82.6
수원	65.3	73.8	70.4	74.0	74.3	71.4	74.5	80.4	82.3	70.5	79.9
원주	79.2	78.2	84.4	74.9	84.8	77.3	84.6	82.8	90.8	86.5	89.0
의정부	65.8	82.4	83.1	83.8	84.7	86.1	92.9	90.6	93.9	84.2	91.8
대구	67.2	82.8	81.8	79.3	81.8	78.7	80.8	82.6	89.0	76.2	81.5
부산	69.4	89.0	85.9	83.8	83.4	87.5	84.8	85.9	83.0	71.3	78.4

청주	67.9	66.7	71.2	67.9	69.0	73.1	67.8	67.7	70.1	71.7	73.8
마산	61.1	79.0	76.3	76.6	77.8	74.9	81.9	88.4	91.6	77.1	90.8
안동	63.9	70.5	64.6	72.3	85.4	85.0	76.6	91.4	86.5	81.7	92.7
광주	62.5	69.0	62.9	67.4	58.7	65.0	66.9	72.3	72.5	69.7	72.1
전주	76.9	74.0	65.2	70.6	70.2	77.1	76.0	77.2	79.2	70.0	82.5
제주	55.4	70.9	69.1	60.0	77.9	70.0	61.1	71.0	73.2	58.1	86.9
군종	94.6	92.3	65.2	67.2	99.4	99.7	98.7	99.7	99.7	99.1	99.3
합계	72.2	82.5	73.3	74.7	82.8	83.5	84.8	85.4	87.7	78.0	84.1

2) 주일 미사, 판공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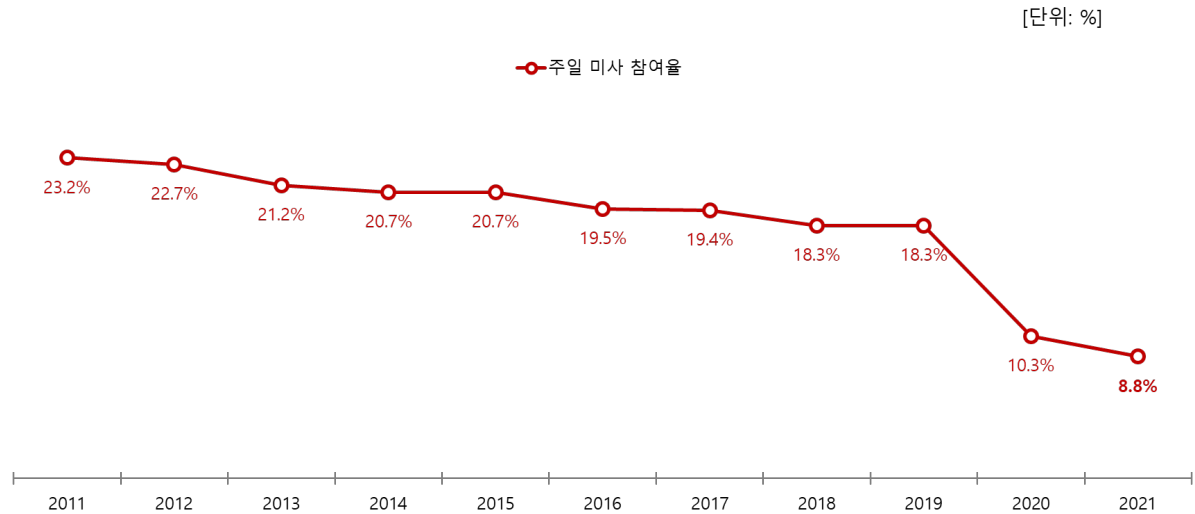
- ▶ 주일 미사 참여자는 521,859명으로, 전체 신자 대비 주일 미사 참여율은 8.8%로 나타남(전년 대비 -1.5%p)
- ▶ 부활 판공성사 18.9% 참여(전년 대비 18.2% 증가), 성탄 판공성사 18.4%(전년 대비 78.0% 증가) 참여

- 지난해 발표된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0」에서는 코로나19로 주일 미사가 중단되는 상황 속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자 수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일 미사 참여자 수를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추세 파악과 연구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에서 교구에 별도로 요청하여 주일 미사 참여자 수를 집계하여 분석하였다(「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0 분석 보고서」). 이렇게 집계한 2020년 데이터에는 의정부교구가 제외(교구 미제출)되었으며, 교구별 집계에 누락된 본당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정밀한 데이터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전제로 아래의 분석을 참고할 수 있다.

한편, 주교회의 2021년 추계 정기총회에서는 차후 역사 자료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을 감안하여 2021년 통계부터 주일미사 참여자 수를 다시 집계하기로 결정하였다.

- 2021년 주일 미사 참여자는 전년 대비 9.7% 감소한 521,859명으로, 전체 신자 수 대비 주일 미사 참여율은 8.8%(전년 대비 -1.5%p)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첫해보다 미사 참여율이 더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12> 2011-2021년 주일 미사 참여율 추이



<표 31> 2011-2021년 주일 미사 참여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참여자 수(명)	1,231,240	1,219,307	1,156,591	1,148,736	1,171,751	1,121,020
참여율(%)	23.2	22.7	21.2	20.7	20.7	19.5
증감률(%)	-13.2	-1.0	-5.1	-0.7	2.0	-4.3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참여자 수(명)	1,130,599	1,075,089	1,080,687	578,133	521,859
참여율(%)	19.4	18.3	18.3	10.3*	8.8
증감률(%)	0.9	-4.9	0.5	-46.5	-9.7

* 의정부교구 제외

- 전년 대비 교구별 주일 미사 참여자 수는 서울대교구에서 감소율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원 -9.3%, 부산 -7.7%, 제주 -5.4%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한 교구는 원주 19.1%, 안동 10.3%, 청주 6.3% 등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서울이 35.2% 수준으로 회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수원(40.4%), 의정부(40.6%), 인천(43.3%), 군중(44.4%) 교구가 40%선으로 낮은 회복률을 나타냈다. 이들 교구는 모두(군중 교구를 제외) 코로나19 유행이 가장 심각했던 수도권 지역의 교구로 나타났다. 반면, 안동이 64.9% 수준으로 가장 많이 회복하였으며, 대구·청주(63.6%), 광주(62.5%), 전주(62.1%), 춘천(62.0%) 교구가 60% 이상 회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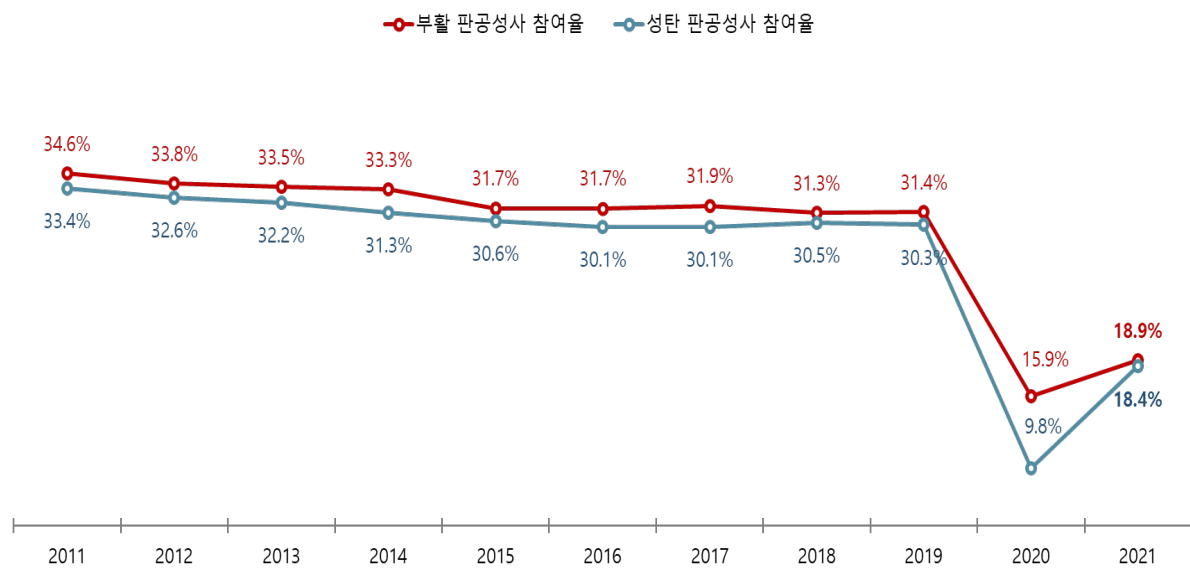
<표 32> 교구별 주일 미사 참여자

구분	주일 미사 참여자 수(명)			2021년 주일 미사 참여자 증감률(%)	
	2019	2020	2021	2019년 대비	2020년 대비
서울	258,329	163,481	90,959	-64.8	-44.4
춘천	20,996	12,661	13,028	-38.0	2.9
대전	73,100	42,671	42,698	-41.6	0.1
인천	102,158	46,016	44,200	-56.7	-3.9
수원	185,981	82,760	75,095	-59.6	-9.3
원주	14,594	7,172	8,540	-41.5	19.1
의정부	62,585	-	25,384	-59.4	-
대구	93,831	58,004	59,680	-36.4	2.9
부산	75,486	47,775	44,085	-41.6	-7.7
청주	34,443	20,611	21,917	-36.4	6.3
마산	27,769	17,075	16,532	-40.5	-3.2
안동	9,718	5,721	6,309	-35.1	10.3
광주	58,951	37,487	36,816	-37.5	-1.8
전주	38,390	23,484	23,834	-37.9	1.5
제주	14,280	8,790	8,313	-41.8	-5.4
군종	10,076	4,425	4,469	-55.6	1.0
합계	1,080,687	578,133	521,859	-51.7	-9.7

- 부활 판공성사 참여자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557,872명(대상자의 18.9%가 참여)이 참여하였으며, 성탄 판공성사는 78%가 증가한 554,845명(대상자의 18.4%가 참여)이 참여하였다.
- 전년보다 판공성사 참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전 판공성사 참여자의 약 60%(부활 판공 56.1%, 성탄 판공 57.2%)에 못 미치는 수치로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그림 13> 2011-2021년 부활·성탄 판공성사 참여율 추이

[단위: %]



<표 33> 2011-2021년 부활·성탄 판공성사 참여 추이

구분	부활 판공성사			성탄 판공성사		
	참여자(명)	비율(%)	증감률(%)	참여자(명)	비율(%)	증감률(%)
2011	1,099,463	34.6	-0.6	1,079,526	33.4	-0.7
2012	1,097,024	33.8	-0.2	1,074,425	32.6	-0.5
2013	1,081,885	33.5	-1.4	1,055,634	32.2	-1.7
2014	1,070,928	33.3	-1.0	1,016,632	31.3	-3.7
2015	1,028,849	31.7	-3.9	1,014,208	30.6	-0.2
2016	1,025,559	31.7	-0.3	983,934	30.1	-3.0
2017	1,029,831	31.9	0.4	979,174	30.1	-0.5
2018	991,648	31.3	-3.7	974,900	30.5	-0.4
2019	994,022	31.4	0.2	969,180	30.3	-0.6
2020	471,884	15.9	-52.5	311,627	9.8	-67.8
2021	557,872	18.9	18.2	554,845	18.4	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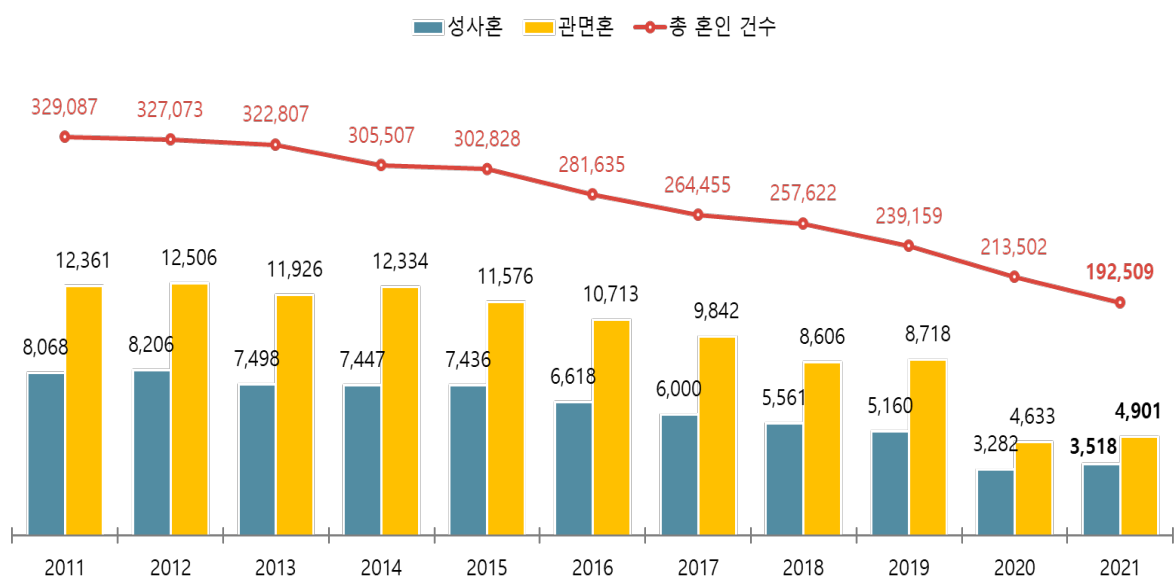
3) 혼인성사

- ▶ 교회 혼인 건수는 총 8,419건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
- ▶ 총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9.8% 감소
- ▶ 총 혼인 건수 대비 교회혼의 비율은 2011년 6.2%에서 2020년에는 3.7%까지 감소. 2021년에는 4.4%로 소폭 증가

- 2021년 한국 교회의 혼인 건수는 총 8,419건(성사혼 3,518건, 관면혼 4,901건)으로 지난해보다 6.4% 증가하였다. 교회 혼인에서 성사혼과 관면혼의 비율은 41.8% 대 58.2%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성사혼의 비율은 37-39% 수준이었으나 2020년(41.5%)부터 성사혼의 비율이 40%대로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이후 교회 혼인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3년에 처음으로 2만 건 아래로 줄어들었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1만 건 아래까지 떨어졌다.
- 총 혼인 건수 역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은 192,509건으로 전년 대비 9.8%가 감소하였다. 총 혼인 건수 대비 교회혼의 비율은 2011년 이후 6%대에서 2018년 5.5%, 2019년 5.8%로 5%대로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3.7%, 2021년 4.4%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14> 2011-2021년 혼인 건수 추이

[단위: 명]



<표 34> 2011-2021년 혼인 건수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성사혼(건)	8,068	8,206	7,498	7,447	7,436	6,618
관면혼(건)	12,361	12,506	11,926	12,334	11,576	10,713
합계(건)	20,429	20,712	19,424	19,781	19,012	17,331
증감률(%)	2.1	1.4	-6.2	1.8	-3.9	-8.8
국내 총 혼인 건수(건)	329,087	327,073	322,807	305,507	302,828	281,635
증감률(%)	0.9	-0.6	-1.3	-5.4	-0.9	-7.0
교회혼 비율(%)	6.2	6.3	6.0	6.5	6.3	6.2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성사혼(건)	6,000	5,561	5,160	3,282	3,518
관면혼(건)	9,842	8,606	8,718	4,633	4,901
합계(건)	15,842	14,167	13,878	7,915	8,419
증감률(%)	-8.6	-10.6	-2.0	-43.0	6.4
국내 총 혼인 건수(건)	264,455	257,622	239,159	213,502	192,509
증감률(%)	-6.1	-2.6	-7.2	-10.7	-9.8
교회혼 비율(%)	6.0	5.5	5.8	3.7	4.4

4) 견진, 병자, 영성체, 고해 성사

- ▶ 전년 대비 성사 활동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도에 비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임
- ▶ 첫영성체를 한 신자는 전년 대비 311.7% 증가하여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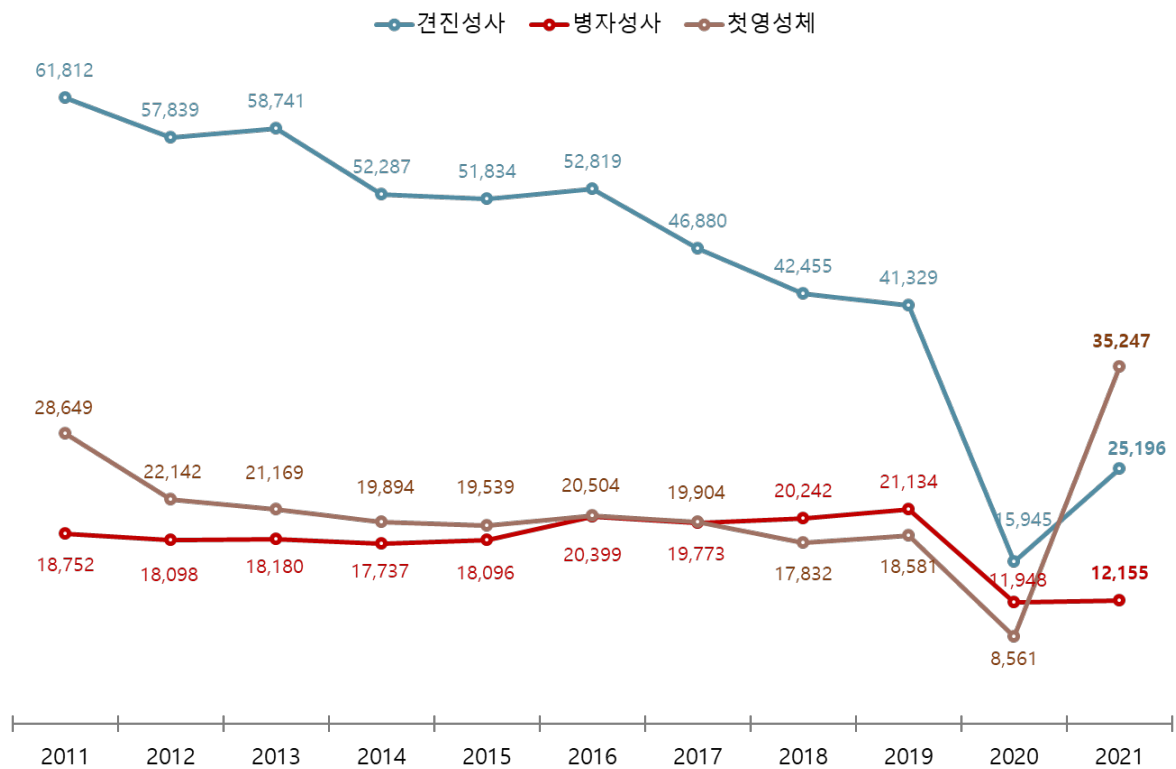
- 2021년은 전년 대비 성사 활동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도와 비교하여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견진성사는 전년 대비 58.0% 증가하였고, 병자성사 1.7% 증가, 영성체 14.9% 증가, 고해성사(판공성사 포함)는 16.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렇지만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견진성사 61.0%, 병자성사 57.5%, 영성체 49.1%, 고해성사 52.7%의 회복률을 보이는 데 그쳤다.

- 반면, 2021년 첫영성체는 35,247명으로 전년 대비 311.7%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2020년 첫영성체를 미루었던 어린이들까지 모두 한꺼번에 첫영성체를 받은 영향으로 볼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 첫영성체 평균은 21,904명으로 나타나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오히려 더 많은(17.9% 증가) 첫영성체가 이루어졌다.

<그림 15> 2011-2021년 견진성사, 병자성사, 첫영성체 참여 추이

[단위: %]



<표 35> 2011-2021년 성사별 참여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견진성사(명)	61,812	57,839	58,741	52,287	51,834	52,819
증감률(%)	-5.4	-6.4	1.6	-11.0	-0.9	1.9
병자성사(명)	18,752	18,098	18,180	17,737	18,096	20,399
증감률(%)	5.8	-3.5	0.5	-2.4	2.0	12.7
첫영성체(명)	28,649	22,142	21,169	19,894	19,539	20,504
증감률(%)	16.1	-22.7	-4.4	-6.0	-1.8	4.9
영성체(명)	96,377,265	90,344,629	93,291,355	93,300,043	90,432,615	90,764,224
증감률(%)	14.5	-6.3	3.3	0.0	-3.1	0.4

고해성사(명)	5,133,665	4,894,960	4,665,194	4,555,580	4,283,662	4,483,072
증감률(%)	-2.5	-4.6	-4.7	-2.3	-6.0	4.7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건진성사(명)	46,880	42,455	41,329	15,945	25,196
증감률(%)	-11.2	-9.4	-2.7	-61.4	58.0
병자성사(명)	19,773	20,242	21,134	11,948	12,155
증감률(%)	-3.1	2.4	4.4	-43.5	1.7
첫영성체(명)	19,904	17,832	18,581	8,561	35,247
증감률(%)	-2.9	-10.4	4.2	-53.9	311.7
영성체(명)	88,185,663	92,613,566	88,116,793	37,643,389	43,258,655
증감률(%)	-2.8	5.0	-4.9	-57.3	14.9
고해성사(명)	4,462,566	3,789,949	3,804,796	1,718,523	2,005,431
증감률(%)	-0.5	-15.1	0.4	-54.8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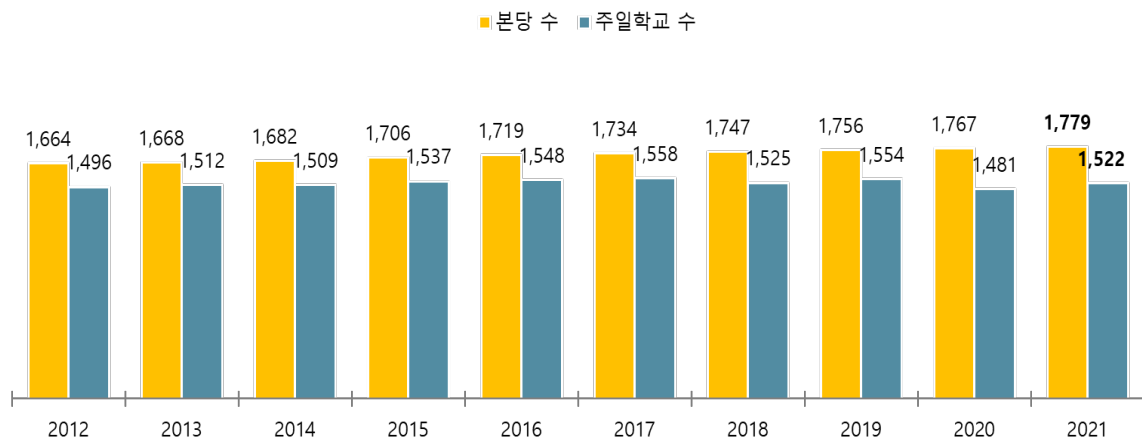
VI. 주일학교

- ▶ 전국 본당 중 85.6%가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8%p 증가함
- ▶ 전년 대비 주일학교 학생 수 증감률은 초등부 -15.8%, 중등부 -8.6%, 고등부 1.8%로 나타남
- ▶ 2019년 대비 증감률은 초등부 -36.2%, 중등부 -25.4%, 고등부 -11.3%로, 초등부의 감소폭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국 1,779개 본당 가운데 85.6%인 1,522개 본당에 주일학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일학교가 있는 본당은 매년 87-90% 정도로 나타났으나, 2020년 83.8%로 떨어졌다가 2021년은 전년 대비 1.8%p 증가하였다.

<그림 16> 2012-2021년 본당 및 주일학교 수 추이

[단위: 명]



<표 36> 2012-2021년 주일학교 수 추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본당 수(개)	1,664	1,668	1,682	1,706	1,719	1,734	1,747	1,756	1,767	1,779
주일학교 수(개)	1,496	1,512	1,509	1,537	1,548	1,558	1,525	1,554	1,481	1,522
비율(%)	89.9	90.6	89.7	90.1	90.1	89.9	87.3	88.5	83.8	85.6
주일학교 증감률(%)	-	1.1	-0.2	1.9	0.7	0.6	-2.1	1.9	-4.7	2.8

- 2012년부터 주일학교가 있는 본당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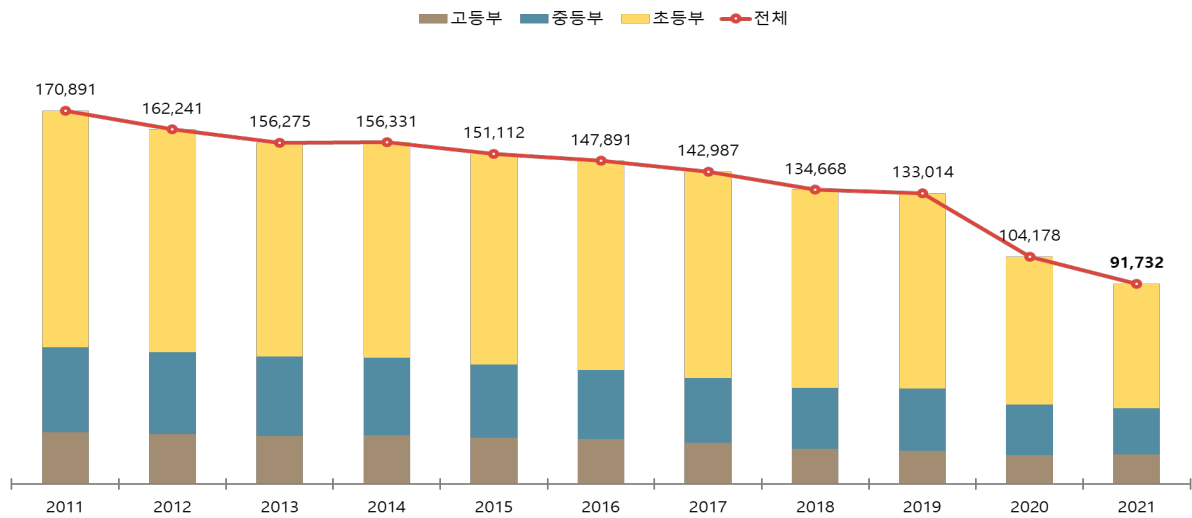
- 2021년 주일학교의 학생 수는 초등부 57,025명(남 27,349명, 여 29,676명)이며, 중등부

21,117명(남 10,667명, 여 10,450명), 고등부 13,590명(남 6,782명, 여 6,808명)이다.

- 2021년 주일학교 학생 수는 전년 대비 초등부 15.8%(10,709명), 중등부는 8.6%(1,983명) 감소하였으며, 고등부는 1.8%(246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주일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하여 초등부 36.2%, 중등부 25.4%, 고등부 11.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2011-2021년 주일학교 학생 수 추이

[단위: 명]



<표 37> 2011-2021년 주일학교 학생 수 추이

구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생 수(명)	증감률(%)	학생 수(명)	증감률(%)	학생 수(명)	증감률(%)
2011	108,366	-8.8	38,769	-6.9	23,756	-6.6
2012	101,792	-6.1	37,538	-3.2	22,911	-3.6
2013	97,946	-3.8	36,190	-3.6	22,139	-3.4
2014	98,376	0.4	35,527	-1.8	22,428	1.3
2015	96,410	-2.0	33,366	-6.1	21,336	-4.9
2016	95,636	-0.8	31,464	-5.7	20,791	-2.6
2017	94,509	-1.2	29,606	-5.9	18,872	-9.2
2018	90,589	-4.1	27,910	-5.7	16,169	-14.3
2019	89,377	-1.3	28,311	1.4	15,326	-5.2
2020	67,734	-24.2	23,100	-18.4	13,344	-12.9
2021	57,025	-15.8	21,117	-8.6	13,590	1.8
(2019 대비)		(-36.2)		(-25.4)		(-11.3)

- 2021년 주일학교 대상자 대비 학생 수는, 초등부 주일학교 대상자의 41.5%(전년 대비 -5.3%p)가, 중등부에서는 24.4%(전년 대비 -2.3%p)가, 고등부에서는 15.0%(전년 대비 1.0%p)가 주일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주일학교 대상자 대비 초등부 학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2019년에 58.5%였던 데에서 올해 41.5%로 17.0%p가 감소하였다.
- 주일학교 대상자 대비 학생 수를 교구별로 살펴보면, 군종교구를 제외하고 초등부는 안동 52.2%, 대전 48.8%, 의정부 47.6%순으로, 중등부는 안동 36.2%, 대전 34.8%, 제주 32.5%순으로, 고등부는 안동 27.4%, 대전 24.2%, 광주 22.0%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교구에서 주일학교 대상자 대비 학생 수가 평균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의정부 교구 초등부 제외).

<표 38> 교구별 주일학교 대상자 대비 학생 수 비율

구분	초등부 비율(%)			중등부 비율(%)			고등부 비율(%)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서울	59.8	51.2	42.5	28.1	26.4	23.4	13.4	14.8	14.3
춘천	48.7	46.3	35.4	36.5	34.5	27.0	19.4	19.9	19.9
대전	65.1	73.8	48.8	62.3	36.6	34.8	28.2	24.8	24.2
인천	55.1	44.7	37.6	30.6	27.5	25.0	14.8	15.4	14.1
수원	57.1	34.2	34.9	26.7	18.2	19.5	11.4	7.5	11.5
원주	50.7	42.6	39.3	31.5	34.1	30.4	18.7	18.7	18.3
의정부	57.7	44.7	47.6	30.2	25.7	25.1	13.5	13.4	14.9
대구	64.3	46.3	43.2	36.4	27.2	25.4	15.7	12.4	13.0
부산	61.0	49.3	46.6	33.6	29.6	31.1	14.8	13.8	16.2
청주	62.9	42.4	37.2	41.9	31.1	27.5	22.8	14.7	15.1
마산	57.1	46.5	46.5	31.6	32.4	27.3	17.7	19.0	17.2
안동	67.2	72.0	52.2	42.7	45.6	36.2	26.7	30.4	27.4
광주	57.0	53.9	47.1	38.9	35.4	14.2	19.5	21.1	22.0
전주	50.2	36.3	34.5	32.0	24.7	24.0	15.5	11.6	12.2
제주	55.3	46.9	43.9	35.4	30.8	32.5	12.4	10.4	12.0
군종	38.1	74.6	89.1	18.3	27.3	37.7	7.5	6.1	18.1
합계	58.5	46.8	41.5	32.9	26.7	24.4	15.3	14.0	15.0

VII. 해외 선교

- ▶ 해외 파견 선교사 수는 1,115명으로 신부 237명(교구 신부 121명), 수사 57명, 수녀 815명, 평신도 6명, 수련자 60명임
- ▶ 2011년 대비 해외 파견 선교사 수 24.0% 증가(신부 29.5%, 수사 42.5%, 수녀 23.1% 증가)
- ▶ 올해 가장 많은 한국인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는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잠비아순으로 나타남

- 2021년에 선교사가 파견된 해외 선교국은 총 80개국으로 국가별 변동이 있는 가운데 합계는 전년과 같은 숫자를 유지하였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21개국, 아프리카 20개국, 남아메리카 17개국, 유럽 14개국, 오세아니아 5개국, 북아메리카 3개국(멕시코를 남아메리카에서 북아메리카로 조정함)에 선교사가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국가별 변동을 살펴보면, 가나(아프리카), 르완다(아프리카), 요르단(아시아), 레바논(아시아)이 제외되고, 라이베리아, 이집트(아프리카), 베네수엘라(남아메리카), 파키스탄(아시아)에 새롭게 선교사가 파견되었다.
- 2021년 해외 파견 선교사는 전년 대비 22명 감소한 1,115명(수련자 60명은 합계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신부 237명(-8명), 수사 57명, 수녀 815명(-20명), 평신도 6명(+6명), 수련자 60명(-8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통계에 드러나지 않았던 평신도 선교사가 올해 처음으로 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모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로 확인되었다.

<표 39> 2011-2021년 해외 선교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선교국(개국)	77	78	78	76	74	79	82	81	79	80	80
남아메리카	-	14	13	14	14	15	17	18	17	17	17
북아메리카	-	2	2	2	2	2	2	2	2	2	3
아시아	-	22	24	24	21	22	22	22	21	22	21
아프리카	-	22	20	18	19	20	19	19	19	20	20
오세아니아	-	3	4	4	5	6	5	5	5	5	5
유럽	-	15	15	14	13	14	17	15	15	14	14
선교사(명)	899	967	979	978	952	1,045	1,063	1,083	1,112	1,137	1,115

신원별	신부 (교구 신부)	183 (79)	207 (94)	201 (82)	216 (90)	225 (99)	250 (107)	247 (111)	246 (113)	251 (123)	245 (121)	237 (121)
	수사	40	72	80	44	47	55	65	65	57	57	57
	수녀	662	688	698	718	680	740	751	772	804	835	815
	평신도	14	0	0	0	0	0	0	0	0	0	6
	수련자*		29	15	22	27	42	38	29	52	68	60
	남아메리카	140	155	156	180	184	202	206	219	219	206	165
	북아메리카	33	44	46	47	48	49	37	42	46	67	82
	아시아	442	435	438	459	452	483	533	523	558	571	564
	아프리카	113	130	116	120	125	141	113	120	119	118	120
	오세아니아	31	30	29	31	32	33	36	42	40	42	37
	유럽	140	173	194	141	111	137	138	137	130	133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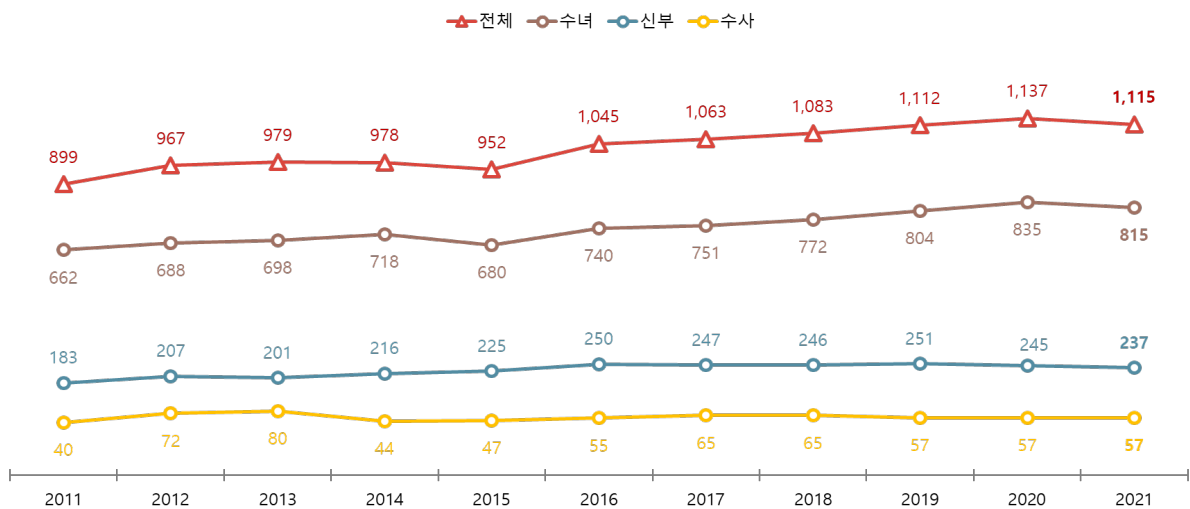
- 2011년도에는 수련자를 평신도로 표시함(2012년부터 평신도 수와 수련자 수를 구분하였음).

- 합계 항목에는 수련자 수가 제외됨.

- 2011년 대비 전체 선교사 수는 24% 증가율을 보였으며, 신원별로는 신부 29.5%, 수사 42.5%, 수녀 23.1%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이 가운데 교구 신부가 2011년 79명에서 올해 121명으로 나타나 53.2%의 증가율을 보였다.
- 해외 파견 선교사 수는 코로나19에 가장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가 한창인 2020년 오히려 선교사 수가 증가하였으며, 올해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2011-2021년 선교사 수 추이

[단위: 명]



<표 40> 2011-2021년 신원별 전체 인원 대비 선교사 파견 비율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신부(%)	4.0	4.4	4.1	4.4	4.4	4.8	4.6	4.6	4.6	4.4	4.2
교구 신부(%)	2.1	2.4	2.1	2.2	2.4	2.5	2.5	2.5	2.7	2.6	2.6
수사(%)	5.6	9.8	11.5	6.2	6.9	8.3	9.8	9.8	8.8	8.5	8.5
수녀(%)	6.5	6.8	6.9	7.1	6.7	7.3	7.4	7.6	7.9	8.2	8.0
평신도(%)	*	-	-	-	-	-	-	-	-	-	0.5
수련자(%)		6.0	3.3	5.0	6.9	10.7	9.6	7.7	14.8	20.3	22.7

- 2011년도에는 수련자를 평신도로 표시함(2012년부터 평신도 수와 수련자 수를 구분하였음).

- 합계 항목에는 수련자 수가 제외됨.

- 가장 많은 한국인 선교사가 활동하는 국가는 베트남으로 114명이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필리핀 112명, 잠비아 60명, 중국 52명, 이탈리아 50명, 일본·프랑스 4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한국 교회 파견 선교사가 증가한 국가는 베트남(+13명), 중국(홍콩)(+8명), 잠비아·프랑스(+7명)순으로 나타났으며, 감소한 국가는 미국(-17명), 중국(-12명), 필리핀(-8명)순으로 드러났다. 특히, 3위였던 미국, 4위였던 중국의 선교사 수가 감소하면서, 잠비아가 올해 세 번째로 많은 한국인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는 국가로 나타났다.

<표 41> 2020년, 2021년 한국인 선교사 파견 국가 순위

순위	2020		2021	
	국가명	선교사 수	국가명	선교사 수
1	필리핀	120	베트남	114
2	베트남	101	필리핀	112
3	중국	64	잠비아	60
4	미국	58	중국	52
5	잠비아	53	이탈리아	50
6	이탈리아	51	일본	47
7	인도네시아	46	프랑스	47
8	일본	46	인도네시아	42
9	프랑스	40	미국	41
10	멕시코	34	캄보디아	38
11	볼리비아	34	볼리비아	37
12	페루	34	페루	37
13	캄보디아	34	멕시코	35
14	미얀마	33	대만	31
15	대만	31	미얀마	30

VIII. 신앙 교육

- ▶ 혼인 강좌 이수자는 전년 대비 19.5% 증가
- ▶ 2019년 대비 혼인 강좌(59.3%)가 가장 높은 회복률을 보임. 성령 채신 운동(3.3%), 피정(9.2%)이 가장 낮은 회복률을 보임

- 2015년부터 혼인 강좌 이수자가 계속해서 줄고 있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53.0%의 감소율을 나타냈던 반면, 올해는 전년 대비 19.5%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대비하면 59.3%의 회복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 42> 2011-2021년 혼인성사와 혼인 강좌 증감률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교회혼(건)	20,429	20,712	19,424	19,781	19,012	17,331	15,842	14,167	13,878	7,915	8,491
증감률(%)	2.1	1.4	-6.2	1.8	-3.9	-8.8	-8.6	-10.6	-2.0	-43.0	7.3
혼인강좌(명)	24,286	25,658	23,625	24,763	23,759	21,993	18,760	14,632	12,954	6,084	7,268
증감률(%)	3.4	5.6	-7.9	4.8	-4.1	-7.4	-14.7	-22.0	-11.5	-53.0	19.5

- 신앙 교육 이수자(참여자) 수는 꾸르실료와 M.E.를 제외하고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신앙 강좌 이수자가 전년 대비 122.4%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대폭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의 24.4% 수준에 그치는 현실이다. 전년 대비 성서 사도직이 48.6%, 성령채신 운동 43.1%, 피정이 30.9% 증가하였다. 한편, M.E.와 꾸르실료는 전년 대비 각각 -49.2%, -46.7%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M.E.는 비대면 주말을 해오다가 2021년 가을부터 다시 대면 주말을 진행하기 시작했으며, 꾸르실료도 연수를 중단해 왔다.
- 2019년 대비 가장 높은 회복률을 보인 신앙 교육은 혼인 강좌이며, 가장 낮은 회복률을 보인 신앙 교육은 성령 채신 운동(3.3%), 피정(9.2%)으로 나타났다.

<표 43> 2019년, 2020년, 2021년 신앙 교육 참여자 수와 증감률

구분	참여자 수(명)			2021년 증감률(%)	
	2019	2020	2021	2019년 대비	2020년 대비
꾸르실료	5,798	2,218	1,183	-79.6	-46.7
성령채신운동	9,563	218	312	-96.7	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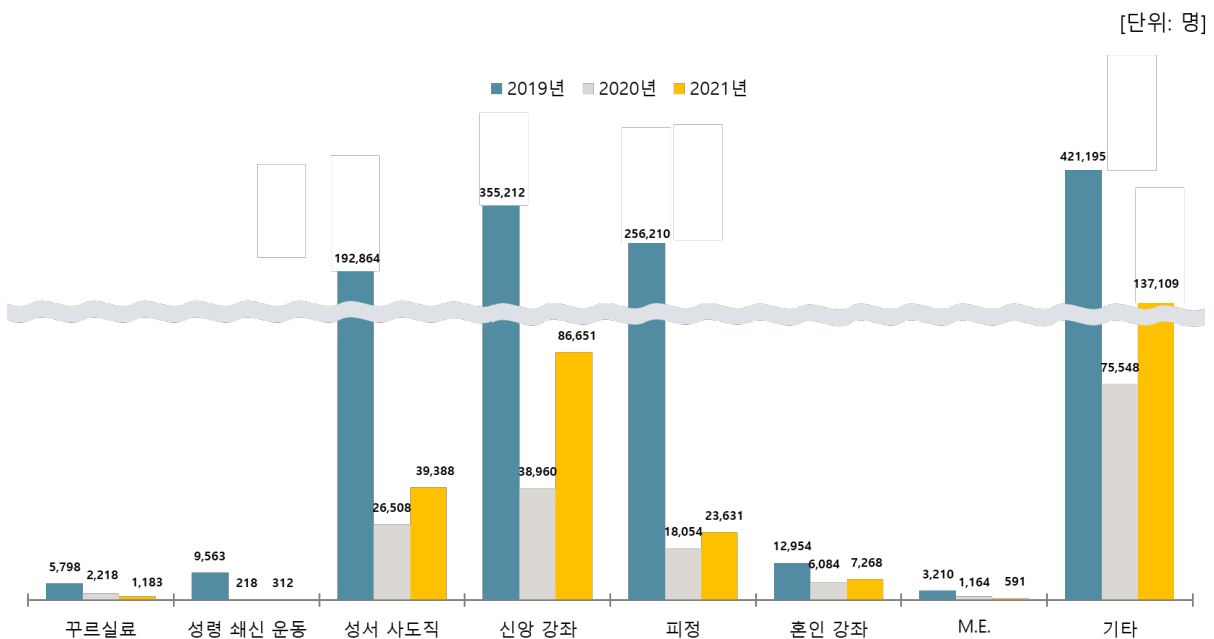
성서사도직	192,864	26,508	39,388	-79.6	48.6
신앙 강좌	355,212	38,960	86,651	-75.6	122.4
피정	256,210	18,054	23,631	-90.8	30.9
혼인강좌	12,954	6,084	7,688	-40.7	26.4
M.E.	3,210	1,164	591	-81.6	-49.2
기타*	421,195	75,548	137,109	-67.4	81.5

* 기타는 교회 기관이 주최한 강연회, 연수회, 세미나, 연구발표회, 심포지엄, 특강 등 당일 교육 참여자 총수를 뜻한다.

<표 44> 2011-2021년 신앙 교육 참여자 수와 증감률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꾸르실료	-5.1	95.0	-52.7	-6.6	-6.3	16.2	-23.1	18.5	-6.5	-61.7	-46.7
성령쇄신운동	-54.4	-14.0	-16.5	-17.9	13.1	-31.5	39.4	-5.9	-24.1	-97.7	43.1
성서사도직	-23.8	19.8	2.4	34.3	-16.7	-10.0	-6.0	-6.7	31.2	-86.3	48.6
신앙강좌	-16.7	-11.0	6.8	-5.9	-12.3	12.4	-15.5	-2.4	9.8	-89.0	122.4
피정	-12.6	2.6	-3.9	-11.2	3.8	-4.0	-2.9	2.1	-3.9	-93.0	30.9
혼인강좌	3.4	5.6	-7.9	4.8	-4.1	-7.4	-14.7	-22.0	-11.5	-53.0	19.5
M.E.	-44.3	-2.3	-12.7	-7.3	-3.0	-2.8	-5.2	1.7	-7.3	-63.7	-49.2
기타	5.2	-1.0	9.9	-6.9	2.8	-2.0	4.3	-9.1	-26.3	-82.1	81.5

<그림 19> 2019년, 2020년, 2021년 신앙 교육 참여자 수



IX. 사회 사업

- ▶ 사회 사업의 수는 전년 대비 총 63개 감소
- ▶ 의료 복지 12개 증가, 장애인 복지 4개, 상담 분야 2개 증가
- ▶ 아동·청소년 복지 34개, 노인 복지 13개, 기타 11개, 노숙인 복지 9개, 교정 복지 6개 감소

- 2021년 교회 사회 사업은 전년 대비 총 63개 감소하였으며, 이 가운데 의료 복지에서 12개 증가, 장애인 복지 4개 증가, 상담 분야 2개 증가하였고, 아동·청소년 복지에서 34개 감소, 노인 복지 13개 감소, 노숙인 복지 9개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정 복지가 10개까지 증가하여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6개가 감소하여 4개로 집계되었다.
- 지난 10년간, 장애인 복지는 10년 전에 비해 80개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의료 복지는 2017-2018년 45개로 늘었다가 올해 38개로 집계되었다. 아동·청소년 복지가 71개 감소로 가장 큰 감소를 나타냈으며, 노숙인 복지도 2015-2016년 62개로 늘었다가 올해 40개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또한 기타 분야에서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2021년 107개로 나타났다. 기타 분야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34개, 건강 가정 지원 센터 13개, 이주민 쉼터 11개, 사회 봉사 단체 및 후원회 8개, 문화 봉사 센터 1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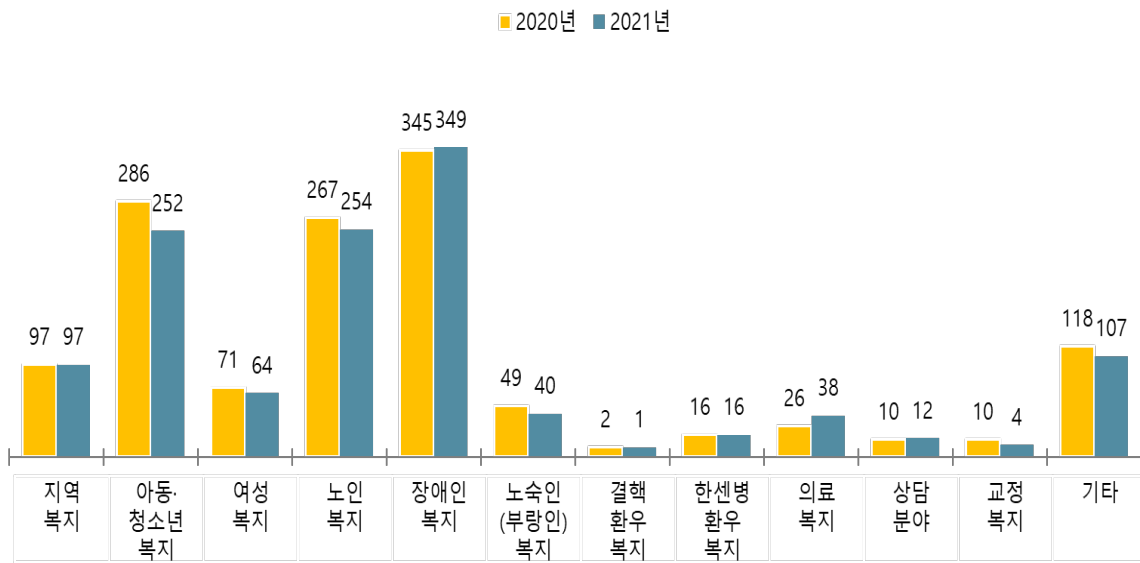
<표 45> 2011-2021년 사회 사업 수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역 복지	111	111	114	119	109	115	110	109	107	97	97
아동·청소년 복지	323	335	355	369	364	348	335	337	315	286	252
여성 복지	73	63	69	76	76	69	72	74	77	71	64
노인 복지	260	267	267	272	296	287	284	280	273	267	254
장애인 복지	269	269	298	316	337	340	346	337	341	345	349
노숙인(부랑인) 복지	57	57	53	47	62	62	53	52	50	49	40
결핵 환우 복지	4	4	4	4	3	3	2	2	2	2	1
한센병 환우 복지	14	14	16	16	16	16	11	14	17	16	16

의료 복지	32	36	33	38	36	38	43	45	45	26	38
상담 분야	18	17	19	16	18	18	13	12	12	10	12
교정 복지	6	7	9	7	5	8	8	7	8	10	4
기타	79	95	90	90	98	106	106	97	104	118	107

<그림 20> 2020년, 2021년 사회 사업 수

[단위: 명]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1」을 통해 본
사목적 시사점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1」을 통해 본 사목적 시사점

1. 2021년 한국 사회 환경, 포스트 코로나와 시노달리타스

2021년 한국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 이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람들의 피로감과 고립감이 증대되고,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과 수입에서 사회 양극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¹⁾ 특히,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은 가난한 취약 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다.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높으며, 청년과 여성 집단의 실업률이 높은 가운데 양육 부담을 지고 있는 기혼 여성의 취업률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청년 가구와 가난한 가정들의 주거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등교와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기초 학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중고 등학생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것은 주로 대도시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덜 발전한 읍면 단위에서 더 심각해지고 있다.²⁾

이에 따라 한국 사회 내 집단과 계층 간 갈등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우려도 깊어지고,³⁾ 청년과 여성 그리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우울증이 확대하거나 심화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⁴⁾ 이와 함께 지난 3월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혐오와 배제를 전면화하는 선거 전략을 통해 향후 한국 사회의 여정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른바 정치권이 세대, 남녀, 계층, 지역, 내국인/외국인 등에 따른 분열적 선거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이미 다양한 이유로 갈라져 있는 국민들을 보듬고 통합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부채질하는 ‘나쁜 정치’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2022년에 들어서면서 이제 세계와 한국 사회는 전염병과 함께하는[위드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세계[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 가시화한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분열 현상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 이런 분열과 상처들은 그대로 한국 교회의 것이기도 하다. 교회는 단지 이 사회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유무형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한국민의 기쁨과 희망 그리고 슬픔과 고뇌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사목 현장 1항 참조). 특히 지금 보편 교회와 한국 교회는 함께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의 첫 단계인 지역 교회의 경청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각 교구에서 행하고 있는 경청과 식별의 시간은 단지 교회 내적인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육화하는 이 사회의 삶과 무관할 수 없다.

1) “코로나로 불평등 가속…상위 10% 자산, 하위 50%의 190 배”, 「한겨레 신문」, 2021.12.08.,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2405.html(검색일: 2022.4.11.) 참조.

2)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 2022」, 통계개발원, 2022년, 37-42면 참조.

3) 하상웅, “한국인의 갈등 인식과 배타성”, 「한국의 사회동향 2021」, 통계개발원, 2022년, 349-358면 참조.

4) “‘코로나 불안’ 20대·여성·저소득층 특히 취약…20대 40% 중증 우울 위험”, 「중앙일보」, 2021.8.1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31753#home>(검색일: 2022.4.11.) 참조.

그리하여 2021년 사목적 시사점의 두 가지 키워드는 ‘포스트 코로나’와 ‘시노달리타스’이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중인 코로나 상황 아래서 드러난 여러 사회적 교회적 문제들을 직시하면서 성령 안에서 사회와 교회의 주변부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을 경청할 때만이 함께 길을 찾아나가는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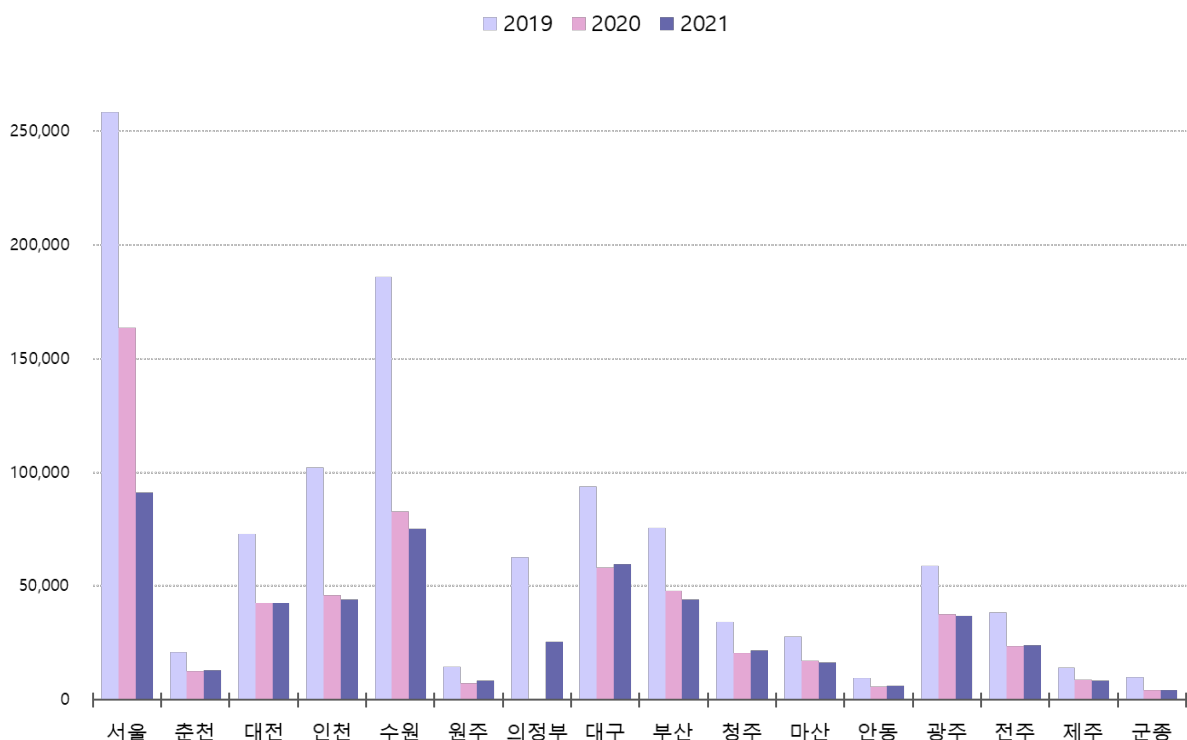
2. 그리스도의 몸과 하느님 백성으로서 교회를 ‘체험’하는 주일의 미사 참례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은 교회 안에서 성사 전례의 어려움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2021년에는 일부 이를 회복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황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사 별로 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세례성사는 45%, 견진성사는 61%, 병자성사는 57%, 고해성사는 52% 정도 베풀어졌다.

주일 미사 참여자의 경우, 2020년보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더욱 감소하였고,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48.3%의 신자만이 미사에 참여했다. 2021년 영성체 건수도 2019년 대비 49.1%에 불과해서 주일 미사 참여율과 어느 정도 조응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주일 미사 참여자의 감소와 함께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80만 부 넘게 발행되던 전국의 교구 주보는 코로나 영향으로 처음 66만 부를 기록하더니 2021년에는 50만 부까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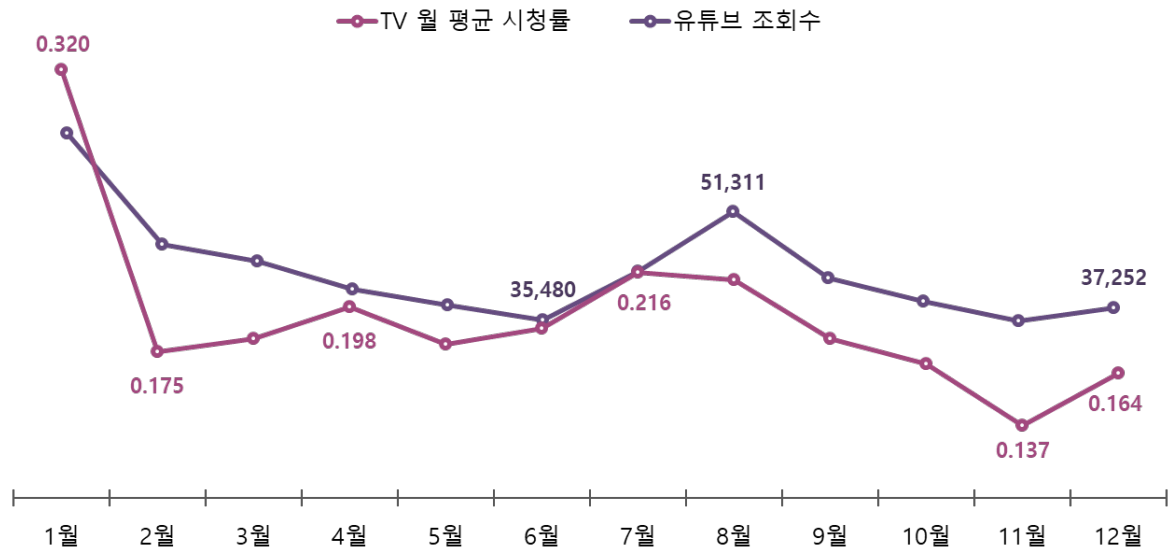
<그림 1> 2019-2021년 교구별 주일 미사 참석자 수

[단위: 명]



가톨릭평화방송의 2021년 주일 미사 평균 시청률은 0.193%로 2020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유튜브 시청률은 2,243,524회로 전년보다 25만 건 감소했다. 공식적으로 공동체 미사가 중단되었던 기간(2020.12.25.-2021.1.17.; 7.26.-8.8.)을 중심으로 시청률이 등락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2021년 가톨릭평화방송 주일 미사 시청률



자료 제공: 가톨릭평화방송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의 주일 미사 참여율이 수년 동안 하향 추세인 가운데 불어닥친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특히 신자들이 팬데믹 기간에 주일 미사 참례 의무에 대해 지나치게 자유주의적 입장을 갖거나 방송 미사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다.⁵⁾

감염병의 확산에 따라서 공동체 미사가 중단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교황청 경신성사성은 이 시기를 ‘공복재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 공복재는 우리가 성찬례의 필수적인 중요성, 아름다움, 헤아릴 수 없는 소중함을 재발견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빨리 깨끗해진 마음과 새로운 경이로움으로 성찬례에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을 받아 모시고 믿음과 사랑과 희망이 가득찬 삶을 증언하며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그분을 알리고자 하는 더 커진 바람으로 성찬례에 돌아가야 합니다.”⁶⁾ 따라서 한국 교회는 하느님 백성이 “가능한 빨리 깨끗해

⁵⁾ 2021년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가톨릭신문사와 『가톨릭평론』이 실시한 ‘포스트 팬데믹과 한국 천주교회 전망에 관한 의식 조사’에 따르면, ‘주일 미사에 꼭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비율이 2020년의 57.3%에서 40.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연령대가 비교적 젊을수록 많이 나타나고 있다.

⁶⁾ 교황청 경신성사성, “기쁘게 성찬례로 돌아갑시다!”, 2020.8.15., <https://cbck.or.kr/Notice/20201347?Page=2&search=%EA%B2%BD%EC%8B%A0%EC%84%B1%EC%82%AC%EC%84%B1&tc=contents&gb=K1200> (검색일: 2022.4.12.) 참조.

진 마음(고해성사)과 새로운 경이로움으로 성찬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 교회의 주일 미사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18%에 불과했는데, 이 신자들만으로 본당의 사목과 전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본당에서 찾아오는 신자들만을 상대로 사목 실천을 할 때 사목자와 평신도 봉사자들은 그 어떤 어려움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본당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8%의 신자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본당 사목과 전례 준비는 바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주일 미사 전례에서 사제와 회중은 본당의 하느님 백성 전체와 함께 미사를 거행한다는 의식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지금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지체들의 현실에 마음 아파해야 한다.

지체 장애인의 성전 진입을 어렵게 하고, 농인들이 말씀과 전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유아와 그 부모를 전례 공간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성전 구조 등은 깊이 숙고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오늘의 현실에서 하느님의 집이 이를 어렵게 한다면 문제이다. 따라서 본당 공동체에 속하는 하느님 백성 전체가 주님의 날, 그분의 집에서 베풀어지는 잔치에 참여하는 데 개인적 교회적 방해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지금 각 본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의 경청 과정과도 연결된다. 정기 총회 예비 문서는 핵심 주제에 대한 경청과 식별에서 시노달리타스는 공동체가 말씀을 경청하고 성찬례를 거행하는 데에 기반을 둘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30항).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끊임없이 물질 만능의 가치관과 능력주의, 과잉 생산과 탈진,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주변으로 내모는 사회 구조와 현대적 생활양식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과 방향 전환을 요청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주일의 의미와 그 안에서 베풀어지는 성찬례는 이 도도한 자본주의와 국가주의의 허상, 사회 불평등과 분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치료제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한 주간의 노동에서 잠시 물러나 쉼을 취하면서[안식] 하느님의 초대에 응해서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느님의 백성임을 체험한다. 하느님의 백성은 성찬례를 통해 같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며, ‘그 무엇보다 먼저’ 그분이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 나아갈 힘을 얻게 된다(마태 6.33 참조).

엔데믹을 향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많은 이들이 기쁘게 성찬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각 교구장 주교들과 본당 신부들과 수도자들, 평신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하느님 백성의 일원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 ‘참여’하는 세례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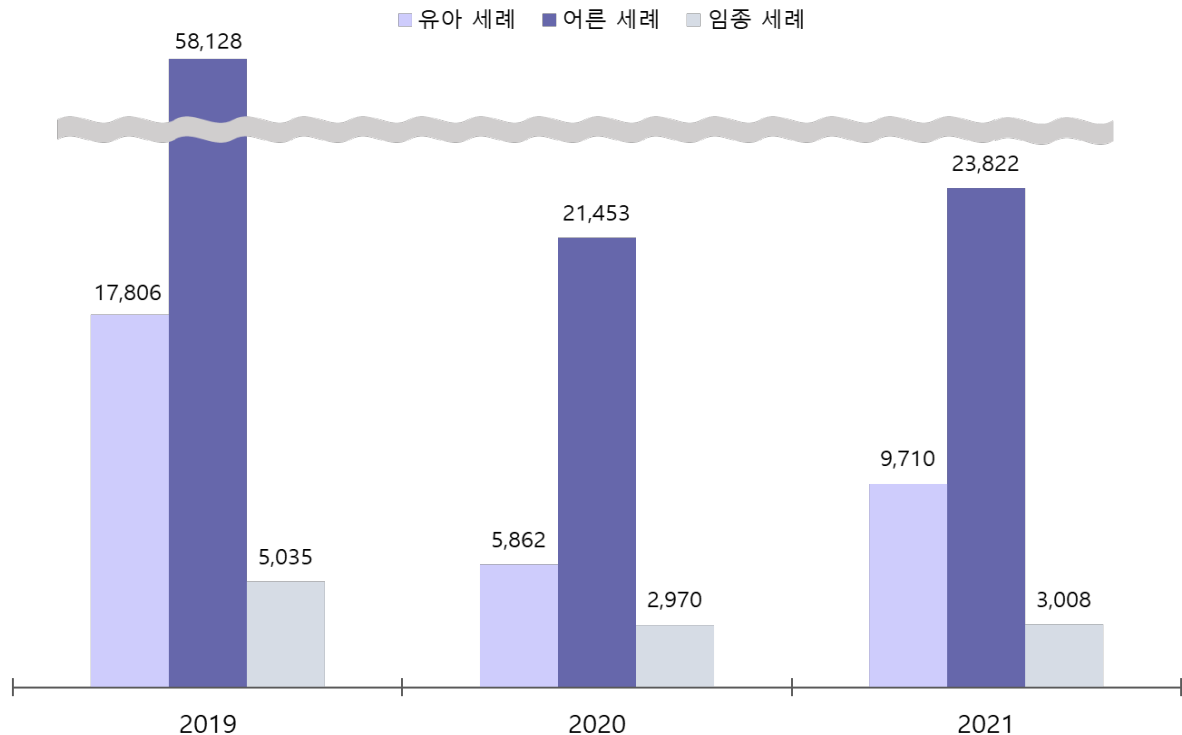
한국 교회의 영세자 수는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던 와중에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이에 극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2021년 영세자 수는 2020년에 비해서는 나아졌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45% 수준인 36,540명에 그쳤다.

세례 유형별로는 일반적으로 4-5%가량이던 임종 세례 비율이 2020년에 코로나 영향 때

문인지 9.8%까지 올랐다가 2021년에는 8.2%로 다소 하강했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출생률을 저하 속에 유아 세례자 수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2% 감소해서 2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코로나 여파로 2020년에는 5천 명대로 떨어졌다. 어른 세례는 처음으로 세례 유형 비중에서 70% 아래로 내려가 65%에 머물렀다.

<그림 3> 2019-2021년 세례 유형별 분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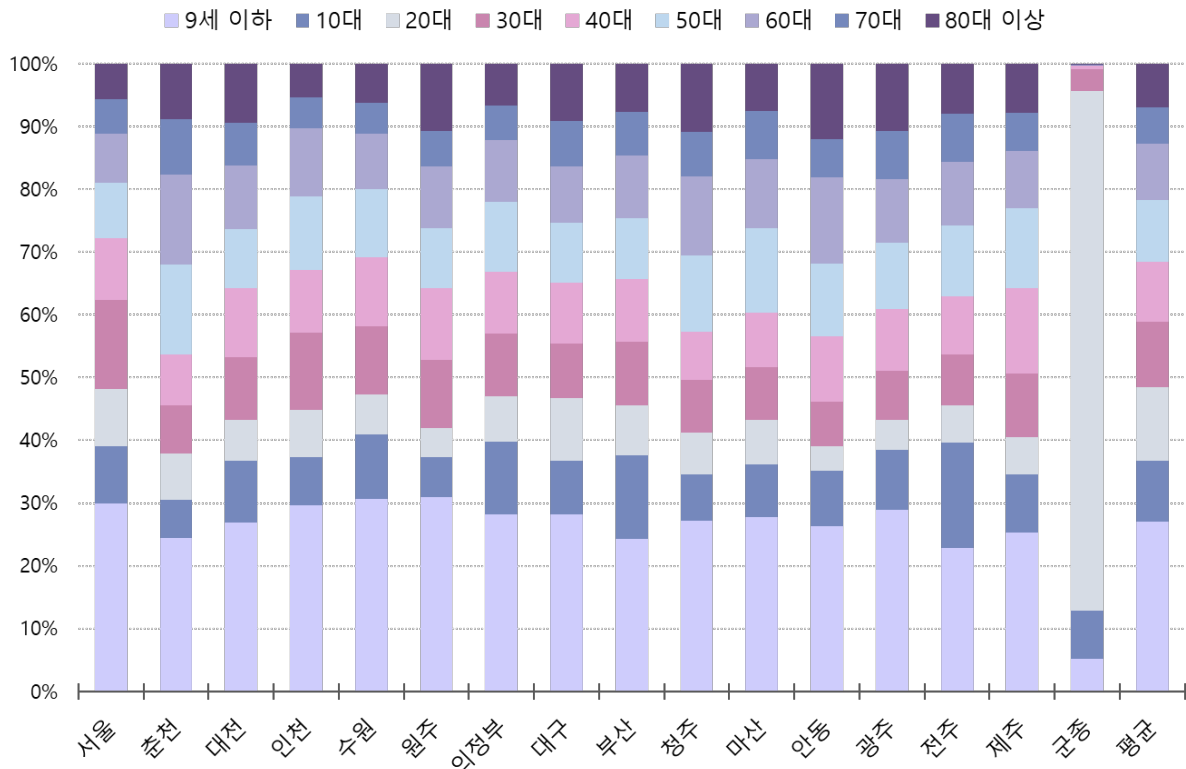


연령별로 보면, 유아 세례를 포함하는 19세 이하 영세자들은 전체의 36.8%였고, 65세 이상은 16.9%였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해 보면 당시 영세자는 19세 이하에서 26%, 65세 이상에서는 8.2%였는데 이런 비율의 차이는 20대 초반 군종교구의 영세자 수가 크게 감소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교구별로 청주와 춘천 교구는 각각 교구 영세자의 24.8%와 23.9%가 65세 이상이었고, 수원과 서울대교구는 각각 교구 영세자의 41%와 39%가 19세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교구는 교구 영세자의 16.8%가 10대이고, 인천교구는 12.3%가 30대이며, 제주교구는 13.6%가 40대이고, 춘천교구는 50-60대에서 각각 14%대를, 안동교구는 12.1%가 8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도시와 함께하는 교구들에서는 유아 세례와 30-40대 영세자 비중이 높았고, 중소 도시와 많은 읍면 단위를 갖고 있는 교구들에서는 60대 이상이 많았다.

<그림 4> 교구별 영세자 연령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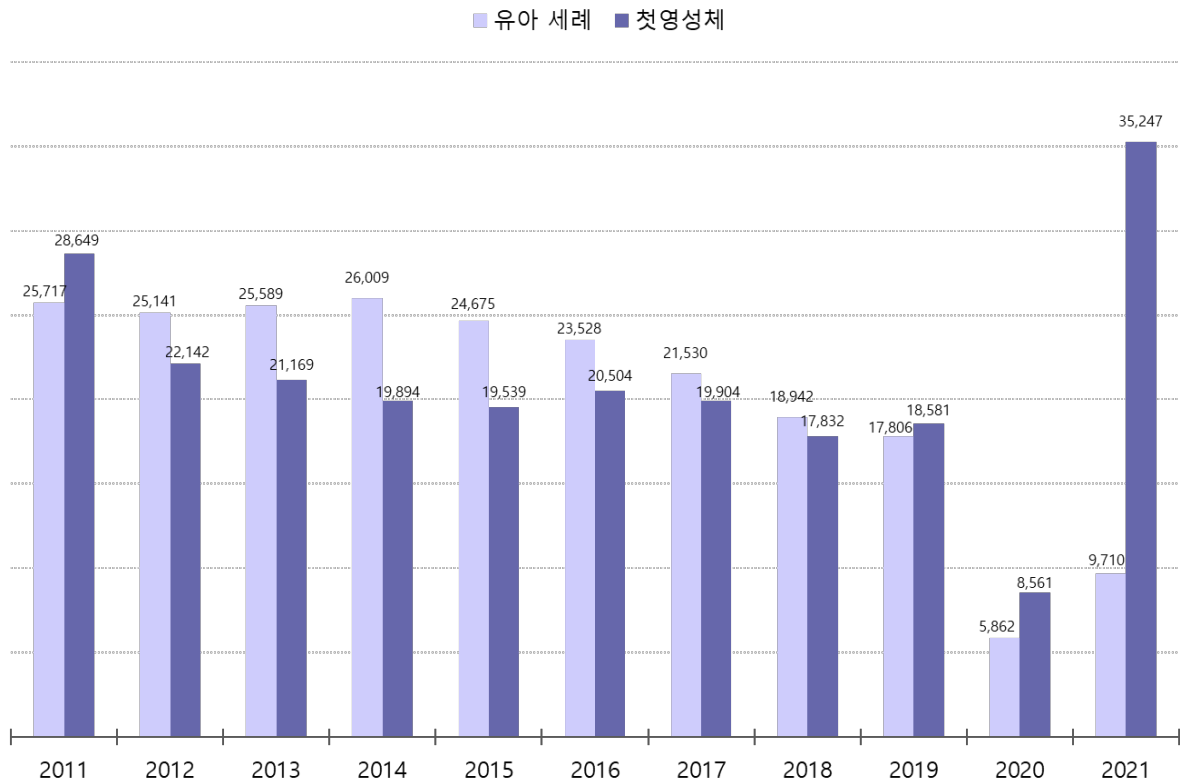


비록 그 비율은 다소 줄었지만 한국 교회는 아직도 해마다 영세자 중 다수가 성인 세례를 통해 교회에 입문하는 선교지 교회이다. 여러 사회 조사들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종교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더 무관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종교와 신앙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찾으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에 부합하는 교회적 삶을 이루어 나가고 현대인들의 삶의 자리와 인식구조에 더욱 적합하게 예비신자 교리교육 체계를 정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의 양적 성장 시대였던 1970-1990년대처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에 급급했던 주입식 체제에서 벗어나 예비신자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동반’하고 ‘경청’하는 교리교육 내용과 시간 배려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어른 입교 예식」이 제안하는 것처럼 교리교육만이 아니라 공동체(친교), 전례 예식, 사도적 생활(애덕과 봉사)이 함께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세례 뒤에도 후속 교육과 심화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신비 교육 기간’을 통해 본당 공동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야 한다.⁷⁾

⁷⁾ 「한국 천주교회 예비신자 교리교육 문제점 진단과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보고서」,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2017년, 132-138면 참조.

<그림 5> 2011-2021년 유아 세례와 첫영성체자 수

[단위: 명]



한편, 신자들의 신앙 전수 지표로서 상관성을 갖는 유아 세례와 첫영성체가 회복 중인 것은 긍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에 많은 본당에서 일시적으로 유보되었던 첫영성체가 2021년에 35,247명에게 베풀어졌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 300%가 넘는 수치이다. 또 평균적으로도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첫영성체가 이루어져서 많은 일선 사목자와 부모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된 기간이었지만 아이들의 신앙 교육만큼은 놓치지 않고자 애를 썼음이 지표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이 가정 안에서 지속적인 신앙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주일학교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쌓고 성장해 가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는 단지 신앙인 개인만이 아니라 본당 공동체 전체의 기초를 다지는 데서도 중요한 것으로 이번 결과는 많은 부모와 교리교사, 수도자, 그리고 본당 사목자가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로서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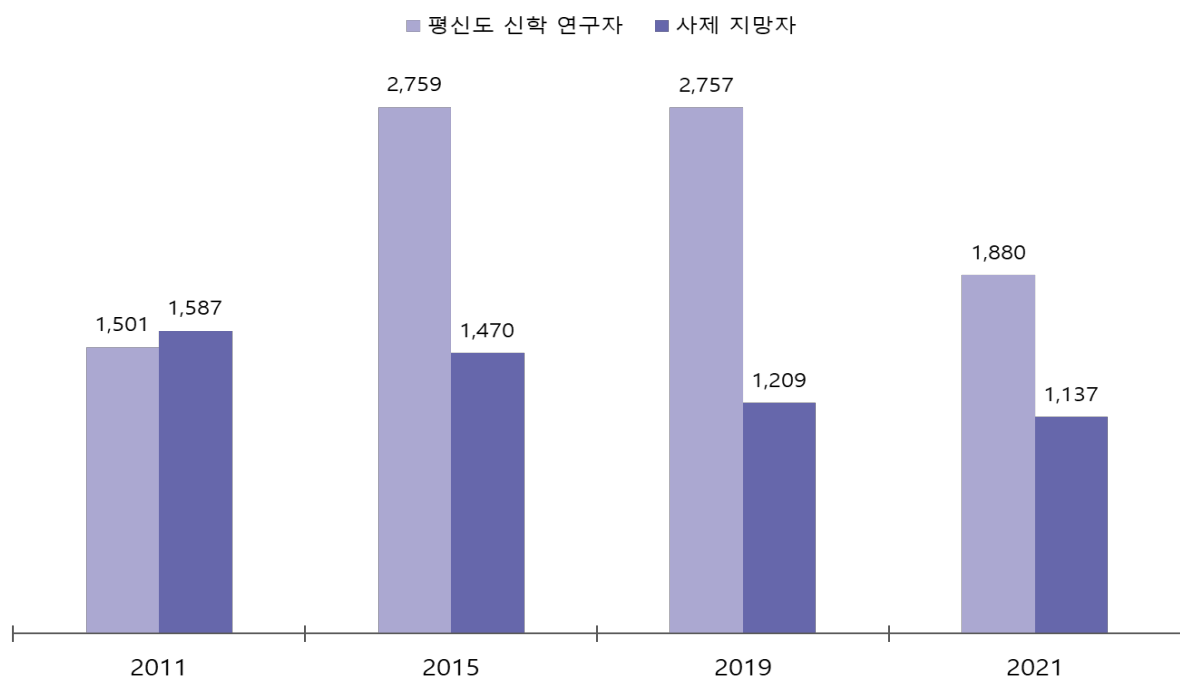
4. 사제 성소 감소와 평신도 신학 교육의 증가, 그리고 「오래된 직무」

한국 교회의 우울한 지표 가운데 하나는 사제 성소와 신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이다. 2021년 신학생 수는 1,137명으로 10년 전인 2011년 1,587명보다 28.4%가 감소하였다. 사

제 지망 신학생의 이런 지속적인 감소와 대비되는 현상으로 평신도 가운데서 신학을 공부하는 신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11년에 가톨릭대 신학대학에 23명이었던 평신도 재학생은 2021년에 56명으로 증가했고, 교리신학원 학생 역시 같은 기간에 1,478명에서 1,880명으로 증가했다. 교리신학원 학생은 2019년에 2,700명까지 증가하였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로 1,800명대로 감소했다. 현재 신학 전공으로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까지 생각한다면 한국 교회는 이미 많은 평신도들이 신학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6> 평신도 신학 연구자, 사제 지망자 수 추이

[단위: 명]



시노달리타스에 관한 현재의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는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 하느님 백성의 일원으로서 참된 친교, 참여,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 교회 생활의 주체로서 평신도들이 교회의 삶과 사명에 더욱 투신하고 참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좀 더 전문적인 신학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 사목자들에게서 시노달리타스를 실천하는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 안에서 충분히 양성된 평신도 사목 협력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의 교육 기관에서 일정하게 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교지나 사목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후속 경험을 쌓지 않는다면 그저 일회적인 개인적 교육 체험에 머물고 말 것이다. 따라서 신학 교육을 받은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배려가 절실하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는 극히 소수의 평신도들이 신학대학원과 교리신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평신도 선교사와 본당 교리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21년 5월 10일 교서 「오래된 직무」(*Antiquum Ministerium*)를 통해 평신도 교리교사 직무를 제정하셨는데, 이 교

서에서는 각국 주교회의가 이 직무의 허용을 위한 필수 양성 과정과 규범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가장 적합한 형태를 고안하도록 권고하고 있다(98항). 이런 교서의 제안은 2020년에 발표된 주교시노드 범아마존 특별 회의 후속 권고인 「사랑하는 아마존」에서 성체성사를 통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총과 은사를 온전히 지역 교회가 향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체성사를 거행할 수 있는 사제들을 확충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평신도 직무자들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한 것과 상통한다(93항). 한국 주교회의에서는 아직 교리교사 직무의 구체적 형태에 대한 지침 및 방안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지역 공동체의 특수성과 영성 체험, 생활 방식에 이미 익숙한 양성된 평신도 교리교사들의 역할은 계속해서 요청될 것이다(94항).

5. 사제 지속 양성과 원로 사목자

교구 사제들의 소임별 활동에서 장기적으로 본당 사목은 감소하고 특수 사목은 증가 추세에 있다. 또 해외 한인들을 위한 교포 사목은 줄어드는 반면에 해외 선교는 증가하고 있다. 교회 내에서 성무 활동 외에 사제의 역할이 다변화하는 한편으로, 전체적으로 사제 연령이 상승하고 연차 증가에 따라 원로 사목자에 달하는 사제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70세 이상 사제는 9.5%, 원로 사목자는 10%에 진입해서 이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중장기적인 비전과 대책이 더욱 절실했다.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에서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한 ‘사제 지속 양성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전국 사제 설문조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조사가 포함되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사제로서 삶의 만족도에서 원로 사목자들이 79.9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구 사제들은 일선 사목에서 물러난 후의 거주 형태에 대해 공동 사제관(25%)과 소규모 사제 공동체(19%) 등을 선호했고, 원로 사목자로서 지내는 동안 걱정되는 요소는 건강(18%), 활동(12%), 상실감과 고립감(12%) 등을 꼽았다. 원로 사제들을 위해 교구에서 해야 할 준비에는, 주거 문제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사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고해성사, 미사 집전, 공소, 면담 등)에 대한 바람과 원로 사목자를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마련 제안 등이 있었다.

결국 이런 제안들은 원로 사목자들의 경우에 일선 본당과 같은 사목 현장에서는 물러난 것이지만 사제로서 고유한 성무 활동이나 특수 분야의 사목 활동에서는 여전히 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제안될 수 있는 것은 본당 사제들이 여러 사정으로 할 수 없는 성무나 사목적 역할에 대한 수행이다. 곧 본당 사제가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과 가정들에 대한 상담과 도움, 봉성체, 고해성사, 미사 집전 등 일반 사목 활동과 성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당과 지구별로 일시적으로 미사 집전이 어려운 곳에서도 원로 사목자가 봉사할 수 있다. 특히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며 본당의 성사 전례가 정상화되는 단계에서 일선 사목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돕는 데 원로 사제들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6. 사회적 재난의 시대-포스트 코로나와 교회의 사회 문화 사업

한국 천주교회의 사회 사업은 한국 교회의 사회적 위상과 함께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천주교회 통계가 수집하고 있는 자료만 해도 지역/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노숙인/결핵/한센인/의료 복지/상담/교정 복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렇지만 이 사회 사업 수는 2014년과 2015년에 정점을 찍고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이다가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 이후 더 축소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21년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349개소). 노숙인과 부랑인들을 위한 복지 시설은 코로나 이후에 감소되었다. 특히 무료 급식소는 2019년 대비해서 7개나 감소되었다. 이것은 명동성당의 무료밥집 등이 언론의 소개를 받으면서 교회의 역할이 일부 조명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사회 복지 역할이 축소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문화 사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교육관/문화관(+12), 기념관(+25), 성지/사적지(+70), 피정의 집(+47) 등이 지난 10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나 연구소는 8개가 감소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현재와 미래의 복음화 사명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계획과 실천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곧 한국 사회의 복음화와 좀 더 풍요롭고 결실 있는 사목 실천을 위해서는 외적인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내적인 소프트웨어를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시대의 시대적 징표가 무엇인지 연구하는 신학과 사목 연구에 그만한 재원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주장들 대부분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 역시 단지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시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성찰과 구체적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좀 더 실증적인 연구들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교회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3월 19일 성 요셉 대축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Praedicate Evangelium*)를 반포했다. 이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재임 초기부터 시작한 교황청 개혁 작업의 결실로서 1988년 반포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를 대체한다. 그 내용은 교황청의 현재 구조와 제도를 개혁하여 교회의 본래 사명인 복음 선포에 충실한 기관으로 만들려 함이다. 이것은 앞서 작년 10월에 시작한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와 함께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의 사명 실현에 중요한 분기점을 이룰 전망이다. 한국 교회 역시 현재 주교시노드 교구 경청 단계를 수행하면서 보편 교회의 이런 사목 방향에 적극 호응하면서 모든 하느님 백성이 “선교하는 제자”⁸⁾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교회의 기관과 제도를 쇄신하거나 내실화하는 데 적극적으

⁸⁾ 프란치스코,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Praedicate Evangelium*), 10항, 참조.

로 나서야겠다.

이런 면에서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전임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한 미래 교회의 비전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교황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사명은 (가시적 지표로서)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교회이다. 그 교회는 많은 특권을 잃게 될 것이지만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며 더 필수적인 것을 위한 에너지를 구하고, 더 영적이고 더 가난하지만 덜 정치적인 교회, 더 작은 교회가 될 것이다.⁹⁾ 이런 교회의 모습은 주님 교회의 본래 모습에 더 가깝게 다가서는 교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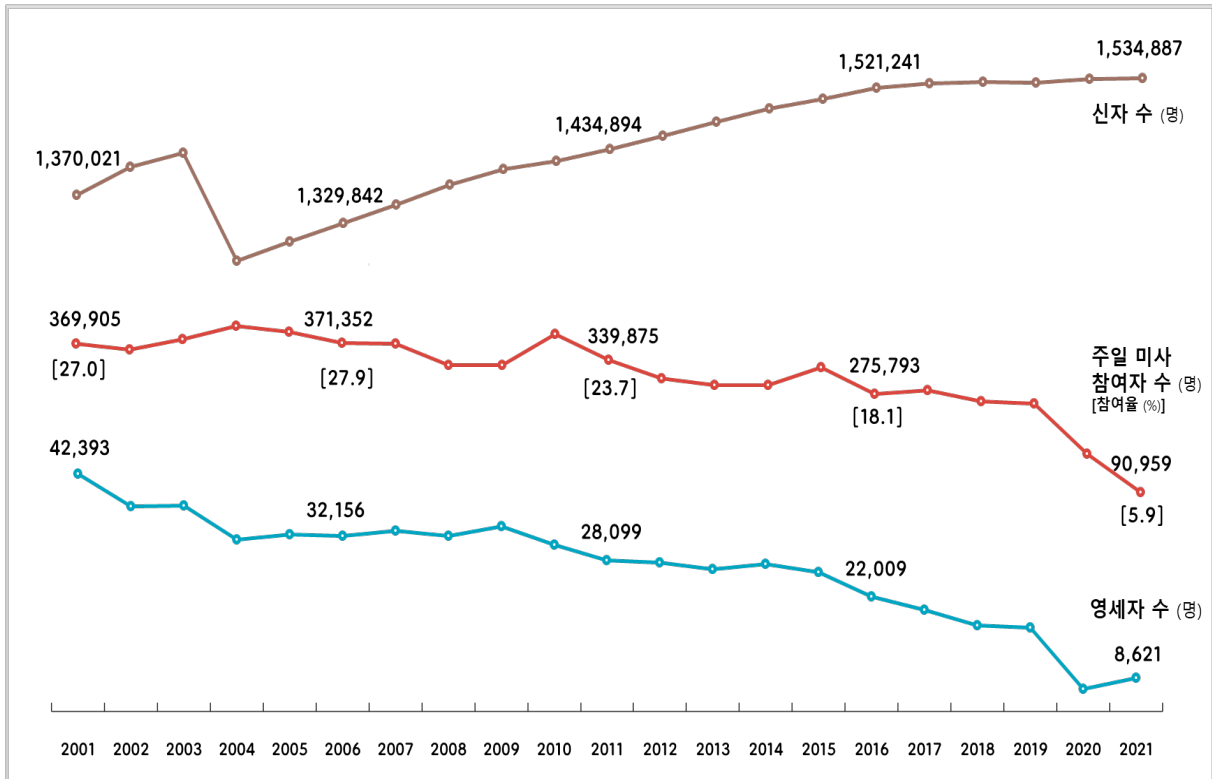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1」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아래서 교회의 사목 지표 대부분이 더욱 악화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코로나의 영향이 가장 컸지만 수년 동안의 급격한 하락 추세는 분명히 교회의 사목 실천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히 수치를 개선하는 과정으로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통계는 문제의 결과나 어떤 징후를 보여줄 뿐 그 원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보다 오히려 오늘날 시대의 지표 안에서 교회의 본질을 묻고 그에 적합한 사목 실천을 모색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⁹⁾ Cindy Wooden, “Church’s mission is not about numbers, but evangelizing, pope says”, *NCR*, 2022.4.14., <https://www.ncronline.org/news/vatican/churchs-mission-not-about-numbers-evangelizing-pope-says>(검색일: 2022.4.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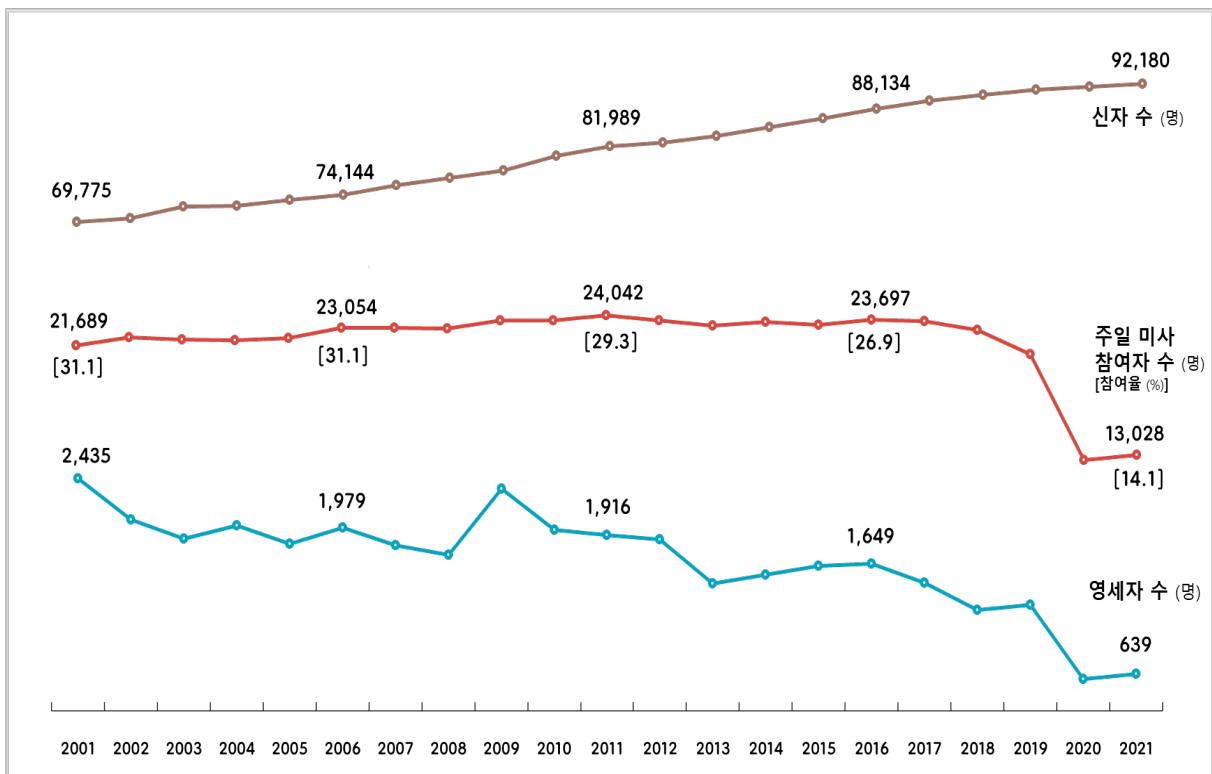
부록

최근 20년간 교구별 신자 수, 주일 미사
참여자 수, 영세자 수 추이
(2001-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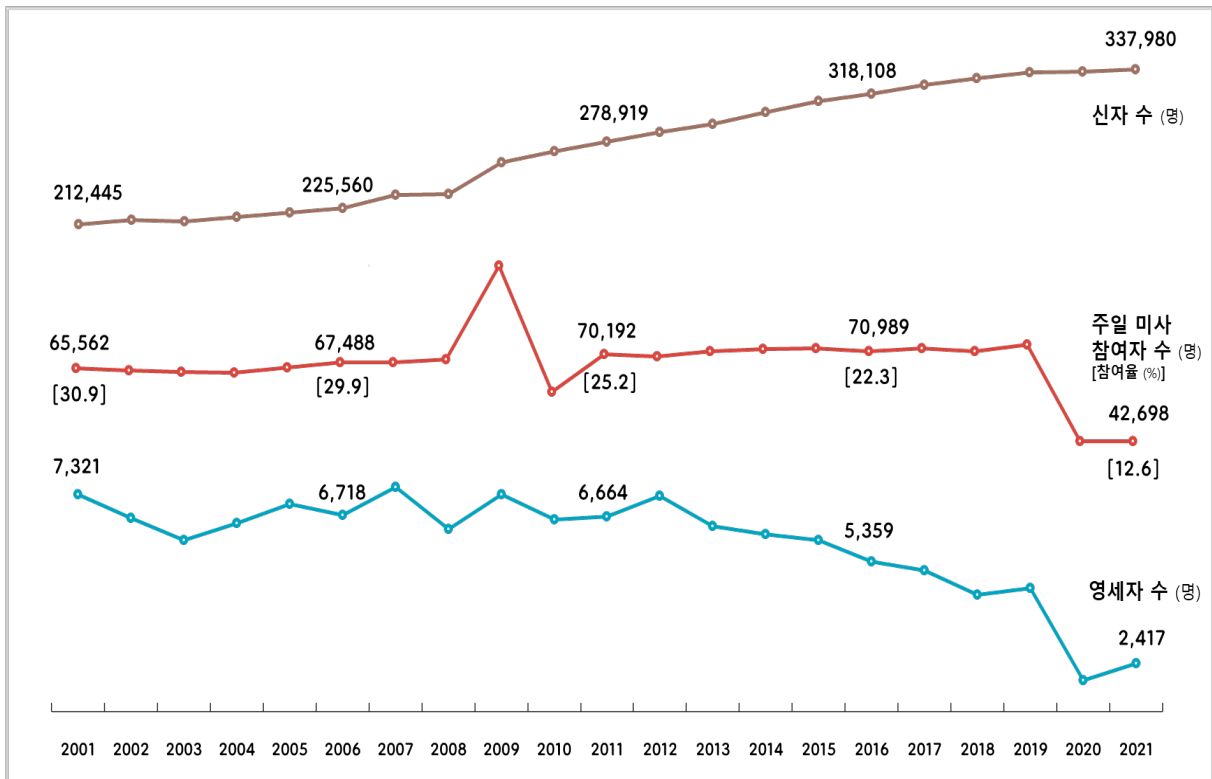
서울대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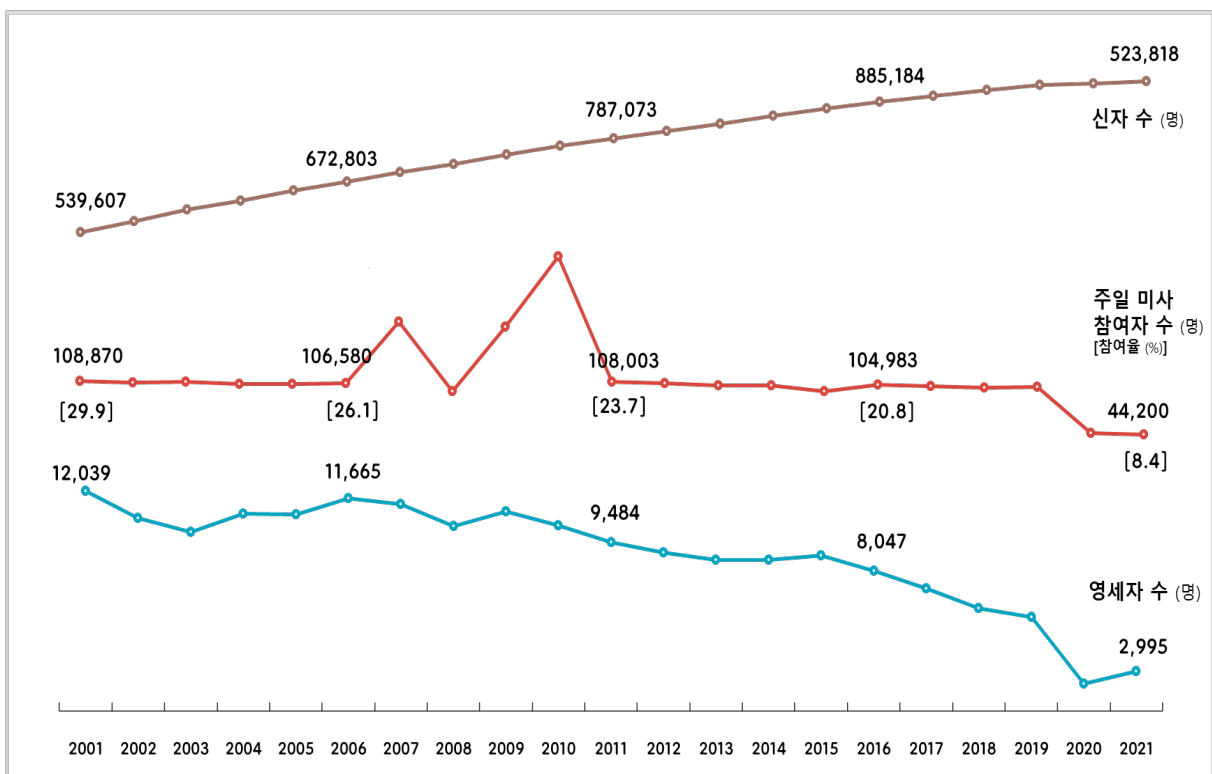
춘천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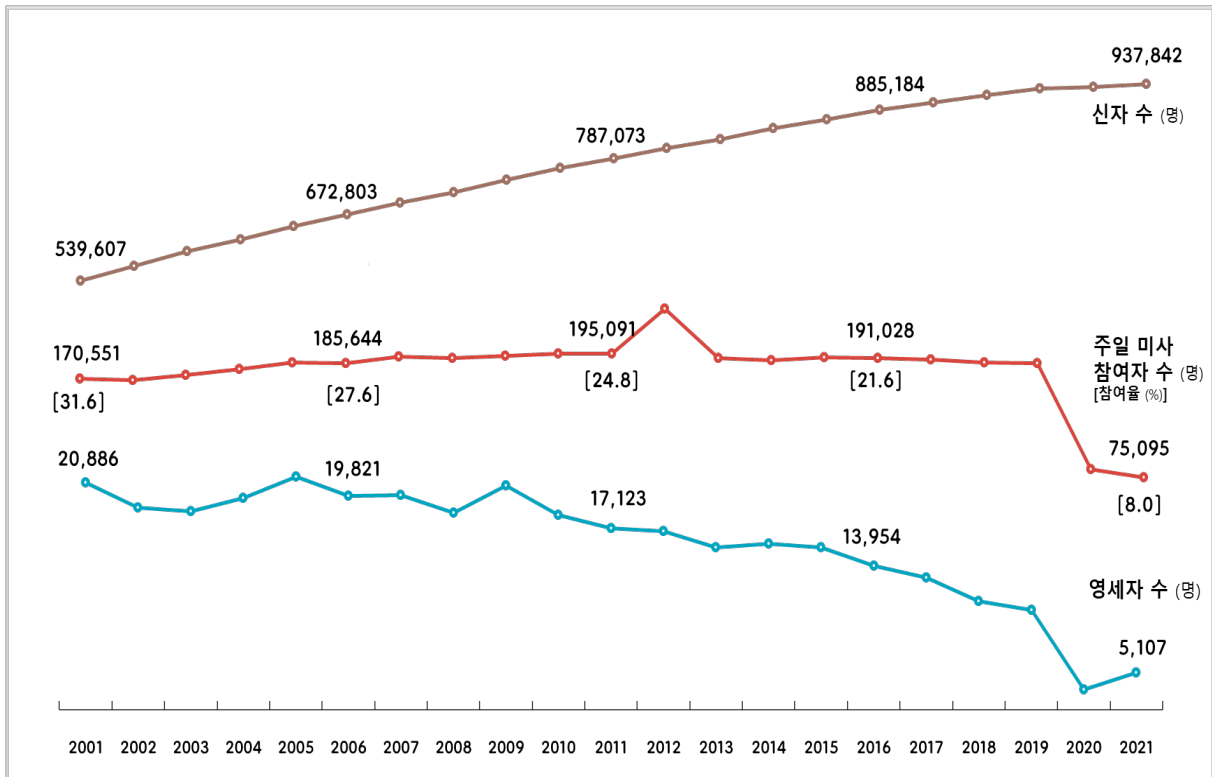
대전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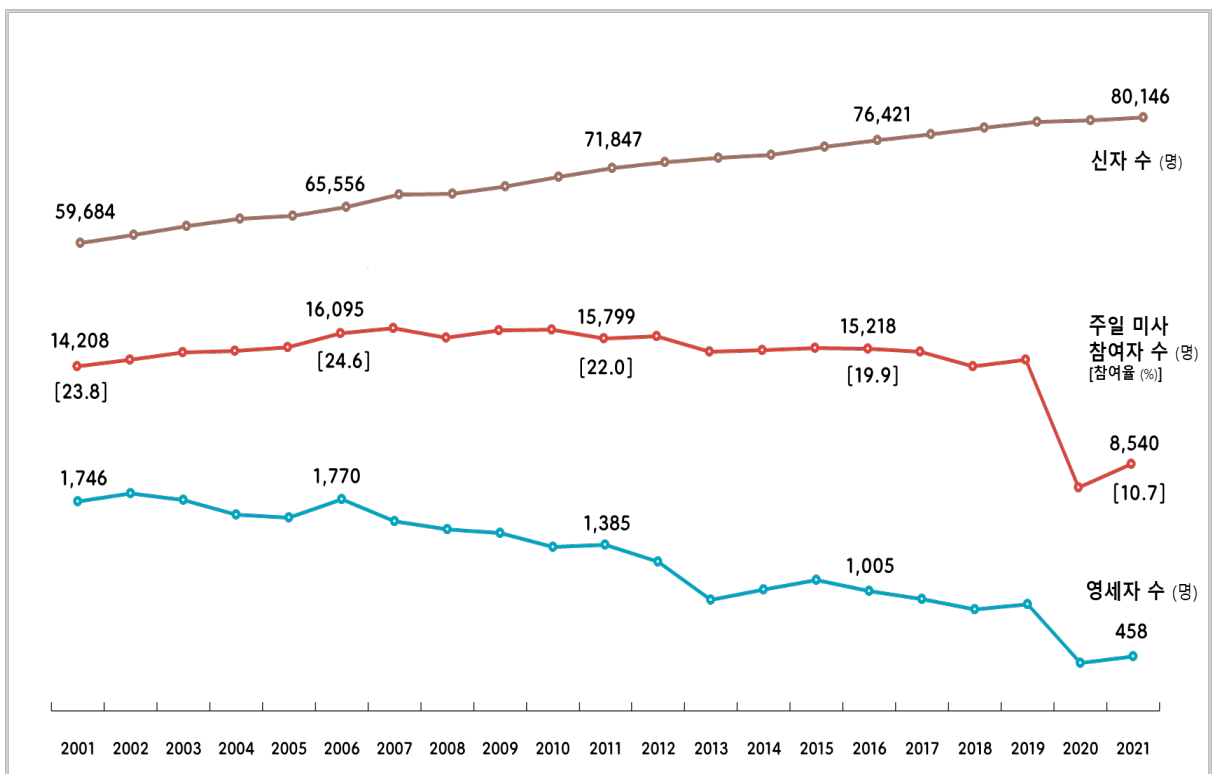
인천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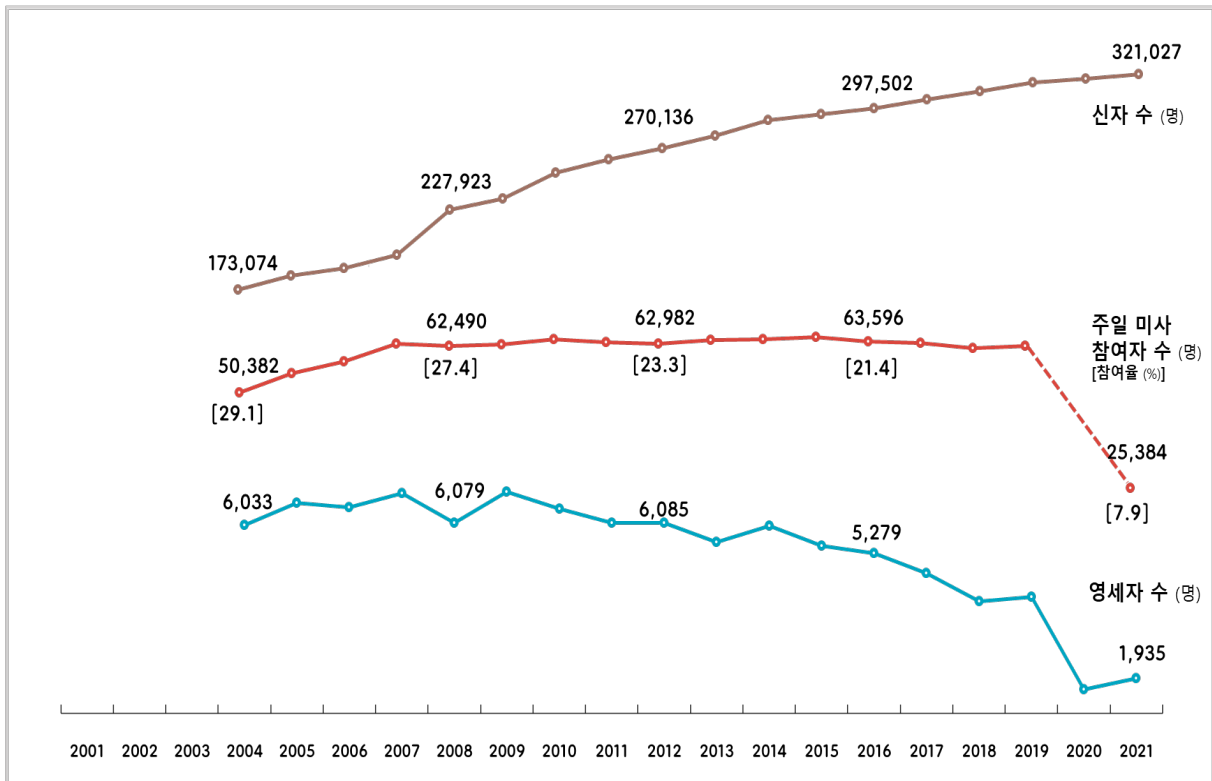
수원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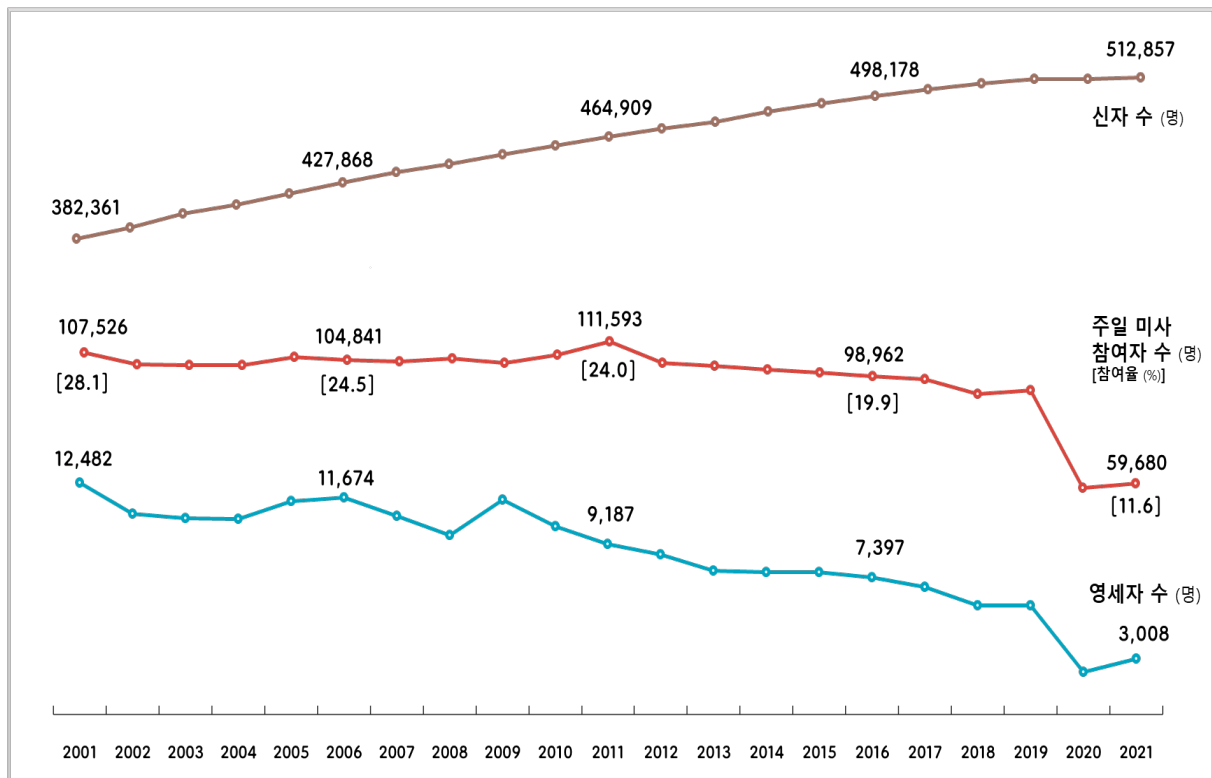
원주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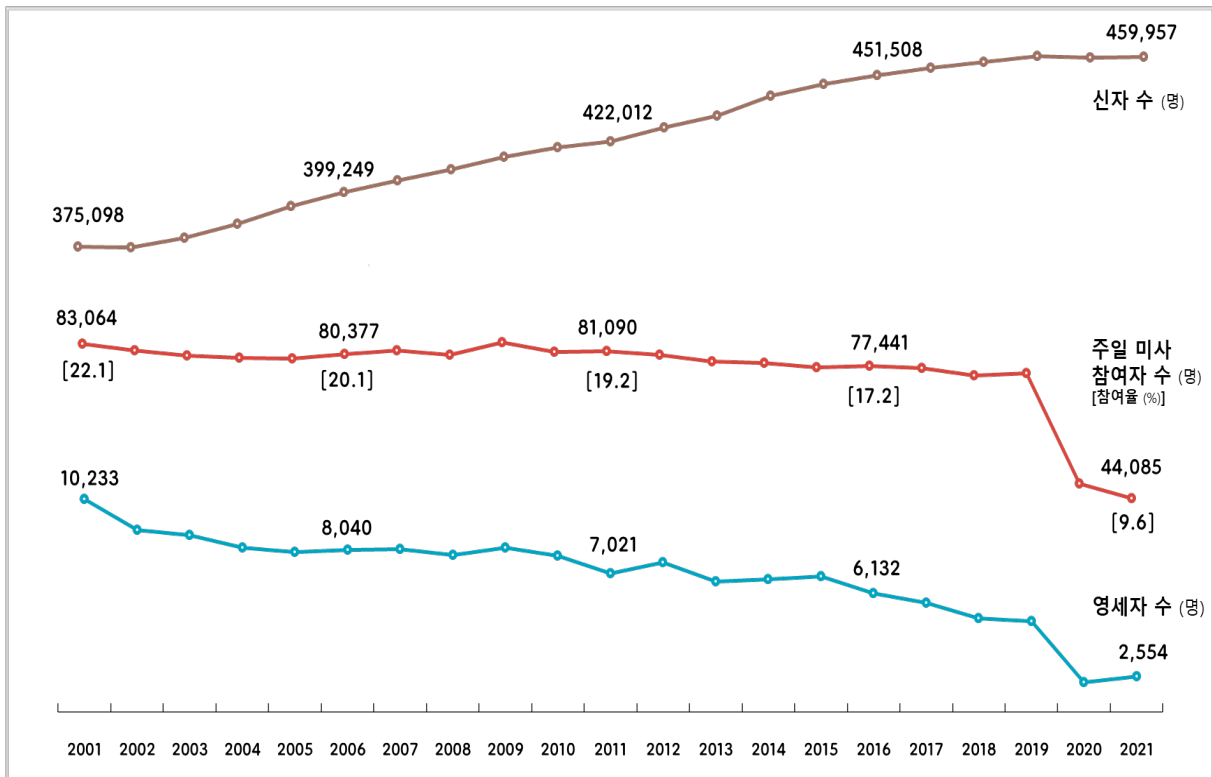
의정부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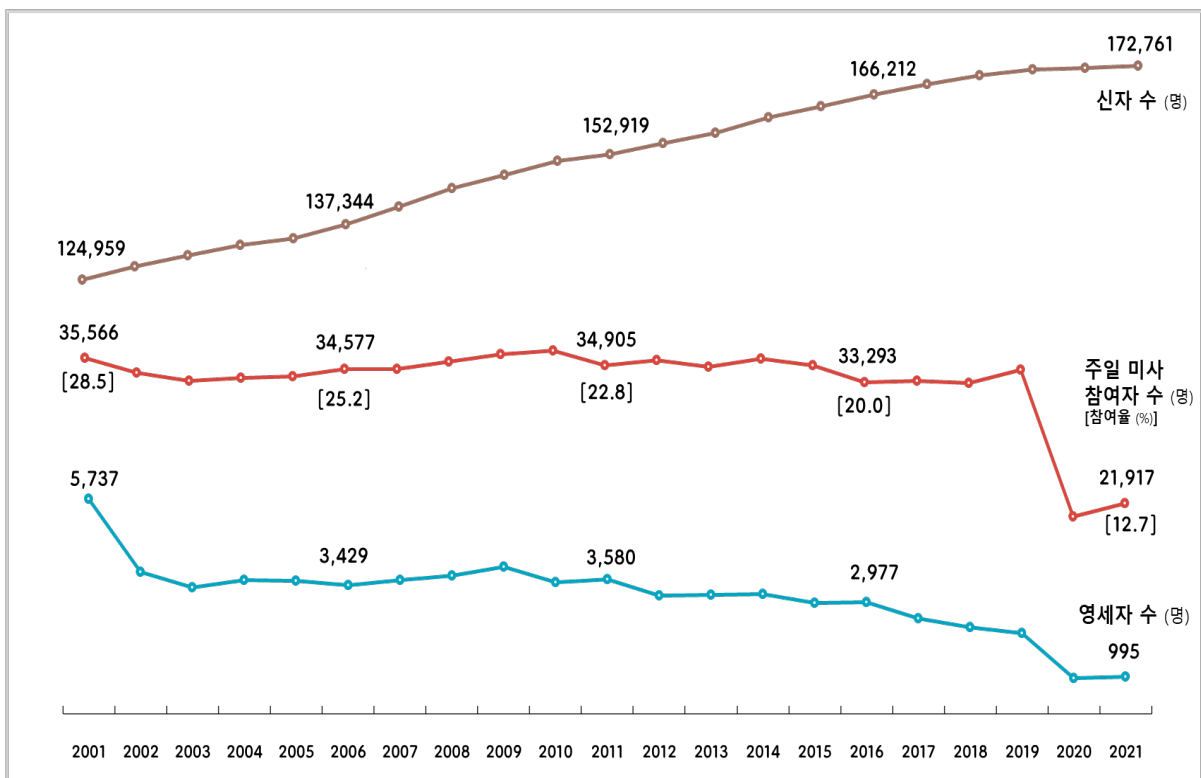
대구대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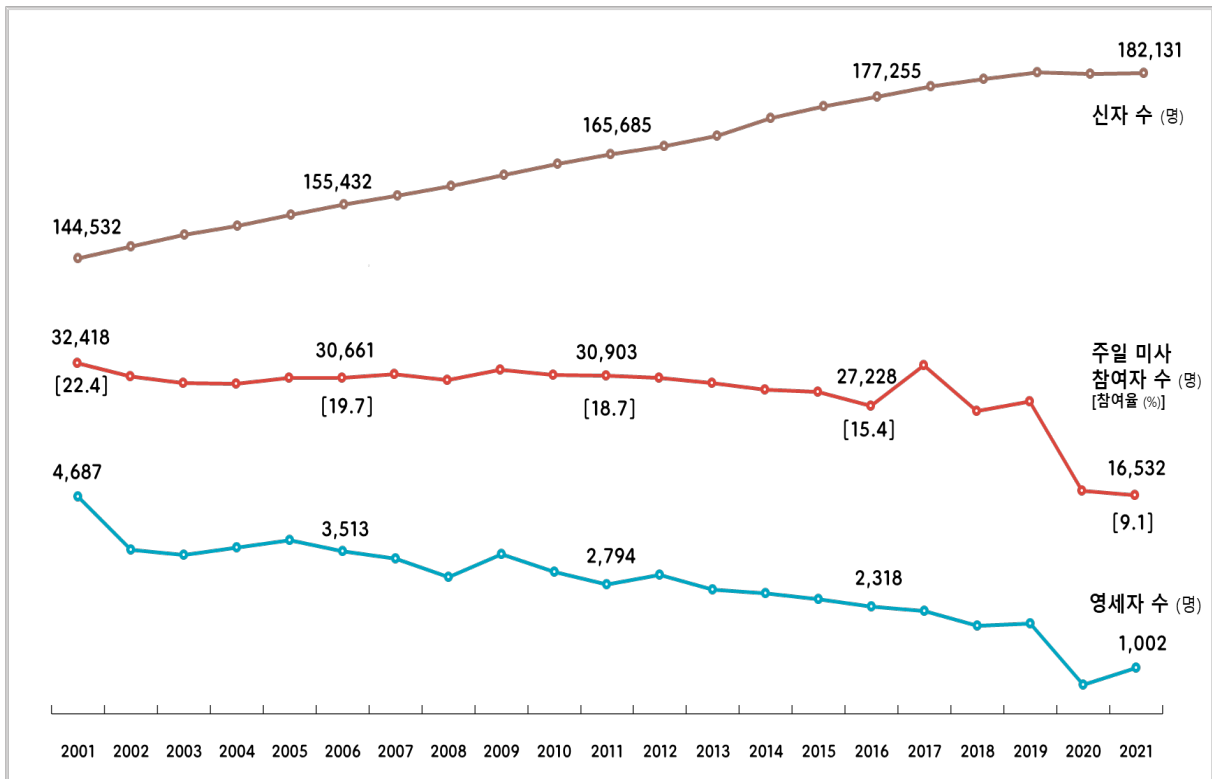
부산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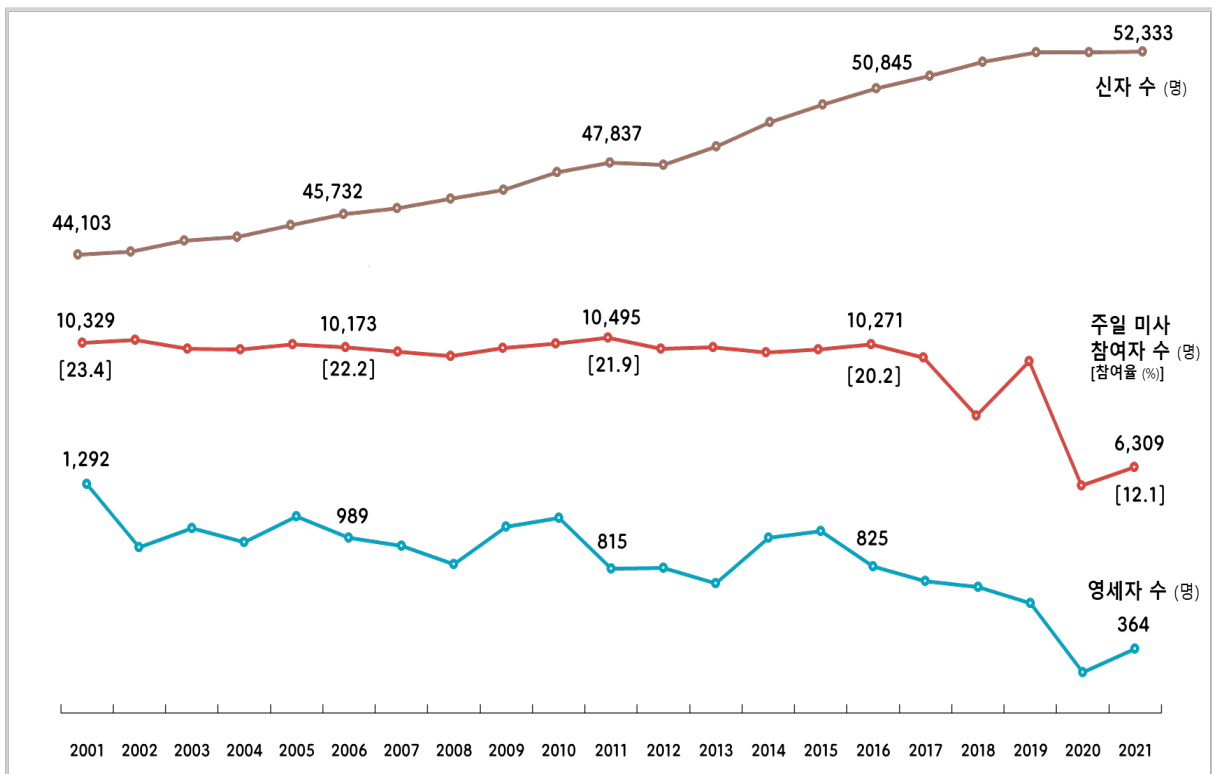
청주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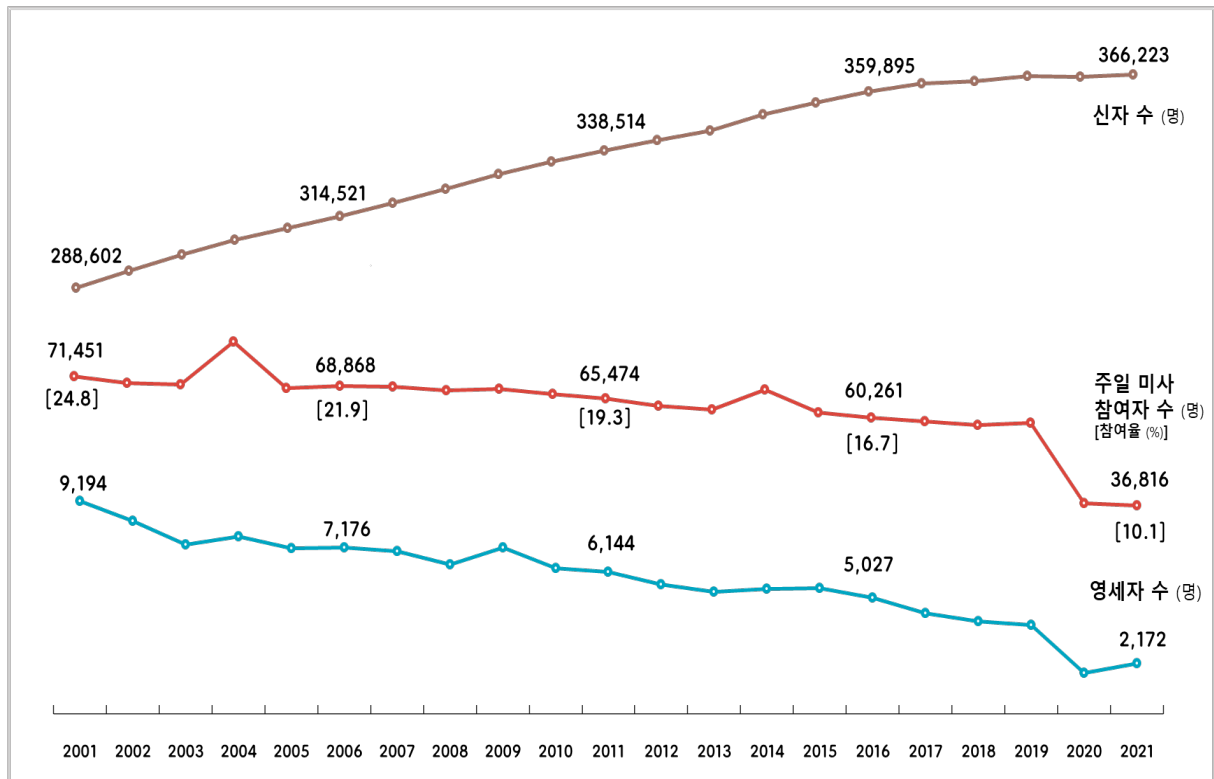
마산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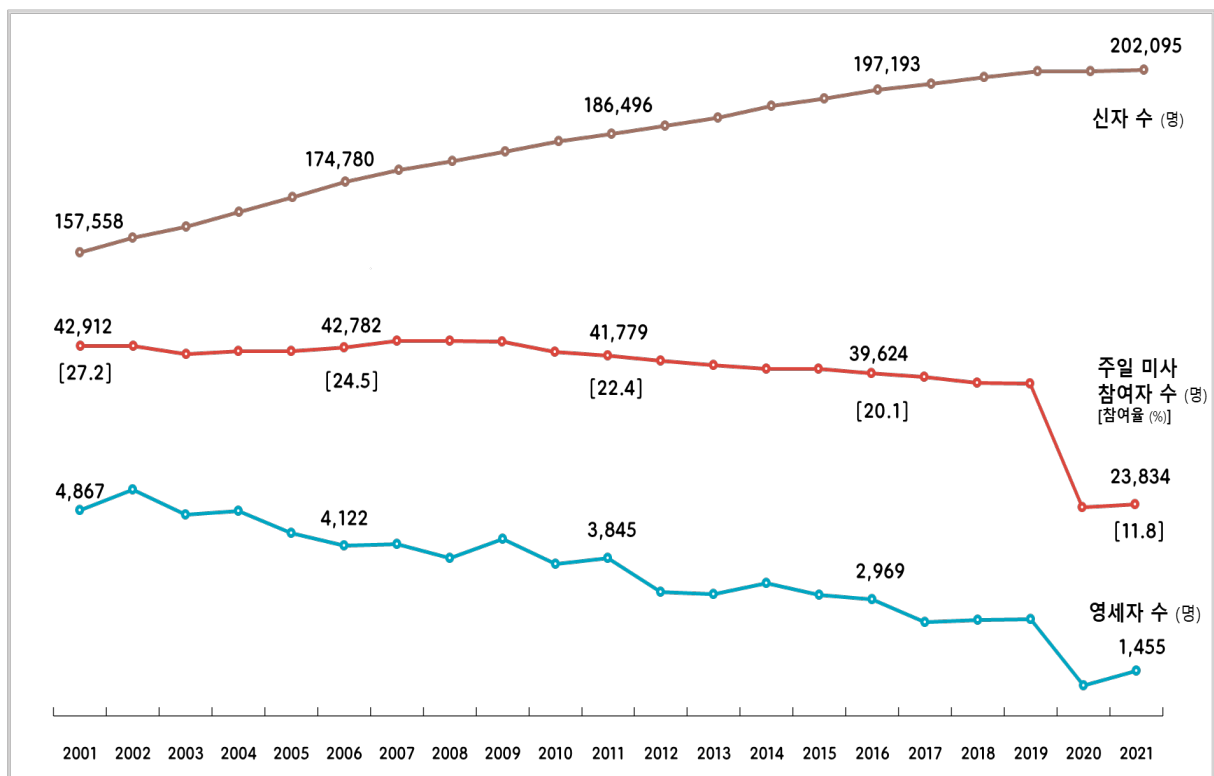
안동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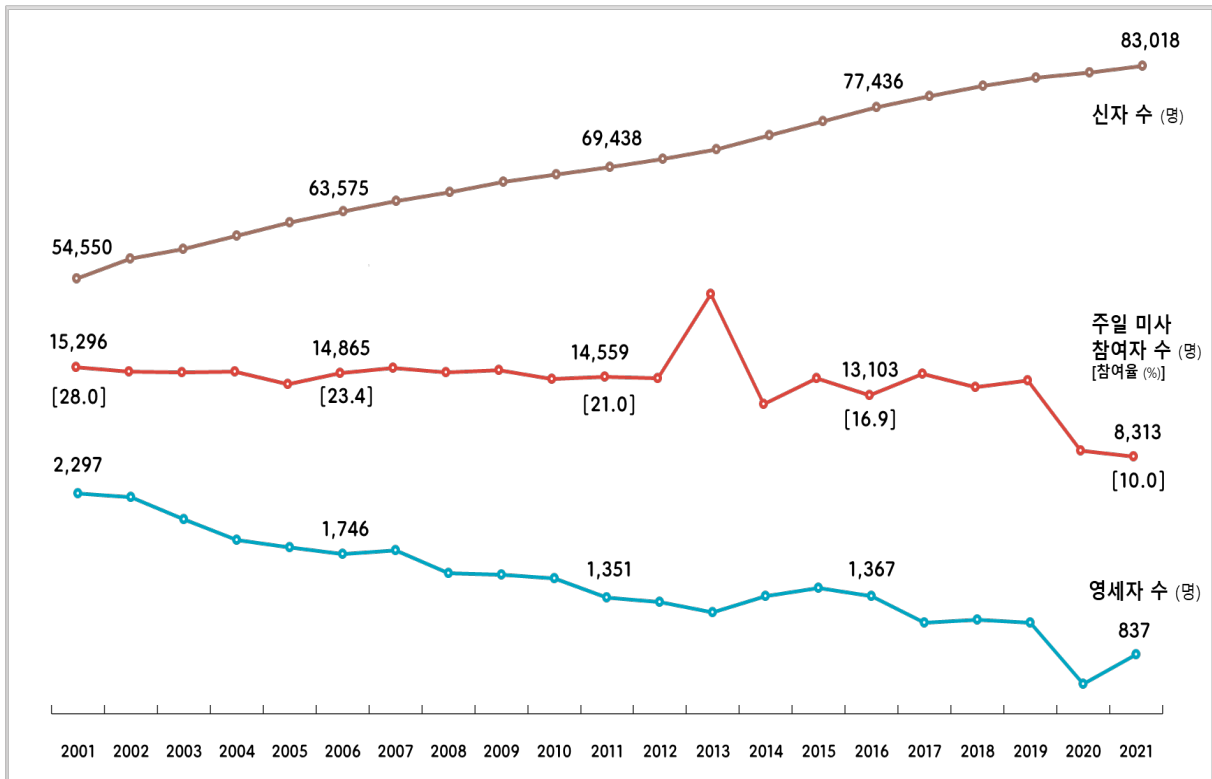
광주대교구



전주교구



제주교구



군중교구

